

# 곶은치 · 솔거리 사람들의 삶과 문화

-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

—  
이  
영  
식  
—





## 발 간 사



횡성문화원장 박 순 업

강림면 부곡리 곧은치, 솔거리 마을은 옛날에 원주 관할이었으나 1895년(고종32년) 영월군 수주면에 소속되었다가 1962년 횡성군에 편입 된 횡성 최남단, 치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산수가 수려한 마을입니다. 매혹적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펼쳐진 마을이지만 교통의 불편으로 왕래가 힘들었고 그로 인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 지금도 세시풍속, 일상의례, 민간신앙 등 전통문화를 아직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신앙인 마을제를 옛날 방법대로 지내는 등 옛것을 지켜내는 것들이 많은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운곡 원천석선생과 태종, 나옹소 등에 대한 설화를 선명하게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가치 있는 우리고유의 민속들이 사라지고 명맥마저 끊기고 있는 현실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곧은치, 솔거리 마을 사람들은 전통문화를 이어 가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더 흘러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 귀중한 우리민속이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2년 동안 곧은치마을, 솔거리에 묻혀 면담, 채록, 답사, 조사 등을 통해 마을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집필해 주신 이영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속을 잘 계승해 오시며 좋은 자료가 담긴 책자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마을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치악산 품속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 격려사



황성군수 한규호

### 문화의 가치를 돌아보며

황성문화원에서 발행하는 향토사료 제28집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향토사료집은 강림면 부곡리 곧은치·술거리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집중 발굴하여 조명함으로써 우리 황성에 또 하나의 소중한 사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료집이 발간되기까지 민속학의 권위자이신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이영식 선생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이영식 선생은 이 사료집 발간을 위하여 2년에 걸쳐 40여 차례나 이 지역을 제집 드나들 듯 하시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해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열정의 산물인 이 사료집을 받아들이고 이영식 선생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성문화원은 1964년 설립된 이래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황성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향토사 발굴과 정리를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향토사료집은 1983년 제1집 <황성의 인물> 발간을 시작으로 오늘 28집에 이르는 동안 황성의 지명유래, 인물, 전설과 설화와 같은 구비문학, 민속자료와 민족운동사 등 역사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를 담아내면서 황성의 문화적 자존감을 드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가 이르기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 것을 잘 살피고 보존해야 우리 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의 영역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황성지역은 문헌상으로 상고시대 마한의 영역으로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지역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일수록 이에 관한 문헌을 찾는 일도 어렵고, 문헌으로 전해지지 않는 향토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은 더욱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향토사를 찾고 정리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황성지역에는 향토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황성의 가치있는 문화를 발굴하는 데 열정적이신 박순업 황성문화원장님과 향토사학자 여러분이 계신 덕분에 황성의 향토사 자료가 이만큼 축적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황성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해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바라며, 황성문화원과 향토사학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황성군의회 의장 한 창 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향토사료 제28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순업 황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세들은 우리가 터 잡고 사는 마을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골짜기마다 사연이 서려있고, 바위마다 전설이 깃들여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자신 있게 들려줄 이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향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구든 덜하고 더함이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뼈와 살을 준 자기 향토에 대해 그 역사와 풍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은 향토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 번 강림면 부곡리 곧은치, 솔거리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애환과 발자취가 남아있는 황성 여러 마을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후세들에게 남겨 줄 더 많은 사료집이 집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번 사료집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향토사료 제28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 리 말



이 영 식 (李英植)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듯이, 마을에는 집안마다 전해지는 특별한 습속과 더불어 그들이 오랫동안 한마을에 살면서 마련된 보통의 풍속이 공존한다. 나아가 조그마한 마을이 모여 큰 마을을 이룬 후 이것이 넓혀져 부곡리, 강림면, 황성군 등과 같이 행정 구역으로 어우러지듯이, 황성군에 민속에는 부곡리를 이루고 있는 곧은치·솔거리 두 마을의 풍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황성문화에 속한 곧은치·솔거리 두 마을에는 다른 마을과 변별되는 민속이 전승되고 있다. 이렇듯 이웃 마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문화에 대해 우리는 지역성 또는 지역의 정체성이라 한다. 이 책은 이렇듯 황성문화와 공유하면서도 이웃 마을과 뚜렷이 구분되는 민속을 간직한 곧은치·솔거리 두 마을에 대해 지역민들의 구술 및 글 쓰이의 견학을 바탕으로 엮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을 개척한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곧은치·솔거리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한때는 4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가 있는 마을로까지 성장하였던 이야기, 치악산 깊은 골짜기의 차가운 물로 다랑이 논에 물을 대었으나 수확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 저수지 축조와 농지정리로 순탄하던 벼농사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화전하기, 숯가마 만들어 숯 굽기, 멧돼지 사냥 등 산촌이기에 가능했던 마을 이야기, 강냉이죽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던 작은 바람, 달비(다리)를 감고 감발한 발에 짚신만을 신고 산속 눈길을 온종일 다니던 일, 배냇저고리를 어른들의 헌옷으로 만들어 입히면 아이가 장수한다는 신뢰, 백일에 백설기를 해서 이웃에게 돌리면 아이가 백세까지 산다는 믿음, 가마타고 장가가던 시대, 낮에 손을 크게 베어도 소나무 속껍질이 유일한 치료제이던 시절, 호리소로 논을 갈고 썬레질을 하며 모를 심던 이야기, 기상예보를 듣지 않아도 오랜 경험으로 날씨를 옳게 예측하던 일, 그네를 타고 우두그네를 외치던 단옷날, 고소설을 읽어주고 이야기로 밤을 새



던 어느 겨울날, 가을의 넉넉한 수확과 건강에 고마움을 표했던 안택고사,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일 년에 두 번 정성 드리기,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 고향을 지키는 분 등 지역민들이 살아오면서 듣거나 겪었던 마을이야기를 정리하였다.

한편 이 책은 '강원민속문화의 해' 인 2014년, 강원도문화원연합회에서 기획한 『강원의 마을 민속』에 「강림면 부곡리 곧은치마을」의 제목으로 게재했던 글을 2015년 한 해 동안 더 답사하여 보완·정리한 마을지이다. 곧은치·솔거리 두 마을의 마을지 발행을 위해 글쓴이는 지난 2년 동안 이 마을을 40여 차례 방문했다. 그리하여 마을 어른과 개울에서 반두질을 하고, 복날에는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먹고, 산신제 때는 두 해 동안 산에 세 번 오르며 정성을 함께 올렸다. 이렇게 수십여 차례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던 힘은 지역민들의 반가운 맞음이다. 특히 김상태, 차인표 두 어른은 글쓴이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이다. 그 덕분에 필자는 많은 것을 새롭게 익히게 되었고, 마을의 민속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글을 빌려 두 분을 비롯한 마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마을지 발행에 끊임없이 애정을 보내주신 박순업 횡성문화원장님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곧은치·솔거리 두 마을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담으려 했으나, 막상 책으로 엮으려니 부족함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방문, 특히 산신제에 계속 참석하여 마을제의를 보다 깊이 있게 살피어 채우겠다. 끝으로 곧은치·솔거리마을 분들은 물론 여러 도움을 주신 대치·무례마을 어른들의 건강을 빈다.

2015년 11월

# 차 례

발간사  
격력사  
축사  
머리말

<b>제1장 마을개관</b>	<b>011</b>
제1절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012
제2절 마을역사와 문화환경	014
제3절 인구와 사회조직	019
<b>제2장 생업과 경제활동</b>	<b>027</b>
제1절 농농사	028
제2절 밭농사	038
제3절 화전, 가축, 토봉, 삼굿, 숯가마, 사냥, 정미소	045
제4절 생산 및 생업도구	058
제5절 시장	062
<b>제3장 의식주</b>	<b>065</b>
제1절 의생활	066
제2절 식생활	071
제3절 주생활	080
제4절 상수도	083
<b>제4장 세시풍속</b>	<b>085</b>
제1절 전통적 세시풍속	086
제2절 현대적 세시풍속	101

<b>제5장 일생의례</b>	<b>103</b>
제1절 출산의례	104
제2절 백일 및 돌잔치	106
제3절 혼례	107
제4절 회갑연, 칠순례, 팔순례, 회혼례	111
제5절 상장례	113
제6절 제례	114
<b>제6장 민간요법</b>	<b>117</b>
<b>제7장 민간신앙</b>	<b>121</b>
제1절 마을신앙	122
제2절 가정신앙	140
제3절 기우제 및 기후예측	143
<b>제8장 민속놀이</b>	<b>145</b>
<b>제9장 민속문학</b>	<b>151</b>
제1절 설화	152
제2절 민요	164
제3절 생애사	168
<b>제10장 교육</b>	<b>203</b>
제1절 서당	204
제2절 학교	206



# 1장 마을개관

제1절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제2절 마을역사와 문화환경

제3절 인구와 사회조직

# 제1장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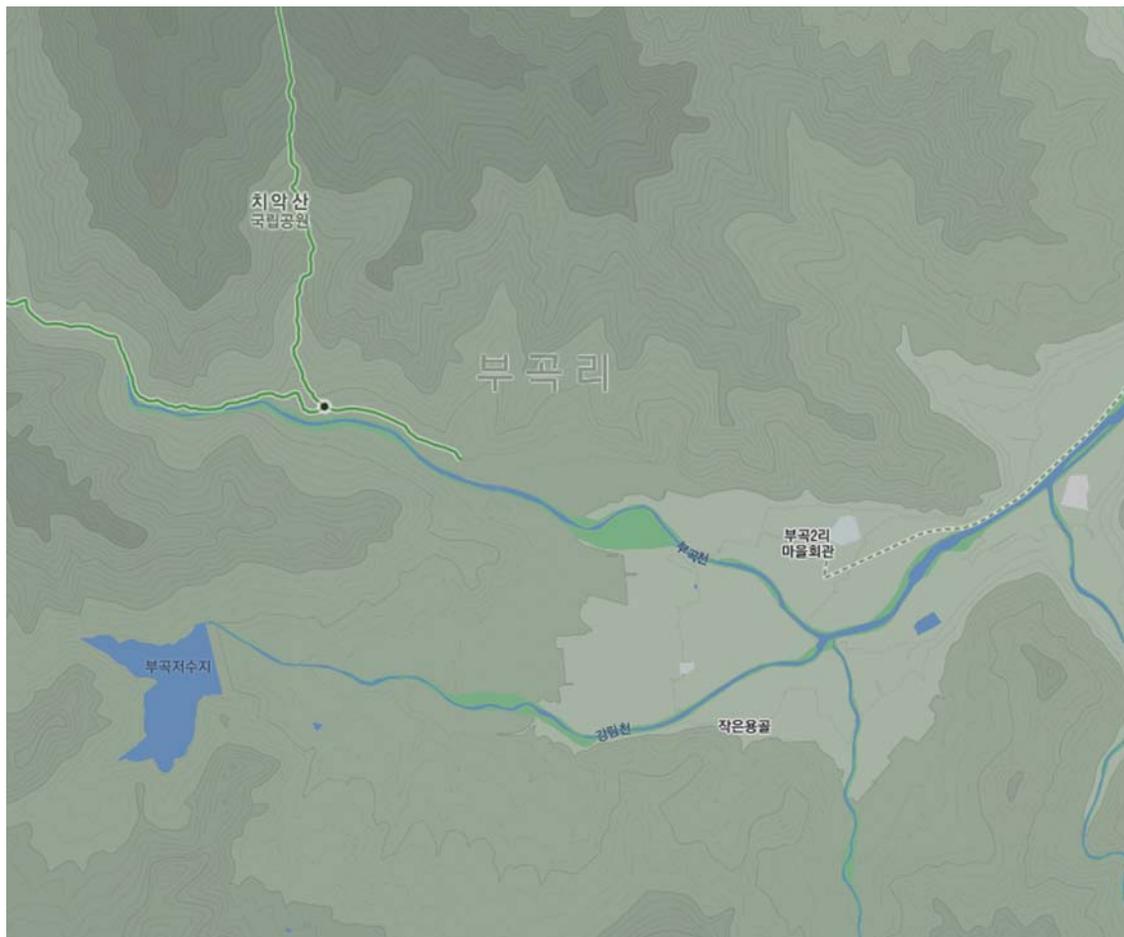
강림면(講林面) 부곡리(釜谷里)는 본래 원성군(原城郡)의 관할이었으나 1895년(고종 32년)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에 편입되었다. 당시 수주면은 중방(中方), 두릉(杜陵), 하동(下洞), 도곡(道谷), 내도천(內桃川), 엄둔(嚴屯), 고일(古日), 서운(瑞雲), 하일(夏日), 덕초(德草), 동산(洞山), 등자(登子), 가이천(佳伊川), 강림(講林), 차유(車踰), 갈골(葛谷), 부동(釜洞) 등 17개 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무릉(武陵), 도원(桃源), 운학(雲鶴), 월현(月峴), 강림(講林), 부곡(釜谷), 법흥(法興), 두산(斗山) 등 8개리로 통폐합했는데, 이때 부곡리는 송정, 무례, 사성골, 부석골, 갈골, 곧은골, 산막골, 가래골, 변암, 원통, 다리골, 횡지암 등을 병합하여 하나의 법정리가 되었다. 이후 행정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1945년 4월에 영월군 수주면 강림출장소를 설치하여 강림, 월현, 부곡 등 3개 리를 관할케 하였다.

1962년 11월 2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 월현리, 부곡리 등 3개 리가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되어 강림출장소가 안흥면 관할로 되었다. 강림출장소는 1989년 4월 1일 횡성군 조례에 의해 횡성군 강림면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1절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강림면은 지리적으로 횡성군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횡성군 안흥면 및 영월군 수주면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원주시 신림면, 서쪽으로는 원주시 행구동 및 판부면, 북쪽으로는 원주시 소초면과 각각 접해 있다.

부곡리는 강림면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월현리, 남서쪽으로는 원주시 신림면·행구동, 북쪽으로는 강림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북동쪽을 제외하고는 마을 전체가 치악산의 동북면에 접해 있는 까닭에 치악산이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러있는 분지형 마을이다. 부곡리는 부곡1리와 부곡2리로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되어 있다. 부곡리의 지명은 치악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치악산이 마치 가마솥같이 둘러있다고 하여 가마 부(釜)자와



부곡리지도

골 곡(谷)자를 써서 부곡리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곡이라는 지명은 1917년에 발간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동(釜洞)과 갈곡(葛谷)이 합해져 ‘부곡리(釜谷里)’가 되었음을 추정하기도 한다.<sup>1)</sup>

현재 부곡리는 행정리로 부곡1리와 부곡2리 두 개 리로 나뉘어 있다. 부곡1리는 마을에 가래나무가 많다고 하여 명명된 가래골(1반), 예전에 칙이 많았다고 해서 명명된 갈골(2반), 가마처럼 생긴 소(沼)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가마골(3반)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곡2리는 상원사, 원주 신림과 통하는 대치골 초입에 있는 대치마을(1반), 원주 행구동으로 통하는 곧은치골 초입에 있는 곧은치마을(2반), 부곡2리 중심에 있고 소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송정이라고도 불리는 솔거리마을(3반), 부곡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는 마

1) 『치악의 산골마을 부곡』,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8, 22쪽.

을로 강림보다 마을 먼저 생겼다고 해서 ‘무례 강림’이라는 말이 전해오는 무례마을(4반)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곧은치마을은 원주 행구동으로 통하는 골짜기 길이 곧게 뻗어 있다고 해서 명명되었는데, 마을 이름 또한 이를 그대로 따서 곧은치라 한다. 마을에서는 ‘고든치’, ‘고둔치’ 등으로도 표기하고 있으나,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이들의 의미를 ‘골짜기 길이 곧아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곧다’의 뜻인 ‘곧은치’가 바른 표기라 판단한다.

한때 부곡2리는 7개 반이나 되는 큰 마을이었다. 1반은 대치, 2반은 곧은치, 3반은 솔거리, 4반은 무례 등으로 지금과 다르지 않았으나, 곧은치 재 너머에 있던 곳으로 마을에 큰 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명명된 교동마을이 5반, 원통사(圓通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해서 원통마을이라 불리던 마을이 6반, 부곡저수지 쪽에 있던 마을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어서 이름이 붙여진 부석골마을과 성터가 있어서 명명된 산성골마을은 합해서 7반에 속했다. 그런가 하면 대치마을 황새골에는 임 씨네 여섯 가구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화전정리 때 교동, 부석골, 산성골에 살던 분들이 다들 서울, 원주, 제천 등으로 이주하면서 현재와 같이 대치, 곧은치, 솔거리, 무례 등 네 개 마을 4개 반으로 부곡2리가 구성되었다.

곧은치골과 대치골, 부곡저수지에서 각각 시작된 부곡천은 대치마을과 곧은치마을 초입에서 어우러져 강림천으로 이름이 바뀌어 부곡1리 가마골과 가래골, 강림리 태종대를 차례로 거쳐 강림면 소재지를 지나 강림1리 정암에 이른다. 이곳에서 둔내면과 안흥면을 지나온 주천강과 합수된 물은 월현을 지나 영월군 수주면으로 접어든다.

## 제2절 마을역사와 문화환경

강림면은 본래 원성군(현 원주시)에 속해 있다가 1895년 영월로 편입되어 1962년 11월 횡성군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줄곧 영월군에 속했었다. 1945년 4월에 영월군 수주면 강림출장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부곡마을 분들은 영월군에 주천면사무소에 가서 배급을 타왔다. 서너 달에 한 번씩 가서 식구수대로 배급을 타는데, 안남미, 설탕 등을 받아왔다.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은 이제는 대부분 돌아가시고, 현재 마을에 남아 있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헤아린다.



대치에서 바라본 곧은치·솔거리마을

정부에서는 화전정리 5개년(1974~78년) 계획을 수립하고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전정리를 추진하였는데<sup>2)</sup>, 부곡리의 교동마을, 원통마을, 부석골마을, 산성골마을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이곳에 거주하던 분들은 이주비 40만원을 받고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새마을 운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때는 부곡2리가 영월군 수주면이었다가 횡성군 안흥면으로 편입된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생활상은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마을 구성원이 힘을 합쳐 도로정리, 마을청소, 꽃 심기 등 마을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는 한편 각 가정에서는 초가지붕을 함석으로 개량을 하는 집이 하나 둘 늘었는데, 지붕개량을 할 때 함석은 개인이 사다가 없었다. 처음에는 지붕개량을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 기술자에 의존했으나, 기술자가 하는 것을 한두 번 보고 주민들도 차츰 기술을 익혀 마을 사람들끼리 품앗이로 지붕을 직접 엮었다. 마을에서는 박재신 다편이 가장 먼저 지붕개량을 했다.

새마을운동 때는 당시 마을마다 있던 서낭당을 많이 없앴다. 보통은 마을의 청년회가 주동이 되어 철거를 했는데, 마을 구성원이 망설이면 면직원이 나와서 직접 헐기도 했다. 하지만 부곡리에서는 관의 명령에 의해 서낭당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마을이 부곡리와 사정이 같지 않았다. 강림리 선계에 있던 서낭당은 마을에서 허물지 않으므로 면서기가 부셨는

2) 『화전정리사』, 산림청, 1980, 189쪽.

데, 이후 무슨 사정인지 그 면서기의 아들이 갑자기 죽고 부인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다. 이에 어떤 마을에서는 허물었던 서낭당을 다시 짓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시멘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었다. 부곡마을에서는 주민들의 힘으로 가래골과 대치의 다리를 건설하고 마을 공동 창고도 지었다. 이러한 성과는 마을구성원이 단합하여 너나할 것 없이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예전에 부곡에 거주하는 분들은 물론 강림이나, 영월 수주 사람들 중에도 곧은치를 통해 원주장을 보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곧은치를 넘어가는 고개에는 주막거리가 형성되어 한 때는 술집이 여덟 곳이나 있었다. 원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늦어져 날이 저물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곧은치 주막에서 하루 묵어가기도 했다. 술은 안흥 양조장에서 배달해 주었다.

곧은치·솔거리마을은 치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지역민들은 치악산의 자연자원을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치악산은 예로부터 삼림이 풍부하여 나무벌채는 물론 숯가마가 성행했다.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제무시(GMC) 트럭이 다녔다. 산골인 곧은치·솔거리마을에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목상들이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목상들은 치악산에서 벌목한 나무나 치악산 골짜기에서 구운 숯을 실어나가느라 길을 닦은 것이다. 그러다가 1973년 3월에 치악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벌목은 물론 숯 굽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1984년 12월에는 치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부곡리도 이에 포함됨으로써 도립공원일 때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까닭에 몇 대를 거쳐 살아온 부곡리 주민들은 국립공원관리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지역민들



부곡리에서 지붕개량을 가장 먼저 한 박재신 씨의 옛집



새마을운동 때 지은 마을창고



옛 부곡초등학교

은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0년 9월에 드디어 해제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그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한때 400여 명의 학생이 다녔던 부곡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들어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로까지 강등되더니 2011년에는 폐교가 되었다. 현재 학교는 솔거리 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전에 여기 우리 아저씨가 다리 공사인가? 다리 공사 여기서 맡아서 했었어. 한번, 우리 원주 살 땀데. 원주서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애를 업고 딸래미 우리 지금 큰딸 그거 다섯 살 먹은 거를 띠어 놓고 이제 우리 지금 마흔 셋...마흔 넷 된 아들을 얘기 때 두 살 때 업고 이 원주재를 막 넘어 왔어. 그 뭐야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남자들은 모르는 줄 알고 그걸 받아가지고 연락해준다고 이 원주재로 막 허우적대며 넘어 왔는데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또 금방 넘어갔다는 거야. 난 이제 큰집으로 갔잖아. 우리 큰댁이 여기 계시니까 막 큰댁으로 가니까 우리 형님이 '아이구~ 동서, 삼촌이 지금 금방 가셨어! 그래. 그래서 그냥 가면



부곡 버스정류장

**블들 줄 알고 허겁지겁 간다는 게 글썄 저 작은재로 간 거야. 저 교회 있는 데 저 쪽으로. 저수 지재 있잖아요? 그 길로 막 넘어갔어.**

예전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 되고 대중교통인 버스는 물론 승용차도 없던 시절에 원주에 한 번 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후 버스가 다니게 되었지만, 버스를 탄다고 해도 비포장 길인 강림을 지나 안흥, 횡성을 거쳐 원주에 이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사람은 걸어서 곧은치를 넘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원주를 갈 때 버스를 타고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시간이나 걸음이 빠른 사람이 곧은치를 걸어서 넘어가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다. 2015년도 현재 부곡리에서 횡성을 거쳐 원주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다섯 차례 다니는데, 첫차가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시 42분, 12시 37분, 15시 58분, 19시 22분에 각각 출발한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림, 안흥, 횡성, 원주 등에 불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다녀온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촌에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준비한 농약이나 비료 등이 부족할 때 빠른 기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에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까지 갖추고 있는 집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정은 부곡리 곧은치·솔거리마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는 트랙터를 포함하여 여러 대의 차를 운영하기도 한다.

### 제3절 인구와 사회조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마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횡성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횡성군도 한때 10만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도시로 인구유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 등 횡성군 곳곳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던 분들이 화전정리정책에 따라 다들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농촌이 아닌 도시로 이주한 까닭에 농업인구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횡성군은 현재 4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이 되었다.

강림면 또한 1989년에는 2,150명이 거주하였으나 해마다 인구가 줄더니 2013년에는 1,579명이 거주하는 작은 면이 되었다.<sup>3)</sup> 부곡2리는 1994년에 70세대에 남자 106명, 여자 96명 등 총 202명이 거주하였으나, 2015년 7월 현재 실제 거주인은 67 가구에 140명이다. 곧은치·솔거리 마을에는 2015년 7월 현재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고,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있다. 부곡1리에는 다문화 가족이 있으나 부곡2리에는 다문화 가족이 없다.

아래는 강림면사무소에서 제공한 2015년 7월말 기준 부곡2리의 마을별 세대수, 인구수 및 연령대별 인구수이다.

부곡2리		세대수	남성	여성	총 인구수
	1반(대치)	20	19	16	35
	2반(곧은치)	20	18	21	39
	3반(솔거리)	13	17	16	33
	4반(무례)	14	19	14	33
	합계	67	73	67	140

연령	남성	여성	총 인원
0-4	1	0	1
10-14	0	1	1
15-19	6	5	11
20-24	4	2	6
25-29	3	1	4
30-34	1	0	1
35-39	3	1	4
40-44	4	4	8
45-49	8	4	12
50-54	6	2	8

3) [http://www.hsg.go.kr/sub/04\\_02\\_09.asp](http://www.hsg.go.kr/sub/04_02_09.asp)

55-59	7	9	16
60-64	7	4	11
65-69	4	9	13
70-74	4	9	13
75-79	9	8	17
80-84	4	5	9
85-89	2	2	4
90-94	0	1	1
합계	73	67	140

부곡2리에서는 특정 성씨가 일가를 이루지 않는다. 곧은치·솔거리마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부곡2리에 가장 먼저 정착한 성씨는 김녕 김씨(金寧 金氏)라 하는데, 곧은치에 거주하는 김상태 씨의 8대조이며, 김녕군(金寧君)의 21세손이 되는 김험회(金驗回)가 입향조이다. 김험회가 부곡리에 입향하게 된 시기는 대체로 18세기 중반이며, 입향 동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sup>4)</sup>

곧은치마을의 차인표 씨의 경우는 연안 차씨로 평안도 숙천에서 살던 증조부께서 부곡리에 정착한 이후 4대에 걸쳐 살고 있지만 일가를 이루진 못했다. 그리고 지금녀, 지길녀, 지옥녀 등 세 자매의 경우, 맏이인 지금녀 씨가 다섯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부곡리로 이주하였고, 두 동생들은 이곳에서 출생하였다. 세 자매는 곧은치마을에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현재까지 곧은치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여자 쪽으로 볼 때 곧은치마을에서는 지씨네가 가장 큰 일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곧은치마을을 비롯한 부곡2리는 마을 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웃이 그냥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일가친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 노인회

부곡2리 노인회는 남자회원 20명, 여자회원 25명 등 총 45명이다. 회원들은 일 년에 쌀 한말 씩 내서 겨울 동안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같이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봄가을로 회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관광을 가기도 하고, 초복에는 회원 전체가 모여 삼계용 닭을 구입해 손수 끓여서 복달임을 하며 복놀이로 하루를 즐긴다. 요즘은 많은 회원들이 게이트볼에 관심이 많아 시간만 되면 열심이다.

4) 치악의 산골마을 부곡,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8, 41쪽.



노인회 여행



노인회 복놀이

### ▷ 부녀회

부곡2리 부녀회는 회원이 40여 명이다. 수익 사업으로 폐비닐, 빈농약통을 수거하고 마을의 행사를 보조한다. 한 가구당 여성 1명이 가입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며느리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물려줘야 며느리가 활동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부녀회비를 5천 원씩 회비를 냈으나 지금은 없다.

한때 부녀회 사업으로 반별로 부녀회 가게를 운영하였다. 가게라고 해서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녀회원들 집에서 운영하였다. 2~3달간 한 부녀회원 집에서 운영을 하면 다음 달에는 다른 부녀회원 집에서 판매를 했다. 주로 조미료, 국수, 술, 껌, 오징어, 양미리 등을 원주나 안흥에서 구입해 팔았다. 다른 집으로 넘길 때는 찰옥수수 시루떡을 해서 부녀회원들에게 대접했다. 부녀회 가게를 하는 순서는 심지 뽑기로 정했다. 부녀회 가게를 운영하는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으니 아이들이 그것을 먹는 경우가 잦아 어떤 집에서는 그 값을 물어 주기가 바빴다고 한다. 이렇듯 보자기에 물건을 싸서 1~3달씩 돌아가면서 한 해 정도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가게를 짓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했다. 이렇게 가게를 지어 부녀회원 세 사람이 돌아가며 운영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나는 까닭에 부녀회에서는 가게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 ▷ 체육회

부곡2리에 체육회가 있는데, 회장은 이장이 맡는다.

부곡초등학교 동문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활동이 거의 없고 주로 졸업 동기들끼리만 모임을 갖는다. 현재 부곡2리 마을에는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

### ▷ 상조계(상포계)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상조계에 모두 가입했다. 그리하여 어느 집에서 상을 당하면 계원들이 쌀 1말씩 모아주었는데, 현재는 하지 않는다. 이 상조계는 자연마을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곡2리 전체가 함께 했다. 요즘은 상이 나면 대부분 장례식장에 가고, 특히 매장(埋葬)보다 화장(火葬)을 선호하는 까닭에 상여를 운반하거나 회를 다지고 봉분 다지는 일이 드물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역민들이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까닭에 지역의 상조계 역할이 크지 않다. 현재 부곡2리에는 하나의 상조계가 있는데, 상조계의 돈을 한때 경로당에서 관리했다.

### ▷ 혼인계, 환갑계

잔치 때나 회갑 때면 쌀 한말씩 걷어서 주는 계가 있었다. 이 계는 자연마을 별로 하지 않고 부곡2리 전체가 하는데, 일정 금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점차 하지 않게 되었다. 계는 각 계원들에게 혜택이 한 번씩 돌아가면 끝이 난다.

### ▷ 친목계

곶은치 마을의 김상태 씨의 경우, 안흥과 강림 두 지역의 동갑들이 모여 계를 만들어 한때 28명이나 되었다. 그 모임이 40년 동안 유지하다가 계원들이 하나 둘 사망하는 바람에 3년 전에 깨졌다. 모임 때마다 조금씩 걷어 식사비용으로 충당하고, 여행경비를 따로 모아 부부가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다.

### ▷ 반지계

한때 반지계가 유행하였다. 주로 동년배 여자들이 하는데, 7~8명 정도의 계원이 구성되면 계를 했다. 계는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서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탔는데, 타는 순서는 심지 뽑기로 차례를 정했다. 한 달 겹돈은 몇 돈짜리 금반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 부녀회 가게 및 마을 가게

20여 년 전에는 마을에 가게가 네 곳이나 있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옮겨 다니던 부녀회 장사를 곶은치, 대치, 솔거리, 무례 마을마다 했는데, 한 달 또는 2~3달에 한 번씩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했다. 다음 집으로 부녀회 장사가 넘어갈 때는 정산 후 인수인계를 했다. 부녀회 장사는 부녀회 기금으로 운영했는데, 당시 곶은치마을 부녀회의 가입비는 2만 5천원이고 회원은 40명 정도였다. 이후 수입이 계속 줄어들자 옛날 마을회관 자리에 부녀회 가게를 내고 개인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고정적인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만두었다.

아휴~ 많았죠. 이 집이 있었고 요 우에 집에, 요 우에 그 이렇게 줄 처났죠? 그 창고 거기도 했었고 저 앞에 주차장 쓰는 것도 했었고 또 쪽 올라가면 저기 가게 또 했었다고 그랬잖아. 전화 아까 냈다는 데. 거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땐 또 집집마다 부녀회 가게도 하고.

(부녀회 가게 집집마다가 아니고 하나만 있었잖아요?) 아니, 집집마다 하나가 아니고 대치는 대치마을, 곧은치는 곧은치, 웃무래, 술거리 요렇게. 부녀회에서 하는 그 보따리가 옮겨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두 달에 한번, 석 달에 한 번씩 요렇게 가서 요렇게 그 집에 가서. 그 다음엔 저 집이 할 차례. 그러면 우리가 애들이 많으니 뭐 과자도 머 있으면 다 주워 먹으니 뭐. (그럼 그땐 물건이 뭐 뭐 있어요?) 그전에는 뭐... (담배도 팔았죠?) 아니야. 그전에는 담배는 유일하게 요집[현재 가게]만 팔았어. 담배 가게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리고 그건 들고 땀기며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 갈골에 어떤 할머니가 술도 파시고 담배도 파시고 하는 집이 있어. 그 뚱뚱한 아줌마 시어머니인가 그 양반이 하셨어. [부녀회 가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로 술이고, 주로 뭐 무슨 미원, 국수, 머 주로 필수품 이런 거 몇 가지지 많이는 못해요. (결산은 1년에 한번 하겠네요? 부녀회에서 마을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얼마 수익을 얻었다, 모자라다. 뭐 예를 이렇게 그런 거. 현찰이에요? 외상 되나?) 외상이지요. 옥수수 한 되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콩 한 되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레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그게 처음에 인수인계 할 때 금액을 계산하고 이제 그걸 물건 뭐 뭐 계산하고 넘어갈 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제 수입이 얼마, 파는 게 얼마. 이래가지고 인수할 때는 얼마.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해가지고 그냥 또 넘기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두 달씩 해. 두 달 보고 또 딴 집이 보고. 서로 안 할라고 그러는 거야. (부녀회에 가입해야만 운영하는 거네요. 부녀회는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냥 거의 다 했어. 의무적으로 그냥 다 부녀회원들,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사먹고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차가 없으니까 차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휴~ (그럼 물건은 누가 떼어 와요?) 저 위에 복자 아버지라고 계셔. 복자 아버지라고 안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조달해서 팔고. 그전에는 경운기로 끌어다 팔고. 그것도 청년회가 있어. 그러면 부녀회장하고 동네에 부녀회장 하나, 총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띠어와. 물건을. 그리고 또 개인별로 갈 일이 있으면 필요한 품목 떠다가 하고. (언제까지 하신 것 같으세요?) 그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 건너오고 얼마 안 돼서 다 없어지고 여기 동네에서 부녀회... 이집이가 그전에 있던 집이 독점을 할라고 그랬어. 저 위에 가게 하나 그것까지 마저 사가지고 자기네가 독점을 할라고 했는데 독점을 하면 물건이 비싸다 해가지고 부녀회 가게를 그냥 동네에서 차렸어요. ... 그게 뚜렷한 주인이 없으니까 계속 손해가 나고. 시골 사람들이 뭐 그거 뭐 남자들이 정확히 계산을... 우리도 그런데 해던 사람도 그런데. 그 안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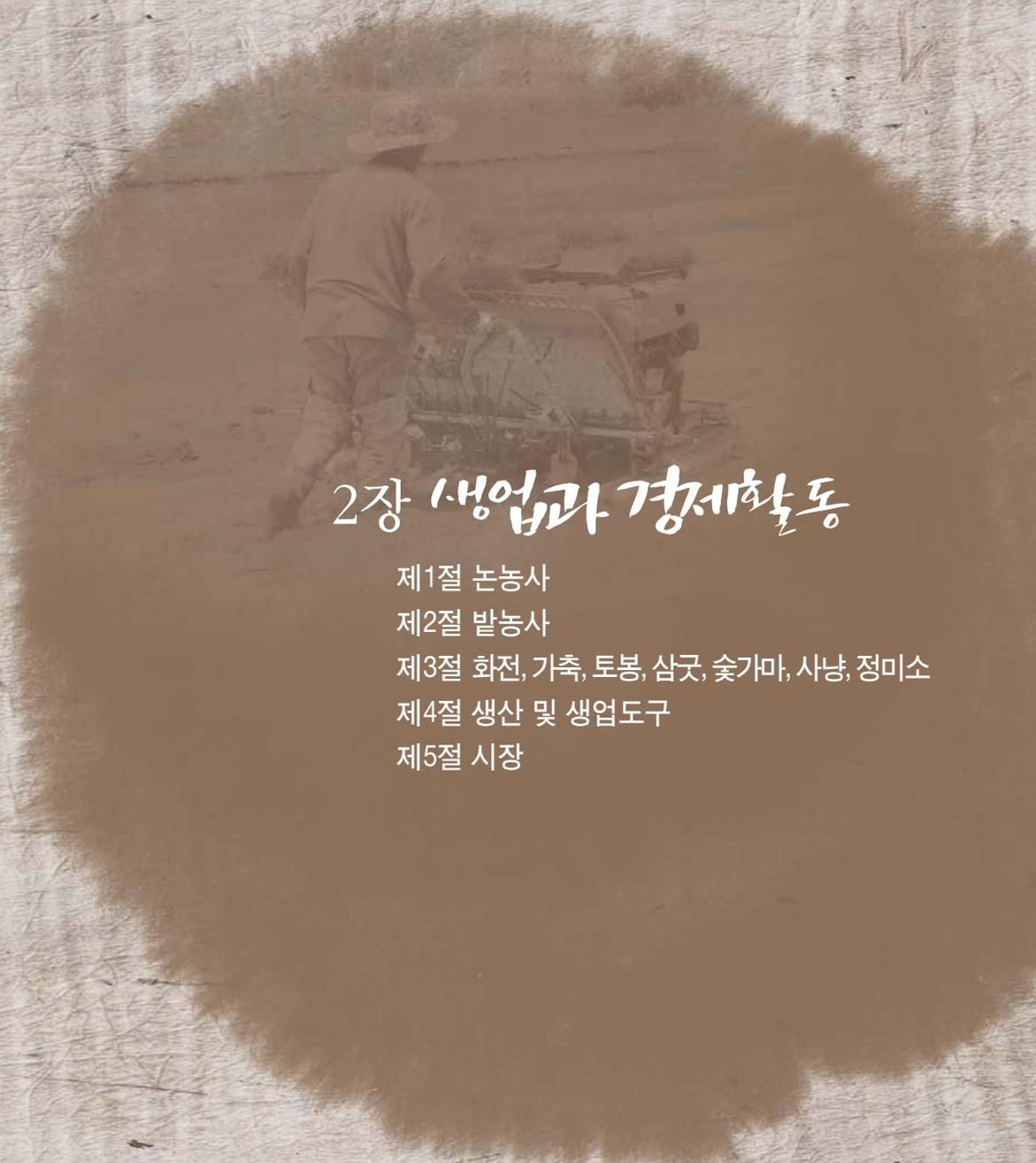
던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냥 놔두고, 에이. (몇 년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몇 년 넘어 갔어. 한번에는 김명한 씨라고 저 위에 있어. 동네 사람이 최복헌 부인이 한번 하고 또 저기 고종원이 부인이 한번 하고 또 여기 보람네 김길생 씨 부인이 그 집이가 한번 하고, 하여튼 몇 번씩. 또 저 김명한 씨 동생네를 형네가 일부러 불러다가 또 하라고 해가지고 했어. 했는데 그거 하다가 에이, 부녀회 가게는 이제 폐지시키자 이러고는 자기가 자기네 가게를 했는데 되지를 않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다 그냥 나중에 수익금이 없으니까 적자 장사니까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명한 씨 부인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이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 가게는 되든 안 되든 담배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끼고 그냥 그냥 했어.



곶은치 가게

### ▷외국인 노동력

부곡2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명 있는데 대부분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원주의 인력 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오는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 사무소를 거쳐서 지급한다.



## 2장 **생업과 경제활동**

제1절 **농농사**

제2절 **밭농사**

제3절 **화전, 가축, 토봉, 삼굿, 숯가마, 사냥, 정미소**

제4절 **생산 및 생업도구**

제5절 **시장**

## 제2장 생업과 경제활동

### 제1절 논농사

부곡2리는 과거에 밭농사를 많이 했으나, 1992년에 부곡 저수지가 조성되고 농지정리가 이루어진 후 논농사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밭농사는 주로 옥수수, 콩, 고추를 재배했다. 월현리는 담배농사를 많이 했으나 부곡리는 기후가 맞지 않아 담배농사를 하지 않았다. 부곡리는 강림리와 비교할 때 서리가 얼흘 차이가 나며 4월까지 산에 눈이 있다. 황성보다는 봄이 한 달 늦고 겨울은 한 달이 빠르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아끼바리(추청)는 늦게 성장해서 수확이 늦은 까닭에 겨울이 긴 강림 지역에서는 맞지 않다. 현재 황성농촌기술센터에서 권하는 벼 품종은 오대벼를 황성군 지역에 맞게 개량한 품종인 삼광과 운광인데, 황성읍, 공근면, 우천면, 서원면 등과 같이 비교적 들이 넓은 지역에는 삼광을 주로 심고, 갑천면, 청일면,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 등과 같이 산간지역에는 주로 운광을 재배한다. 운광은 벼씨가 두꺼워서 수확이 적다. 그럼에도 부곡2리 마을 분들이 2015년에 90% 정도 운광을 심은 까닭은, 운광이 아니면 안흥농협에서 벼 수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심던 벼씨는 유기도와 풍계가 있는데, 유기도는 쌀알이 굵고, 풍계는 쌀알이 잘다. 밥맛은 풍계가 더 좋았다. 쌀알이 작은 게 밥맛이 좋다. 예전에는 한 마지기에 쌀 두 가마 정도 수확이 되었으나, 지금은 댓 가마 수확된다. 예전에는 가물면 물이 없어서 소서 때까지도 벼를 심었다. 당시에는 계곡물을 바로 대는 까닭에 물꼬가 저서 논에 물을 대는 입구 쪽이 벼가 잘 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비닐을 통해 물을 돌리면 데워지는데, 그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까닭에 물을 돌려도 물이 차가웠다.

예전 부곡리에서는 호리소로 논밭을 갈았고, 한때 달팽이 농법으로 한 적이 있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수확이 많지도 않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었다. 모내기를 하고 난 후 모가 없는 곳에 모 메우는 것을 ‘모땀’, ‘모를 누빈다’, ‘모를 때운다’ 고 말한다. 붓도랑은 양력 4월 10일에 쳤고, 호미씻이는 음력 6월 초순경에 했다. 모내기 후에는 물이 많은 곧은치 계곡에 가서



모 누비기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안주삼아 술도 마시며 하루를 쉬었다.

예전 부곡2리에서는 논 1마지기가 130평이었으나, 농지정리가 된 지금은 1마지기가 150평이다. 논농사가 밭농사에 비해 수익은 낮지만, 밭농사에 비하면 논농사가 일이 적기 때문에 편하다. 벼농사는 주로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집에 기계가 없거나 기계조작이 어려워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의뢰한다. 기계로 일을 했을 때 품값은 1마지기당 모심기가 30,000~35,000원, 논살기는 30,000원, 벼베기는 35,000원이다. 그런데 벼 수매기는 그대로 이거나 올라도 조금 오르는데, 품값은 해마다 높게 오르는 까닭에 직접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삼밭을 운영하는 외지인에게 장기간 임대하기도 한다.

벼농사는 못자리 하는 일부터 시작되는데, 못자리는 4월 20일경에 하고, 못자리를 한 후 한 달 이내에 모심기를 한다. 모를 심고 15일 후에 중간 제초제를 뿌리고, 다시 10일 후에는 벼 낱알이 많아지라고 가지 비료를 친다. 그 후에는 도열병 예방약을 치고 6월 25일 경에는 벼 낱알이 여물게 하기 위해 이삭 비료를 친다.

예전에는 못자리를 망가트리는 개구리를 막기 위해서 방책을 했다. 이를 ‘개구리 방천’이라 하는데, 개구리 방천은 못자리 둘레에 70센티미터 정도 되는 기다란 말뚝을 군데군데 박

고 수숫대를 엮어 막대에 기댄 다음 수숫대 안쪽에 흙을 발랐다. 수숫대를 세울 때는 직각으로 세우지 않고, 수숫대를 못자리 바깥쪽으로 기울여 개구리가 뛰거나 기어서도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무당개구리가 못자리에 들어가면 모를 망가트린다. 예전에는 개구리가 많았다. 개구리 방전은 6.25 전까지 했다.

농지정리 전에는 호리소로 논을 삶았으나, 이후 경운기가 나오면서 소로 논 삶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트랙터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마을에 소로 논을 갈거나 삶는 일은 없어졌다. 그런데 부곡2리에서는 트랙터로 밭을 갈지만 밭고랑을 낼 때는 소를 이용하는 집이 있다.



모심기

박재신 씨는 트랙터로 밭을 갈지만 고랑을 내는 일이 쉽지 않아, 밭고랑을 낼 때는 집에서 키우는 농우로 일을 한다. 현재 박재신 댁에서 부리는 소가 부곡리의 유일한 농우이다.

모심기를 할 때 다랑논에서는 주로 망띠기 모내기를 했으며, 일반 논에서는 줄모를 심다가 속도가 더디어서 산식인 막모를 심었다. 30년 전부터는 못자리한 모판의 모를 이앙기로 심는다. 벼씨를 뿌리는 방법



번지치기



모내기 끝낸 논

은 조파(줄뿌림)와 산파(흩어뿌리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산파 이앙기를 많이 사용한다. 조파는 구멍이 일자로 생긴 모판인데, 그 구멍에 볍씨를 뿌린다. 산파는 구멍이 없는 민판에 상토를 먼저 깔고 볍씨를 뿌린 다음 복토를 덮는다. 산파가 조파보다 모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다. 논을 삶아



박재신 맥 농우



제조제 치기



잘 익은 벼

서 망을 만들어 놓고 줄을 친 다음 범씨를 뿌려 모를 키운다.

논에 들어가 씨레질을 하는 사람을 ‘선군’, ‘선일꾼’ 이라 한다. 모를 심을 때 모심는 사람에게는 참을 주지 않지만, 선군에게는 참을 주고 담배도 주었다. 그래 모두들 선군을 부러워하는데, 선군은 소를 잘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논을 고르게 펼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진정한 선군이라 할 수 있다.

부곡리에서는 첫 모를 보통 양력 6월에 시작한다. 박정희 정부 때는 6월에서 7월까지 모내기를 다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 부곡은 보름 동안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 하는 날인 모날을 받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중간 날에 받으려고 해서 제비뽑기로 정했다. 모내기하는 날에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모찌기를 하고 밥을 먹는다. 산식으로 모를 심다가 박정희 때 줄모를 했다. 줄모를 할 때는 줄잡이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으나, 논이 좁은 곳은 줄잡이가 모내기도 했다. 모내기를 할 때는 두레를 했는데 논마지기 수에 따라 인원이 정해졌다. 마지기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품앗이로 짚었다. 모내기 할 때는 한 사람이 1마지의 논을 감당했다. 논매기 할 때도 이와 비슷해서 1마지기 논은 한 사람이 맡았다.

지금이야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논매는 일이 없으나, 예전에는 호미로 논을 땀다. 논매기는 보통 2~3번을 하는데, 모를 심고 난 후 2주 정도 지나면 호미로 애벌매기를 했다. 애벌매기를 한 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 애벌 때 호미로 짙어 넘긴 흙덩이를 손으로 주물러서 풀어주는 두벌매기를 한다. 부지런한 사람은 세벌까지도 매지만, 두벌매기 이후는 보통 피나 뽑아준다. 애벌매기 할 때는 소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술이 생겨도 석 잔이야” 하고 선소리를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에허리 단허리” 하고 외쳤다. ‘술이 생겨도 석 잔이야’ 라는 말은 단허리소리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단허리소리를 못하면 나오던 술도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부곡리에서는 새참을 제누리라 하는데, 제누리는 보통 국수, 메밀묵을 한다. 점심을 전후로 해서 오전에 먹는 것은 아침제누리, 오후에 먹는 것을 저녁제누리라 한다.

추수는 주로 가족끼리 했으나, 추수할 벼가 많은 집에서는 품앗이를 했다. 벼는 낮으로 베어 논에 깔아 놓고 말리는데, 벼의 안팎을 몇 번 뒤적거린 후 다 마르면 묶는다. 묶은 벼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털었다. 예전에 마을의 흥영식 씨 아버지는 묶은 벼를 소 3마리로 싣고 와 발기계로 털었는데, 새벽 3시에 시작하여 밤 11시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에 기계화의 미흡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곡리에는 경지정리 전에도 논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논가돌리기

예전에는 낫으로 벼를 베었고, 이후 바인더로 벼 베는 일만 기계화가 되다가 지금은 콤바인으로 베는 일과 탈곡을 동시에 한다. 일은 편해서 좋지만 기계 값이 고가라 웬만큼 농사 짓는 분은 구입할 수가 없다. 이에 탈곡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이에게 일을 부탁한다. 하지만 이렇듯 기계로 벼를 베고 탈곡을 하더라도 콤바인이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낫으로 논 가장자리를 베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논가돌린다’ 고 한다.



추수하기

콤바인으로 추수한 벼는 1,000kg 자루에 담아 안흥농협 건조장으로 보낸다. 이렇게 탈곡의 기계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직접 탈곡하여 쌀을 파는 분들도 있으나, 쌀이 흔한 요즘은 가정에서 먹을 것만 따로 탈곡한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방앗간이 있어 그곳에서 탈곡을 했으나, 벼 수확량이 많아지고는 우천농협이 운영하는 곳으로 많이들 갔다. 그러다가 10여년 전에 안흥농협에서 운영하는 건조장이 생겨 추수한 벼는 모두 그곳으로 간다. 예전 직접 벼를 건조해 탈곡할 때는 쌀 한 가마니에 7되의 수수료를 댔다.



벼 건조장

논을 삶는 선군은 품값이 같으나 대우가 더 좋아 제누리를 더 잘 챙겨줬다. 씨레질은 하루에 5~6마지기를 하지만, 모내기는 한 사람이 한 마지기씩 했다. 씨레질할 때 30마지기 논이면 5마지기당 소 한 마리씩 들어가서 갈지자로 삶았다. 논이 많은 집은



벼 지루에 담기

한 번에 소 7~8마리가 들어가 논을 삶기도 했다. 논을 삶을 때는 6번씩 갈지자로 씨레질을 하면 논 하나를 다 삶는다. 씨레는 겨리용과 호리용이 다르다. 호리는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끌게 했다.

모심을 때 피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띠기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를 할 때 줄을 떼는 것을 망띠기라 한다. 한 사람이 한 줄을 먼저 심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모를 심는다. 한 사람이 1망에 6줄씩 심는데, 논배미 크기와 상관없이 손모를 심을 때 했다. 작은 논은 주로 막모(산식)로 심었다. 망띠기가 정조식이라서 많이 했고, 서로 피를 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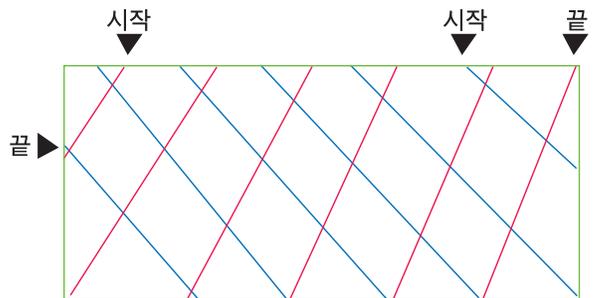
씨레

지 못하고 계속 모내기를 하게 하기 때문에 좋았다.

손모를 심을 때 지게로 모를 날라다 주는 사람을 모종이라 한다. 모찌기는 모내기 하는 사람이 아침에 모를 뽑아 놓는다. 모내기할 때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처녀들은 논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전 쌀이 귀할 적에도 모내기할 때만은 쌀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상열 씨는 15,000평 논농사를 짓는데, 150평 1마지기에서 보통 60kg 벼 4가마를 수확한다. 정부의 쌀 수입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지만, 쌀 수입 개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농산물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우리가 벼농사를 해서 우리 쌀을 먹고 있지만, 후대에 우리 쌀이 없어질까 걱정이다.

1980년대에 쌀이 부족해서 벼농사를 적극 장려했다. 그래서 부곡리 산골마을에도 저수지를 만들고 경지정리를 했다. 부곡리에 있는 대부분의 논은 절대농지라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다.



호리소로 씨레질 하는 방법



비료주기

이러한 까닭에 논에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을 심는 것이 어렵다. 부곡저수지 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첫 해에만 물세를 냈을 뿐 이후로는 물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도열병은 비온 뒤 생기는 병이다. 예전에는 도열병에 소금을 뿌리면 좋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소금을 뿌리면 벼가 다 죽는다. 몇 해 전까지도 마을에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농가가 있었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은 제초제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벼를 집에서 타작을 했는데, 타작할 때면 먼저 마당을 손질한다. 빗자루로 마당을 깨끗이 쓸 다음 흙물을 만들어서 빗자루에 그 흙물을 묻혀 마당을 쓸어놓는다. 그리고 흙물이 굳을 쯤 그 위에 왕겨를 깔아놓는다. 그러면 땅바닥에 작은 돌맹이도 없이 깨끗하게 되고, 흙물이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벼 타작을 했는데, 이걸 '마당 닦는다' 고 한다. 벼 타작을 한 다음에는 이 마당에서 콩 마랭이(마당질), 팥 마랭이(마당질)를 한다. 마당 닦음은 해마다 주변의 좋은 진흙을 가져다가 한다.

### ▷ 부곡 저수지

부곡 저수지는 1985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11월에 완공되었다. 김상태 씨는 25년

동안 ‘보강구(저수지관리원)를 했으나 5년 전에 건강 때문에 그만두었다. 보강구는 매해 4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저수지의 물을 보에 대는 일을 했는데, 수로가 망가지면 농어촌공사에 보고를 하여 수리가 빨리 이뤄지도록 한다. 보수는 6개월에 150만원을 받다가 그만두기 2년 전부터 200만원을 받았다. 저수지 물의 양에 맞춰서 보에 물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하구에 흐르는 물의 양을 보고 보에 물을 댔다. 보강구는 마을에서 추천 받은 사람이 했고, 본인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었다. 장마 때면 ‘물을 떼야’ 하기 때문에 바빴다.



부곡저수지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부곡리 논이 몇 백 마지기도 안 되는 다랑구지(다랑논)이었다. 논 배미가 2마지기짜리도 드물었다. 저수지가 생기고 농지정리가 되면서 논농사가 많아졌고, 현재 논이 3,802마지기나 된다. 부곡2리 논에 대는 물이 저수지에 저장했던 물이다보니 수온이 높아져 차가운 개울물을 직접 대는 강림리보다 쌀 품질이 좋다. 개울물의 경우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차다. 그런데 저수지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낮, 밤 상관없이 물이 따듯하다.

한때 마을 분들이 저수지에 빙어, 붕어 등을 방사했다. 저수지는 수심이 깊어 위험할 뿐 아니라,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고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 제2절 밭농사

부곡리에서는 한때 겨리로 밭을 간 적도 있었으나 해방 이후 호리소로 논밭을 갈았다. 호리로 하루에 밭을 1,700평 정도 갈 수 있었다. 밭을 갈고 4명이 한조를 이루어 땅 파기, 거름 뿌리기, 씨 뿌리기, 흙으로 덮기를 했다. 땅 파기와 거름주기 그리고 흙덮기는 남자가 했고, 씨 뿌리기는 주로 여자가 했다.

### ▷ 귀리

일제강점기 때는 마을에서 귀리를 재배했는데, 가을에 심어서 보리랑 똑같이 음력 5월에 수확을 했다. 귀리를 봄에 심으면 수확이 잘 되지 않으며, 현재는 재배하지 않는다.

### ▷ 메밀

부곡리에서는 메밀도 많이 심었는데, 메밀은 감자를 캔 후 중북 무렵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했다. 또 담배를 뜯고 메밀을 심기도 했다. 메밀을 심을 때는 중북에 밭을 한번 갈아 놓고



메밀밭

심기 전에 한 번 더 간다. 소가 걸어나오면서 잡초를 밟고 나오기 때문에 메밀농사를 지으며 김매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찰옥수수 밭

### ▷ 옥수수

논은 이모작을 하지 않지만, 밭은 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봄에 벼 다음에 콩, 팥을 심는 등 이모작을 한다. 부곡리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재배했는데, ‘머드레



사료용 옥수수

라 해서 옥수수를 심은 후에 이랑 사이에 콩, 팥을 심었다. 밭을 갈 때는 소를 가지고 헛골을 양쪽으로 갈아서 김매기를 했는데, 이를 ‘후치질’이라 한다. 과거에는 거름이 없어서 감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았고, 논농사 또한 논이 많아도 수확이 많지 않았다. 비료가 나온 뒤에는 어느 농사나 잘 됐다. 부곡리가 영월군에 속했을 때 수주면사무소에서 비료를 나눠주면 지게로 지고 와서 집마다 뒷밭으로 나뒀다.

옥수수는 예전에 주식이었으나 요즘은 간식거리로 찰옥수수와 메옥수수를 조금 심는데, 메옥수수인 황옥은 울챙이묵을 해먹으려고 심는다. 소를 많이 키우는 집에서는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료용 옥수수를 심는다.



수수밭

### ▷ 수수

예전에는 수수를 많이 심었으나 한 동안 예전만큼 심지 않았다. 그대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자투리땅에 집에서 먹을 것만 조금 심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웰빙 바람이 불어서 우리 잡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 점차 늘려 심고 있다. 그런데 수수가 여물 때면 새가 날아와 쪼아먹는 까닭에 수확할 때면 그 양이 많지 않다. 이에 수수가 여물 때면 땅을 하나씩 씌워둔다.



수수 망 씌우기

### ▷ 고추

예전부터 고추는 심었으나 소득이 높지 않아 많이 가정에서 먹을 것만 재배했다. 그러다가 비닐이 나오고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파리고추, 물고추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일 따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고추를 따기만 하면 안홍농협에 가져다주든지, 농협 수집 차

가 직접 와서 가지고가서 판매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판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날마다 달라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될 때면 인건비는커녕 유류비, 상자 값이 안 될 때도 있어 밭에다 그냥 버리는 일도 많다.



파리고추 따기



고추말리기

### ▷ 토마토

차인표 씨는 토마토 세 동을 농사짓는데, 한 동에 팬을 두 개 달았다. 7월 말이나 8월 초면 토마토가 출하를 시작하는데, 오후에 따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하한다. 오전에 따면 토마토 상태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파프리카 하던 분들이 요즘 토마토로 작물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소포장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따르자면 그 공정에 따른 설비 및 포장 등의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약간 붉은 색을 띤 토마토를 하나씩 따서 통에 넣기 전에 꼭지를 짧게 자른다. 토마토 판매는 안홍농협에 가져다주면 그네들이 팔아서 경비를 제하고 통장에 입금시킨다. 더울 때는 매일 따지만, 9월 말 이후 시원한 바람이 불면 이틀에 한 번씩 따다.

레일을 만들어 토마토를 심고 다니는 것을 '운반구'라 하는데, 이 운반구에 심는 토마토 무게가 상당하다. 그래서 한 하우스에 여섯 줄 이상을 심기 어렵다. 운반구를 두 줄에 하나씩 끌고 다녀야 하는데, 지지대가 약하면 하우스 틀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토마토 농사를 20여년 했다. 아침에는 이슬이 있어서 따기 불편하다. 이슬은 내려와서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와 이슬이 맺힌다. 논에 있는 벼도 아침 6시 경이 되면 물이 벼를 타고 올라온다.

○○○ 씨는 비닐하우스 10동(1동에 150평)에 양배추,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 양배추를 수확 후 토마토를 심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다. 품값으로 숙식 제공을 하고 일당 남자는 45,000원~50,000원, 여자는 35,000원씩을 준다. 논농사는



토마토 키우기



토마토 수확

수익이 그리 많지 않지만 가격변동이 거의 없어 꾸준하고, 발농사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시세가 들쭉날쭉하여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좋아 사람들은 선호한다. 마을에서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만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쌀만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남자는 한 달에 120만원, 여자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준다. 지역민들에게 품을 살 경우에는 모내기 때 기준으로 남자 100,000원, 여자 60,000원이다. 농사를 지어 소득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품삯을 주고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국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다. 요즘 토마토 1박스(10kg) 특상품을 2~3만원 받고 있는데, 하루 13박스 정도 따서 10월 초까지 수확할 수 있다.

### ▷포도

박상득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몇 년 전에 귀농하였다. 30여 년 전에 부모님이 먼저 끝은치에 오셨다. 이제는 부모님도 연로하시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귀농을 결정했다. 귀농 다음 해인 2012년부터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황성군에서 씨가 없는 3배체 포도를 명품농산물로 육성하면서 포도 농사 시작했다. 3배체 포도는 황성군 농업기술센터와 강원대가 2009년에 개발한 품종으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는데 황성군 이외 지역에서는 재배하지 못한다. 현재 황성군 28개 농가에서 3배체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곡2리에서는 4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1동(100평) 당 25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을 지원해줬다.



포도 수확

2012년에 300평을 했고, 2013년에 300평을 해서 총 600평을 하고 있다. 1000평까지 늘릴 계획이다. 처음에 묘목을 무료로 지원 받는데 2년까지 나무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이후에는 관리가 쉽다. 겨울에는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보온재로 싸준다. 보온재도 비용의 반을 보조 받는다. 초기 비용이 들고 최소한 3년 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 ▷들깨

김상태 씨는 2015년 7월에 1,100평 밭에다 들깨를 심었다. 모판에 들깨 모를 심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심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모판의 갯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으면 다른 사람은 손으로 땅을 살짝 판 후 그 자리에 깨의 아래 부분을 놓고 주위 흙을 모아 살짝 눌러주면 된다. 작년에는 팥을 심었으나 가격이 낮아 올해 들깨를 심었다. 참깨가 아닌 들깨를 심는 까닭은 수확해보면 참깨가 소출이 적기 때문이다. 버덩에는 수확이 같다고 하는데 이곳은 참깨가 적게 생산된다. 예전부터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많이 먹었다. 들깨는 말복 때까지 심고, 참깨는 들깨보다 좀 더 일찍 심는다. 포트를 안 하면 직파해서 모종을 해 옮겨 심었다. 팥은 하지 지난 후 10일 안에 심는다.



들깨 모종



들깨 밭

### ▷ 농우

봄이 되면 소를 데리고 보냄을 하는데, 보냄은 춘분 때 농우가 헛밭을 갈아 보게 하는 것으로 소에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다. 부곡리에서는 호리로 쟁기질을 한다. 소가 논, 밭도 갈아야 하지만 새끼를 낳으면 그것이 살림 밑천이 되는 것이다. 나이 먹은 소는 ‘둔소가 된다’고 한다. 새로 키우는 소를 길들여야 할 때는 목에 나무토막을 걸고 끌게 한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대로 길을 들이지 못한 호리는 앞에서 고삐를 잡고 끌어야 해서 아버지가 끌고 아들이 쟁기를 뺐다고 한다. 쟁기질을 하다가 코너에서 소에게 “돌아서!”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앞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세요!” 하면서 했다고 한다. 나중에 소가 길들여져서 아들이 혼자 쟁기질을 하는데 “돌아서!”라고 말을 하면 돌아서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세요!” 하면 돌아섰다고 한다.



소먹이 주기

### 제3절 화전, 가축, 토봉, 삼굿, 숯가마, 사냥, 정미소

#### ▷ 화전

‘산 쪽으로 낙엽송이 자란 곳은 모두 화전하던 곳이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부곡리 여러 골짜기에서도 화전이 성했는데, 1970년대 화전정리 때 화전민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이주를 했고, 곧은치 너머인 원주 행구동으로도 많이 이주했다.

화전을 할 때 봄에 감자를 가장 먼저 심는다. 팔은 완두콩을 만 후에 심는데, 그때가 하지 열흘 전이다. 들깨와 팔은 값이 좋아서 화전밭에 많이 심었다.

화전밭은 편하고 큰 돌이 없고, 거름기가 있고 나무도 있는 땅이 좋다. 나무는 베기보다 위의 가지들을 모두 치면 죽는다. 화전 할 때 불이 나지 않도록 ‘방화선’을 만드는데, 방화선은 가랑잎을 안으로 긁어모으는 일이다. 나무가 많이 탄 곳은 거름이 좋아 배추를 심으면 잘 된다. 화전을 일구고 먼저 심는 것은 조이고, 그 다음에는 팔이나 콩을 많이 심었다. 그러다가 곡식이 안 되면 버리고 다른 곳에 또 화전을 만든다.

#### ▷ 소, 돼지

소는 소장수에게 부탁을 해서 원주 우시장에서 구입했고, 팔 때도 소장수에게 부탁했다. 소장수들은 수고비를 받고 구입, 판매를 중간에서 해주었다. 주로 암소를 구입했다. 예전에 정부에서 마을마다 종우(種牛)인 황소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종우를 맡아서 키우는데, 교배할 때는 종우 집에 콩 한말씩 준 다음에 씨를 받았다.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는 보통 소 7~8마리씩 키웠다.

마을에서 돼지는 그다지 키우지 않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먹일 게 없어서 그렇다. 소는 풀만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곡물을 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돼지를 키우면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돼지가 엄청 먹는데,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돼지에게까지 줄 것이 없었다. 하다못해 구정물이 있어도 소에게 줘야지 돼지에게 돌아갈 게 없었다. 돼지를 키워도 마을에서 여럿이 각출을 하여 나눠먹는 도로리를 해서 먹었다.

주윤철 씨는 예전에 돼지를 키우려고 원주에 가서 새끼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지계에 지고 곧은치를 넘어왔는데, 그날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 도착하니 돼지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 ▷ 낙농

김상돈 씨는 젖소를 75두, 김상열 씨는 50두를 키우고 있다. 낙농진흥회에서 우유를 가져가는데 평균 리터당 1,120원이다. 김상돈 씨는 1982년에 축산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2마리로 시작해서 수를 늘렸다. 당시 젖소 1마리에 250~300만원이었다.(당시 쌀 1평에 300원, 논 1평에 1,000원이었다.) 예전에는 젖소 10마리의 젖을 짜면 먹고 살만했으나 지금은 40마리의 젖을 짜도 먹고 살기 힘들다. 사료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키워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젖소는 온도에 민감해서 30℃가 넘으면 생산되는 우유의 양이 준다. 25℃ 정도 돼야 우유의 양이 늘어난다. 젖소는 평균적으로 3~4년까지 젖을 짤 수 있다. 김상돈 씨는 12년까지 짤 적도 있다. 키우는 동안에 여러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보다 젖을 짤 수 있는 기간이 줄었다. 과거에는 사료를 적게 먹이고 방목했기에 우유 생산량은 적어도 젖소가 건강하여 젖을 짤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 3~4년 동안 젖을 짤 젖소는 죽으면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료를 먹여서 살을 찌운 다음에 시장에 판다. 예전에는 질병에 걸린 소도 시장에 팔았는데 현재는 소마다 바코드가 있어서 생산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젖소

## ▷ 토봉

양봉이 토봉보다 몸이 더 크고 힘도 세다. 벌통 구멍이 크면 왕탱이(말벌)가 덤벼들어 안 좋다. 하지만 벌이 들어가는 구멍에는 웬만하면 왕탱이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구멍을 가능한 작게 한다. 그런데 왕탱이는 봄에 잘 들어가지 않고 주로 가을에 들어간다. 왕탱이가 벌통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벌통 입구에 있다가 벌을 물어 머리를 자른 다음 몸통만 물고 간다. 왕탱이는 벌통 입구에서 왕왕거리고 날아다니고 꿀을 모아온 벌들이 몸에 꿀을 잔뜩 담았기에 활동이 더디다. 이때 왕탱이는 꿀벌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 왕탱이가 들면 꿀벌의 숫자가 줄어드니 벌이 잘 되지 않는다.

벌을 잘 키우려면 산 밑 외딴 곳이 좋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 좋다.



벌통



벌통 청구멍

빈 통을 갖다 놓는데, 통이 좋으면 벌이 잘 든다. 늘 꿀을 뜨던 통에 벌이 잘 든다. 생통에는 벌이 안 든다. 꿀을 많이 떠 개가 묻어 있는 벌통을 바위가 있어 비도 안 맞고, 양지 바른 곳에 두면 벌이 잘 든다. 벌통은 피나무가 좋은데, 무르고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물고 단단한 나무는 벌이 싫어한다. 소나무도 괜찮지만 벌이 들어 몇 해 지나면 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그러면 벌이 잘 들지 않는다. 하지만 피나무는 안에 개가 차 있어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벌통이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는데, 동그랗게 생긴 통이 좋다. 네모 통은 개가 빠져서 뻘뻘해진다. 그래 개가 묻었다가도 금방 미끄러져 떨어져서 벌이 잘 들지 않는다. 그래서 개가 빠질까봐 아래에 싸리가지로 두 개 정도 받치는 것이다. 그렇게 싸리가지로 받치는 걸 ‘칭다리’라 한다.

김상태 씨는 어렸을 때부터 벌을 했는데, 많이 한 해는 50되 정도까지도 뒀다. 되로다 50되이다. 벌통 크기는 약 50센티미터 정도 길이로 한다.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아 아랫부분이 썩으면 잘라내고 있는데, 이때 잇은 부분은 황토로 발라준다. 그리고 벌이 잘 될 때는 새 통으로 이어주어야 한다. 가을에는 분봉을 하지 않는다. 여름에 손주배가 나와서 분봉을 하지만 가을에는 분봉을 하지 않는다.

여왕벌을 장수라 하는데, 장수는 자기가 낳아서 새끼를 친다. 봄에는 개가 몽푹한데, 개 끝을 소젖같이 만들어 놓는다. 거기다 장수가 알을 낳으면 그게 또 장수가 된다. 개 끝에 장수가 알을 낳아두면 개가 흘러 그것을 감싸고 있다. 장수가 다 커서 나올 때쯤에는 덮여있는 아래 쪽이 열리면서 구멍이 만들어진다. 그래 그 구멍을 통해 장수가 나오면 분봉을 하게 된다.

(벌 키우던 사람이 상을 당하면 벌도 건을 쓴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그런 건 모르겠고, 벌을 놓던 사람이 죽으면 벌이 잘 안 된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벌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는 벌이 잘 되지 않았다. 군에 다녀올 동안에는 동생이 그 벌통으로 하고, 제대해서는 내가 그 벌통을 썼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벌이 들어가는 입구를 ‘칭구녕(칭구멍)’이라 한다. 벌통을 덮는 뚜껑을 ‘따까리’라고 하는데, 싸리가지를 대고 새끼줄로 방석을 만들어 소똥을 바른다. 짚으로 뚜껑을 만들면 꺼끌꺼끌하니까 소똥과 진흙을 섞어서 바르는 것이다. 뚜껑에 틈이 있으면 벌이 잘 모이지 않는다. 그리고 뚜껑의 싸리나무로 받친 부분에 꿀을 발라 놓으면 벌이 잘 든다. 벌통 따까리에 소똥을

바른 후 말린 다음에 덮는데, 덮은 후에 벌통과 벌 뚜껑이 틈이 없게 흙으로 발라준다. 벌이 분봉할 때 모이라고 따까리를 여러 곳에 걸어두는데, 벌통이 있는 주변 나뭇가지에 걸어두면 벌이 잘 모인다. 그래 따까리에 벌이 다 모이면 그것을 들고 빈 벌통 뚜껑으로 덮고 벌통과 따까리 사이의 틈을 흙으로 발라준다. 이렇게 벌을 모아 가지고 오는 것을 ‘벌몰이’라 한다.

빈 벌통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가끔가다 벌이 들었는지 살펴보는데, 재작년에는 벌이 든 통을 누가 하나 가져갔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벌통을 가져가더라도 낮에는 벌이 자꾸 나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져가기 어렵다. 그러나 밤에는 벌이 달려들지 않아 가져가기 편하다. 아마 그때도 누가 밤에 가져갔을 거다.(벌통 입구, 청구명 위에 ‘허수아비’라 하여 비닐을 작게 오려 바람에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는 벌에게 움직이는 물체에 미리 적응하도록 시켜서 사람이 다가와도 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건 모르겠고, 벌통 앞에 하얀 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놓고 얼마 지난 후에 사람이 접근하면 벌이 쏘지 않는다. 요즘 4월경에 벌이 새끼를 낳는데, 이때는 벌이 쏘지를 않는다. 분봉은 ‘장수가 개 박았나’를 보고 판단한다. 벌통을 쪼개서, 벌통에는 벌이 많이 들어 있으면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빨아 그 연기를 내뿜으면 벌들이 한쪽으로 피한다. 그래 자세히 보면 개 끝에 소젖 같은 모양이 달려 있는데, 그 노란 것이 끝이 검게 되면 분봉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 그걸 알아보느라 그렇게 벌통을 쪼개서 보는 것이다.

지금 벌을 키우면 수입이 괜찮다. 꿀 한 되에 35만 원인데, 늘 가져가는 사람은 잘 사간다. 벌이 들기는 드는데, 그 병이 들고 애벌레를 동벌개가 물어간다. 애벌레를 동벌개가 물고 가면 벌이 안 된다. 작년에도 두 통에 벌이 들었는데 동벌이 자꾸 애벌레를 물어가는 까닭에 한 통만 겨우 수확할 수 있었다.

앵두꽃이 필 무렵에 벌이 나온다. 2014년에는 부곡리의 벌들이 병이 들어 벌이 한 통도 없었다. 산에 있거나, 안흥, 강림에 있는 벌이 도망가다 드는 수가 있다. 차를 타고가다 보면 분봉을 하는 것들이 왕하고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차를 세워 흙을 뿌리면 나뭇가지에 벌이 모이는 수가 있다. 그럴 때 속옷이나 겹옷을 벗어 구멍 있는 곳을 묶은 후에 모여 있는 벌을 옷 속에 담아 집에 가져와 뒀다가 저녁 때 벌통 넣으면 키울 수 있다. 낮에 벌통에 두면 벌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한다. 벌을 넣을 때는 벌통을 비스듬히 숙인 후에 벌을 살살 몰아넣는다. 이때 벌통에 미리 꿀을 좀 발라놓으면 벌이 잘 들어간다. 다 들여놓은 후에 뚜

경을 덮고 흙을 발라준다.

별이 잘 드는 곳은 양지쪽인데, 응달이라도 주변에 꽃이 많고 돌이 있으면 괜찮은 자리이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바위 병창(벼랑)이 있는 데가 좋다. 벌통을 갖다놓고 별이 들지 않으면 그대로 나두고 겨울을 난다. 별이 든 것만 가져와 뜨고 다음 해 봄에 다시 그 자리에 둔다. 벌통을 갖다 놔두면 자주 가 봐야 한다. 벌통에 벌이 들면 관리하기 편하게 집에 두거나 집 가까이 둔다. 산에 벌통을 두고 벌이 모이게 하는 것을 '벌 받는다.' 고 한다. 벌 받는 게 재수가 있으면 잘 들고, 재수가 없으면 잘 안 든다.

### ▷ 삼굿

예전에는 옷감을 얻기 위해 삼을 많이 재배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삼을 심지 않았다. 삼은 음력 3월에 심어서 음력 7월이면 수확해서 삼굿을 하고 삼 삼기까지 했고, 겨울에는 베를 짰다. 현재 솔거리 공원의 공연장 부근이 예전 삼굿을 하던 터였다.

삼 많이 심었지. 그전에. 다 해가지고선 저 강변에 가서 구덩이 파고 거기다가 불을 때서 돌 멩이를 달궈가지고 아궁이 있는 데로 넣고 거기다가 다 묶어서 차곡차곡 들여쌓고는 돌을 달군 거를 거기다 이제 물을 부으면 뜨거운 김이 나가서 삼이 익어. 그 다음에 뱃기잖아.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삼. (삼굿?) 삼굿. (그럴 때 남자들이 다 하는 거죠? 여자들도 하나?) 아니요. 여자들이 뭘 해. (그 물 붓는 거를 뭘 어떻게 한 사람 붓고 두 사람이 붓고 붓는 게 뭐라고 하던데.) 여럿이 이제 가서 둘이나 하나나 구덩이를 판다. 묻었다가. 구덩이를 파서 구녕을 내놓으면 거기다 물을 붓고는 물이야~ 물이야~ 소리를 지르잖아. 그 돌 달군 데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부으면 뜨거운 김이 얼른 물을 갖다 쏟아 붓고는 삼태기나 이런 데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지키고 섰다가 물 붓고 물이야~ 물이야~ 하며 붓고는 얼른 거기를 막아버려. 막으면 그 삼 갖다 쌓아 놓은 게 익어. 그래가지고 뱃기잖아. (그게 같이 할 때는 마을에서 같이 하는 거죠?) 혼자 못하지. 그건 여럿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어르신, 여러 집이 같이 삼을 하는 거잖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놓는 순서가 다를 거 아니야. 어느 집 거부터 먼저 봐요?) 다 표시를 해서 놓기 때문에 각자 다 알아. 막 넣은 다음에 표시한 거 가지고 찾아내지. 꺼낼 때. 그냥 막 묻어요. 순서가 없어.

### ▷ 삼째기와 삼삼기

삶아서 꺼낸 다음엔 꺼풀이 잘 까져요. 벗겨서 잘 매달았다가 그걸 치마를 만들잖아. 겨울에 들어앉아서. 쪽쪽 찌겨가지고 이제 그걸 비벼서, 또 안 비비고 그냥 삼하는 거는 물레에다가 자서 비벼 가지고 타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돌겅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타래미를 해서 갖다 잿물이나 무슨 재를 물을 부어서 거기다 삶아. 껍데기 훌딱 벗기면 하얗지. 그래가지고 또 울귀서 말려가지고 낭구로다가 돌겅으로 실어내드라고. 그걸 또 물레에다가 자아가지고 이제 비벼가지고 헨 거는 안 자아도 되는데 그냥 안 비비고 그냥 찌겨서 한 게 있다고. 입삼이라고. 그건 그냥 물레에다가 자아야 돼. 이렇게. 비벼놔야 돼. 비벼가지고 또 크게 맨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타래미를 만드는 거야. 또 묶어서 잿물이나 머 재를 받쳐서 물을 해서 삶아가지고 개울에 가서 행구면 아주 하얘. 여름에 해. 7월 달에.

### ▷ 숯가마

김인환 씨는 둘째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 그래서 16살부터 숯을 구워 돈을 모았다. 무례골에서 숯을 구웠는데 당시에는 숯을 굽는 사람이 많았다. 원주에서 숯을 사러왔다. 국유림이나 부락림에 들어가 땅을 넓고 깊게 판 다음에 참나무를 채우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구멍을 뚫고 불을 땀다. 그리고 불이 잘 붙었으면 다시 구멍을 막는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숯이 되는데 그것이 검탄이다. 불이 붙어 있는 숯을 꺼내어 흙으로 덮고 위에 숯을 또 올리고 덮는다. 그렇게 해서 불이 꺼진 숯이 백탄이다. 백탄이 화력이 좋고 가격이 비싸다.

거기가 무례골인가? 거기를 무례골이라고 하지. 아마. 그때는 꽤 많았을 걸요. 그때는 숯을 구워 놓으면, 숯을 구워서 싸놓으면 원주에서 그걸 숯 사다 저다 파느라고 넘어 와요. 숯을 팔면 그 사람들은 숯을 사가지고 넘어가서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남겨 먹는 거지. 이제. (어르신은 판매는 안 하시고 거기서 숯만 구워주면?) 그렇죠. (어르신은 생산만 하신 거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숯을 나무 같은 걸로 묶잖아요. 무슨 짜리나무로 하시나? 뭘 어떻게 뒀로 하나요?) 숯 거치라고 이제 쳐요. 숯 거치라고 이제 맨들어가가지고 새를 베다가. 왜 새라는 거 있잖아요. (새초?) 그렇죠. 새초[역새]. 새를 비어다가서는 이거를 요만하게 시리 자리를 같이 맨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럼 이제 묶으면 이만 하죠. 거기다 숯을 넣

어가지고 이제 기계 새끼를 갖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파서 묶는 사람도 있고 묶어서 싸놓으면 이제 원주 사람들이 와서 사가요. (무게로 하나요?) 달아야죠. 그게 6관인가 그래. (1관이 4키로 인가요? 고구마 1관하는 거랑 똑같나?) 1관은 다 같죠. 그거 1포가 6관 돼요. 그걸 1포라고 그래. (보통 한번 구우시면 몇 관 정도 하시나요?) 그게 이제 숯가마가 크게 박으면 많이 나오고 조금 작게 박으면 적게 나오고 그래요. 그건 대중을 못하지요. (죄송한데 숯가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숯가마를 이제 땅을 이제 그럼 방 같이 된다고 봐야 되네. 땅을 파면. 요기서 요정도 되죠. 숯가마가. 땅을 파고 그래고 이제 땅을 파면 전체가 다 뺑 돌려 다 땅구덩이가 되는 게 아니고 더러 빈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는 흙을 이겨서 쌓으면서 돌을 쌓아 올려. 그 빈 데는. 그래가지고 동그랴게 올라오죠. 그러면 낭구를 이제 이렇게 동그랴게 했다면 여기서부터 뺑 돌려 세워요. 그러면 최고 긴 거를 맨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게 시리 낭구를 세워요. 그래고서는 거기다 낭구를 이렇게 도끼로다가 재재하게 쪼개가지고 많이 쪼개 놓으면 요렇게 빈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뺏드롬하게 채워요. 이제. 매끈하게 되면 이제 샷샷 우산 같이 생긴 거. 그거 같이 몽긋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엄청 높게 시리 흙을 뺑뺑 돌려 부어요. 부어가지고는 이 낭구 떡메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다져요. 뺑뺑 돌려. 다 다지면 숯가마가 밤같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를 처음에는 이 떡메 같은 걸 만들어서 낭구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까지 막 닿도록 두들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흙이 아주 질척하게 이 바짝 마른 흙이 자꾸 두드리면 질척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두드리가지고 뺏드롬하게 되면 긴 작대기로 두들겨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두들겨요. 그런 다음에 불을 때요. 긴 돌맹이를 주워다가 이제 불을 때요. 불을 때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섰는데 불을 자꾸 때면 꼭대기가 이렇게 내려 타요. 한 반 타면 불이 벌겍게 이만큼씩 참나무를 세우기 꼭대기가 이렇게 타요. 이 낭구를 세웠는데 이제 요 밑으로 가뜩 세웠는데 여기다가 이런 발 하나만 들어갈 만하게 요런 구멍을 해놔요. 내놓고선 싹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불을 자꾸 때놓으면 이제 요리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선 내리 타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꼭대기부터 내리 타면 이제 밑구멍까지 다 타면 이 굴뚝에 연기 나가는게 이 밑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위로만 보인다고. 그리고 이제 해보면 이제는 구멍을 막아야 겠구나 그러면 이제 숯가마 돌아가며 드문 드문 구멍을 내놴어요. 그럼 넓직한 돌로 구멍을 막고 요것도 막아버리고. 그래 이제 며칠 있으면 불이 꺼졌겠구나 그러면 이제 열어요. 열면 나무 막 이런 거 가뜩 세운 게 숯 봤어

요? 그런 게 가뜩 서 있지요. 그걸 꺼내서 팔아먹는 거 아니야. (보통 며칠 정도 하세요?) 한 일주일 걸려서 꺼내게 됐어요. (나무는 어디에서 해 오시는 거예요?) 나무는 이제 국유림이든가 부락림에서 여기 잔뜩 쓴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낭구 많은 데 가서 숯가마를 막잡아요.

### ▷ 사냥

김상태 씨는 멧돼지를 많이 잡았다. 옹누(올무)로 많이 잡았는데, 사냥은 가을과 겨울에 주로 했다. 가을이면 돼지가 강냉이 먹으러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때 주로 옹누(올무)를 놔서 잡는다. 올무를 놓는 끈은 주로 철사로 했다. 그 전에는 쫓기(창애)로도 많이 잡았다.

(멧돼지는 다니는 길로만 다니나요?) 주로 다니던 길로 많이 땡겨.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옹누. 그 눈길에 땡기던 대로만 땡기거든, 그놈이. 여럿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같이 가더라도 제가꿈 놓지. (아니, 창으로 잡지 않으셨어요?) 창으로는 몰아가지고 잡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한 질오면, 눈이 한 질 왔거든. 한 질 오면 돼지가 눈 속으로 나가지 못 해. (눈이 오면 몰아서?) 그렇지 눈이 오면 몰아서 찌르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하는 사람을 선창이라고 그러나요?) 선창. (그 사람에게 뭇이 더 많나요?) 그 사람은 대가리를, 머털 하나 주거든. 머리를 이 짚새기를 신었으니까는 짚신으로 이 머리를 대고 딱 자른단 말이야. (어떻게요?) 머리를 짜른단 말이야, 모가지를. 신은 신발 하나로 재가지구, 그러니까 토시목까지 잘리는 거야. (아, 돼지주둥이에서부터 짚신을 재면. 그런데 하필이면 발로 재지?) (그러면 발 큰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짚신을 신었으니까 발이 크지. (양말이 젖으면 발이 시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머리카락, 꼬치(고추) 이런 걸 넣지. (아니 고추를 왜 넣어요?) 고추를 쪼개서 씨를 빼서 넣으면 발이 얼지 않거든, 열이 나가지고. (아, 빨간 고추를?) 그럼. 그러면 발이 얼지 않아. (그럼 양말에?) 양말 신기 전에 넣어야지. 옛날에는 이런 광목을 꿰어서 감발을 했지. 그래 첫 번을 감고 거기에 고추를 넣고 감지, 앞만 감지. 발이 끝이 많이 얼으니깐. (머리카락은 미끈미끈 할 텐데?) 머리카락은 할머니들 달비를 사냥꾼들이 사가지구 발에다 감구 감발을 감았지. 발이 어니깐. 그러구 그 감발을 다 감구서는 짚신을 신으니깐, 감발하고 물을 확 끼얹어. 그냥 감발을 하면 얼거든. 그러면 발이 안 시렵지. (감발을 하면 바로 물을 뿌린다고요?) 그럼. 추운 날이니까 입에 물을 넣고 감발에 확 뿌린다고. 그러면 흠뻑 젖

어 길이 딱딱하게 얼지. (아 바깥이. 안이 어는 게 아니라?) 그럼. 감발이니까 가에가 딱딱 얼지. 그러면 짚신을 신고 가는 거지. 창날은 대장간에서 버들잎처럼 만들어. 자루는 참나무나 물푸레로 하는데, 한 발 반 정도를 잘라서 만들어.

돼지가 도망가다가 길이 막히면 멈추는데,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약 10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자리를 잡고 돼지를 불러내야 한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등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데, 돼지가 공격할 때는 눈을 확 뿌리고 오는 까닭에 순간적으로 돼지가 잘 안 보인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목을 찢러야 하는데, 선창잡이가 찢르면 채창잡이는 반대편을 찢르고, 삼창잡이가 확실하게 더 찢른다. 돼지를 운반할 때는 크지 않으면 질빵으로 묶어서 짊어지고 옮긴다. 질빵은 삼으로 만든 노끈으로 한 것인데 무척 질기다.

돼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울(쓸개)이다. 지금도 백 근짜리 돼지의 울은 100만원, 200근짜리는 200만원이다. 큰 놈은 산삼도 캐서 먹었기 때문에 비싸다. 그래 큰 놈이 약이 된다. 200근짜리는 3년 정도 자란 것인데, 3년 정도 되면 움이 나온다.

이빨 이만 한 게 양쪽으로 아래에서 나와. (그거 수놈만 나오는 거죠?) 암놈은 안 나와. 그런데 암놈도 오래 묵으니까 이만큼 나왔드라구. 한 300백 근 넘어가는 거 잡으면, 큰 놈은 밑에 움이 나왔드라구. (그거 잡으면 마을 잔치 하세요?) 잡으면 노나 먹고 그랬지. 그거 혼자 다 먹지 못하니까. 팔아먹기도 하고. 가을에 잡으면 산돼지도 맛있구, 겨울에 한 선달쯤 잡으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패래가지고 맛이 질겨. 그래 가을에 잡으면 맛있어. 첫 눈 올 때 잡으면 맛있어.

300근 이상 나가는 놈은 창으로 잘 못 찢른다. 잘못하면 돼지에게 사람이 갱긴다(다친다). 창을 미쳐 못 찢르면 죽는다. 창꾼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 그러면 돼지가 눈을 확 뿌리면서 들어온다. 그래 선창자를 안 하려고 한다. '말이는 선창을 안 한다 그랬다' 위협해서. 노루와 고라니의 구분은 궁뎅이를 보고 아는데, 궁뎅이에 하얀 것이 있으면 노루고 없으면 고라니다. 노루가 몸도 더 크고, 우는 소리도 더 크다. 고라니는 노린내가 나서 안 먹고, 노루는 노린내가 안 난다. 살아있는 걸 잡으면 회를 먹고, 죽은 거면 황덕을 해놓고 구워먹었다.

돼지는 멀리 300리 이상 간다. 멀리 가서 잡으면 울만 가져오고 고기는 그곳에서 판다. 하루 정도 사냥을 하면 엿을 가져가는데, 쌀가루를 입에 넣고 엿을 먹으면 허기지는 게 없다. 눈 많이 오면, '돼지몰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다. 아무 때나 가지 않고, 갈 때는 보통 4~5명이 가는데, 눈이 쌓이면 설피를 신고 가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맨 앞에 서는 걸 교대로 한다. 그래야 먼 길을 갈 수 있다. 돼지는 양지 쪽 바람이 잘 안 불고 나무로 가려진 곳에 있다. 돼지 몰이를 가면 가는 곳이 보통 정해져 있다. 돼지 몰이를 하다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먼저 몰이를 시작한 것을 알리면 그들은 다른 데로 간다. 돼지를 잡아서 분배를 할 때 선창자가 돼지머리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누는데, 예전에는 양이 많은 뒷다리를 최고로 쳤는데, 이후 갈비를 선호하게 되었다. 재창잡이는 뒷다리 하나에 앞 토시목을 붙여서 준다. 그리고고는 다 나눠주는데, 보통 선창잡이와 재창잡이만 선택해서 주고 나머지는 골고루 나눈다.

사냥을 하루에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몰이가 길어지면 며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서로 바쁜 일도 생기고 힘들기도 하면 다른 사람이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돼지를 잡게 되면 잡을 당시의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나눈다. 돼지 사냥을 갈 때는 동작 빠른 사람을 데려가지, 힘이 없거나 동작이 느린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돼지 사냥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한다. 선창자가 돼지를 찌르면 돼지는 팔짝 위로 뛰는데, 이때 선창자는 힘껏 찌른 다음 돼지를 뛰어넘게 된다. 작은 놈은 한번 찌르면 넘어지지만, 큰 놈은 한 번에 넘어지지 않고 날뛰면서 선창자를 향해 덤벼든다. 이때 반대쪽에서 재창잡이가 바로 들어와서 찢러야 한다.

가마골에 있던 후배는 자신이 선창을 하게다고 나섰는데, 돼지를 찌르다가 헛찌르고 창을 놓쳤다. 그러자 돼지가 선창자의 손을 물었는데, 마침 선창자가 장갑을 두 켄레 두껍게 끼고 있는 까닭에 장갑만 벗겨지고 손은 괜찮았다. 돼지는 흥분해서 장갑을 물고 마치 사람 손을 문 것처럼 난리를 치자 이때 재창잡이가 잽싸게 달려와 목을 제대로 찢러 잡았다. 잘못하면 그 후배가 크게 다칠 뻔 했다. 그때 쪼그만 돼지니까 괜찮았지 큰 거였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돼지에 쫓겨 5시간을 나무 위에서 있던 일이 있었다. 큰아들이 지금 55세인데, 당시 중학교를 마치고 집에 있을 때였다. 눈이 많이 와서 옹누를 났는데, 산관을 다니다 돼지가 많이 다는 곳에다 났는데, 옹누가 없어졌다. 이에 돼지가 옹누논 나무를 끌고 가 뻔뻔하게 된 길을 따라

가니 이 옹누가 나무 등의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래 돼지와 마주쳤는데 커다란 것이 소만 했다. 아들에게 '내가 참나무를 깎아 창에 맞춰 갈 테니까 너는 위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 돼지가 쫓아 내려왔다. 꽤 먼 거리였는데 금방 쫓아왔다. 이 옹누를 논 나무가 큰 나무에 제대로 걸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계속 달려왔다. 이에 급해서 근처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그리 굵지 않은 낙엽송이었다. 아들은 산등선에 있었고, 창으로 돼지를 찌르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옹누를 짊어지고 갔는데, 옹누를 풀어 나무에 매고 낙엽송가지를 잘라 그것을 자리를 만들어 깔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혼자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가마골에 있는 선돌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래 아들이 돌아서 가마골을 가니 마침 가마골 안막에, 옛날 화전 해먹을 때, 누가 이사를 한다고 이삿짐 지러갔다고 해서 아들이 그곳에 가니 이삿짐 차가 갈골로 내려갔다고 해서 갈골로 가니 술 한 잔씩하고 갔다고 해서 다시 가마골에 가서 선돌이 동생을 데려왔다. 그때가 설달인데 거진 해가 다 넘어갔다. 올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오는데 대답을 했다. 그래 산에서 내려와야지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 옹누가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으니 한 발 정도 되는 막대기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래 그 친구가 산위에서 내려오는데, 나도 내려가려고 하니 이 돼지가 밑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런 돼지를 나무 위에서 창으로 돼지 머리를 찢었는데 이 돼지가 죽은 듯이 한 20분을 가만히 있었다. 그래 죽은 가하고 창을 뽑으니 피가 위로 솟그치더니 물러나 덤벼들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산위에서 내려오니 이 돼지가 그곳으로 뛰어갔다. 이에 그 친구도 당황해서 낙엽송에 올라가니 낙엽송이 가늘어 휘어졌다. 이에 나무에서 내려가려고 묶었던 끈을 풀고 내려오려고 하니 돼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더니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찢었던 자리를 다시 찌르니 가만히 있었고, 그때 산에서 내려와 그 친구가 찢었으나 넘어가지 않았다. 이에 재창을 하라고 해 다시 찌르니 돼지만 그만 쓰러졌다. 이에 나는 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밤에 대여섯이 마중을 왔었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 했다. 그때 경험 없어서 그런데, 나무를 가달진 것에 옹누를 묶어나야 하는데, 쪽 뺨은 나무 가운데 묶어 놓으니 어디 나무에 걸리지 않은 까닭에 돼지가 그것을 사방 끌고 다녔다. 돼지는 늘 오는 게 아니라 다니던 길을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한다.

### ▷부곡정미소

김인환 씨는 숯 굽기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였는데, 제대 후 27살부터는 부곡정미소를 운영했다. 무례에 살다가 정미소를 사서 솔거리로 내려왔다. 원래는 물방앗간이었으나 현재 정미소 모양으로 개조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익숙해질 때까지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일을 했는데, 3명이 같이 일해서 소득을 3분의 1로 나누었다. 그렇게 1년 정도 하면서 기술을 익혔다. 부곡1리인 갈골에도 정미소가 있어 사람들이 계속 그 정미소를 이용하는 까닭에 그 정미소를 인수했다. 하지만 두 곳을 같이 운영할 수 없어서 얼마 후 갈골 정미소를 없애버렸다.

원래는 수차로 벼를 찼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적었고 일 또한 어려웠다. 이후 자동차 엔진으로 바꾼 뒤부터 찼는 게 편해졌다. 벼 1가마를 찼을 때, 방앗간에서 가져다 찼으면 쌀로 8kg1말을 받고, 직접 갖고 오면 7kg을 받는다. 항상 쌀로 받았기 때문에 도종료는 예전과 차이가 없다.

20대 후반에 정미소에서 피대에 몸이 말려들어가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장기를 다



부곡정미소

치지 않아 무사할 수 있었다. 사고가 났을 때 마을 분들이 들것을 만들어 들고 곧은치 고개를 넘어 원주기독병원까지 데려가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미소가 잘 되지 않아 주변에서는 곧 문을 닫을 거라 했지만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 제4절 생산 및 생업도구

### ▷연장

논밭을 갈 때 쓰는 쟁기는 ‘연장’ 이라 부른다. 극쟁이는 밭을 갈고 논도 뒤집는 것이다. 예전에는 개인이 나무를 깎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쇠로 만든 연장을 구입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연장1



연장2



멍에



씨레

### ▷멍에

소목에 얹는 멩에는 단단하지 않은 소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다.



코뚜레



구유

### ▷써레

써레는 흔히 '쓰레'라 발음하는데, 논을 삶을 때 쓴다. 부곡리에서는 발이 6개짜리를 써레를 이용한다. 써레는 다릅나무로 만든다.

### ▷번지

논을 삶은 후 편편하게 하는 번지는 소나무로 만든다.

### ▷코뚜레

코뚜레는 주로 노가지나무로 직접 만들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철물점에서 파는 쇠로 만든 코뚜레를 쓰기도 했다.

### ▷구유

구유는 흔히 구유이라고 하는데, 소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여러 마리를 키우게 되면서 시멘트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통을 잘라서 썼다.

### ▷도리깨

도리깨의 회초리인 도리깨아들은 물푸레나무로 만들고, 손잡이인 도리깨장치는 아무 나무든 상관없으나 주로 잣나무로 만든다.

### ▷ 지게

지게는 소나무로 만들고, 지게 작대기는 어떤 나무든 크게 상관없다.



도리깨

### ▷ 발구

겨울에 눈길에서 소가 짐을 나르는데 사용하는 썰매와 비슷한 연장이다. 주로 겨울철에 나무를 해서 실어올 때 사용했다. 과거에는 화전 때문에 나무가 귀했다. 그래서 곧은치채 너머로 가서 나무를 해왔다.



지게



번지

### ▷ 고무래

고무래는 참나무로 만든다. 참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지만, 소나무 등은 송진 등이 있어 잘 탄다. 고무래손잡이는 물푸레나무로 만든다.

### ▷ 이앙기

예전에야 손으로 직접 모를 심었으나 30여 년 전부터 이앙기로 심는다. 이앙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이 서서 운전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앙기에 직접 앉아서 운전한다. 그리고 손모를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마지기 정도 심었는데, 요즘에 나온 이앙기로는 하루에 15마지기 논에 모를 심을 수 있다.

### ▷ 갈퀴

봄에 퇴비를 만들기 위해 갈을 꺾어다가 논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덧풀을 또 뿌린다. 그 후



고무래



이양기

씨레질을 한 다음에 모내기를 한다. 마을 이장이 갈 꺾는 날을 받으면 식구가 모두 나가 갈을 꺾었다. 이를 ‘영 본다’ 고 했다.

### ▷ 농목

농사철이 바쁘면 나무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할 때 나무를 하는데, 이를 농목이라 한다. 1월에 혼자 또는 품앗이로 나무를 하는데, 보통 보름 정도 한다.

### ▷ 나무갈이

2월 초하루에 나무를 쟁고 덮어서 썩지 않게 한다. 봄~가을 동안 나무를 사용하고 가을에 다시 나무를 해 겨울을 난다.

### ▷ 보냄

춘분 때 농우를 가지고 처음 밭을 갈아보는 것을 보냄이라 한다. 보냄은 실제로 밭을 가는 것은 아니고 잠시 가는 시늉을 하면서 소에게 밭갈이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시운전이다. 부곡리에서는 호리로 했는데, 오래 전에는 한때 겨리를 하기도 했다.

### ▷ 소 길들이기

송아지를 키우면서 다 크기 전에 멩예를 씌워 길들이기를 한다. 보통 보냄 하기 전에 길들이기를 하는데, 농우를 바꿀 때나 새로 키울 때 한다.

## 제5절 시장

김상태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일제강점기 때 소금 받으러 문막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마을에서는 영월군 수주면에 속했던 1960년대까지는 소금을 받으러 주천장에 다녔다. 이후 곧은치를 넘어 원주 행구동을 지나 원주장으로 다녔다. 원주장까지는 고든치마을에서 30리 거리로 2~3시간 걸린다. 장에 갈 때는 주로 콩, 팥 등을 지고 가서 판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왔다. 거리가 멀었기에 놀이삼아 장에 가는 일은 없었고, 집안에 일이 있을 경우어나 명절 때 주로 다녔다. 제사나 혼례 때는 국수, 과일 등을 사왔는데, 갈 때 콩, 팥 등을 5말 정도 지고 가서, 올 때는 국수를 6관(24kg) 지고 온 적이 있다.

부곡리 분들뿐만 아니라 월현리, 강림리 사람들도 부곡리까지 걸어와서 곧은치를 넘어 원주로 장을 보러 다녔다. 월현, 강림마을 분들도 부곡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갈 때는 주로 콩, 팥, 쌀 등을 갖고 가서 판 다음에 올 때는 고기, 소금, 옷 등을 구입해서 왔다. 그러다가 강림에 4



강림장날 전경

일과 9일에 장이 서면서 한동안 강림장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강림장은 공식적으로 폐장되었고, 장날인 4일과 9일에 계절에 따라 과일장사 하는 분이 올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역민들은 대부분 안흥농협 강림지소 하나로 마트를 수시로 이용한다. 지금은 각 가정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끝은치재를 넘어 걸어서 원주장을 다니는 일은 없다. 2015년 3월부터 횡성군관내 버스요금이 단일요금제가 되어 부곡에서 횡성까지 4,090원 하던 버스비가 1,200원으로 내리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버스로 횡성장을 자주 이용한다.

### ▷나물 팔기

산채, 더덕 등을 원주에 나가서 팔았다. 전날 저녁에 원주에 가서 친지나 아는 사람 집에 머무른 다음 새벽시장에 나가 팔았다. 그것을 시내의 장사꾼들이 사다가 다시 판매했다.

김덕성 씨는 새벽 때 산더덕을 원주장에 내다 팔았다. 22살부터 원주장을 다녔는데 끝은치재를 넘어 가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 산더덕은 소매상한테 넘기고, 올 때는 소금 등 집에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왔다.

### ▷모곡 장수

원주의 '천일곡산' 에서 모곡장수들이 돈을 받아와 곡식을 사간 다음에 팔았다. 주로 쌀, 옥수수, 감자 등을 사가지고 갔다.



하나로마트

## ▷뱀잡기

예전에 더덕을 캐러 다닐 때 돈이 된다 해서 살모사를 잡아서 팔기도 했다. 당시 돈으로 3천 원이었다. 8월이라 뱀독이 올랐을 때인데도 뱀을 잡아서 오니 마을의 남자들이 무척 놀랐다.

살모사가 이만한 게 있어. 더덕을 캐러 갔는데, 이보다 원래 커. 그런데 그놈의 돈이 욕심이 나서 붙들러 오라고도 그걸 뜯어서 입을 대고 뜯는데 뱀이 얼마나 큰지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 탁 일로 뺏어. 그때 3천원이면 돈 하나요. 우리가마골 살 적에, 우리 둘째가 팔아 왔더라고. 그날 동네 부역을 했으니 8월 달이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지. 그거 죽을라고 혼자 붙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묶어 쥐고 집에 왔어요. 근데 산천이 전수 뱀이야. 뱀독이 나한테 와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해요. 뱀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 와서 남자들이 부역을 하다 들여다보고 기절을 하더라고. 그런 걸 어떻게 붙들었냐고, 아주 안 떨어져. 아주 독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곡괭이 더덕 캐는 곡괭이를 들고, 아, 그전에는 내가 억세 빠졌잖아. 시방은 이렇지만.



## 3장 의식주

제1절 의생활

제2절 식생활

제3절 주생활

제4절 상수도

# 제3장 의식주

## 제1절 의생활

예전 우리네 옷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듯이 부곡마을 사람들의 의복 또한 다른 지역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산촌인 부곡마을이 평야지역이나 도시지역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탓에 화려한 옷을 구입해 입지 못했다. 대부분 농사를 지어 손수 천을 만들어 옷을 해 입는 경우가 많았다.

### ▷ 배넛저고리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입는 옷이 배넛저고리인데, 할아버지가 입던 헌 옷을 가지고 만들었다. 한번 만들어 입으면 동생들에게도 대물림을 하는데, 그건 옷이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라고 물려 입는 것이다. 배넛저고리는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입혔다.

### ▷ 속옷

속옷은 천을 끊어다가 해 입었다. 지금 옷들도 몸빼와 같은 방식으로 나온 것이 많은데, 그 옷은 집에서 쉴 때나 나가서 일할 때 편하다. 어른은 고쟁이, 아이들은 고쟁이처럼 생긴 개구녕바지를 입었다. 고쟁이나 개구녕바지는 무명으로 짜서 해 입었다. 무명은 등치솜에서 실을 뽑아 천을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는 겨울에 내복을 입었는데, 자식들이 취업을 해서 첫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를 위해 빨간 색 내의를 사오곤 했다.

### ▷ 겨울옷

겨울옷은 무명 바지저고리를 할 때 두 겹 사이에 등치솜을 사다가 넣고 꿰매서 만들어 입었는데, 등치솜은 원주장에서 팔았다. 등치솜을 사다가 옷에도 넣고 이불도 만들고 그랬다.

## ▷ 명주옷

명주의 단점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얼룩이 지고, 미끄러워 솜과 함께 밀착이 되질 않는다. 그 래 명주로는 솜바지 저고리를 해 입지 않고 겹바지 저고리를 해 입는다. 그래서 명주는 봄가 을에 주로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고 겨울에는 무명에다 솜을 넣은 바지저고리를 입었다. 이후 무명 대신 광목으로 만들다가 이내 옥양목으로 솜바지저고리를 만들었다.

## ▷ 무명과 광목

무명은 실을 뽑아서 사람이 직접 틀로 짠 것이고, 광목은 기계로 뽑은 거다. 그러니까 짜는 천의 재질은 같은데, 짜는 방식만 다른 것이다. 옥양목은 광목보다 폭이 좁아서 옷을 만들기 어렵다.



다듬잇방망이



인두

## ▷ 일옷

예전에 일을 할 때 여성들은 몸빼(일복)가 아니면 고쟁이를 입고 곁에 흘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다. 밭을 맬 때도 그렇게 고쟁이에 흘치마를 둘렀다. 그래 조심하지 않으면 엉덩이가 보이기도 했다.

## ▷ 어린이 옷

1960년대에는 광목에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여 단치마를 해 입었다. 단치마는 아이들 때 입는 것으로 허리는 바지처럼 마이깁호키를 넣고 주름을 넣어 만든 치마이다. 지금의 여학생들 교복보다 더 넓고 길이도 무릎이 안 보일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입었다.

1970년대에는 뽀뿌린(포플린) 천을 떼다가 만들어 입히거나, 어른들이 입던 스웨터가 있으면 풀어서 아이들 양말, 장갑, 모자, 바지 등을 짜서 신기고, 씌우고 입혔다.

## ▷ 여자아이 명절 옷

1960년대에 설, 추석 때 명주로 색동저고리를 해 입었다. 옷고름, 목에는 깃동, 옷소매 끝에는 끝동을 달고 노랑 물 들여 노랑 저고리, 빨강 물 들여 빨간 치마를 주로 해 입었다. 머리가 길면 머리꼬리에다 리본을 달고 꾸몄다.

## ▷ 실

예전에는 실도 귀해서 다 만들어서 썼다. 물레로 실을 만들었는데, 무명은 무명실로, 명주는 명주실로, 삼베는 삼베실로 꿰맸다.

## ▷ 모자

맥고자는 보리로 만든 모자이고, 목고자는 나무로 만든 모자이다. 목고자는 황철나무, 미루나무 등을 얇게 켜서 만드는데, 목고자는 하얗고 맥고자는 누런빛이 난다. 목고자를 여름철에 농사지으면서 많이 쓰고 다녔다. 물론 가격차가 있지만, 맥고자는 좀 질긴 편이며 목고자는 약해서 오래 쓰지 못한다. 집에서 만들기보다 원주에도 공장이 있어서 주로 구입해서 썼다. 맥고자는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호밀짚이 좀 길어서 만들기 좋다.

### ▷ 짚신과 미투리

여성이 신는 신은 남자들이 만들어줬다. 주로 짚신이고, 고급스럽게 만든 건 삼 겹질로 만든 미투리다. 미투리는 삼베겹질로 만드는데, 좋은 것은 쓰지 않고 짧은 삼으로 만든다. 초래이라고, 삼베겹질을 바짝 말렸다가 겹질을 벗겨 잣물에 삶아 곁의 거친 겹질을 다 벗긴 후에 하얀 것으로 미투리를 삼는다. 미투리를 만들 때 날은 칩겹질로 만든다. 날은 칩겹질을 찢어서 부드럽게 한 후에 여섯 개를 만든다. 미투리는 날이 여섯 개 인데, 그래서 육날미투리라 하는 것이다. 짚신은 날이 네 개다. 미투리는 날이 여섯 개이므로 촘촘하다. 짚신은 막신이고, 미투리는 고급신이다. 짚신은 일이 험하면 이틀 정도면 떨어져 신지 못한다. 미투리는 외출할 때만 주로 신기 때문에 오래 신는다.

### ▷ 고무신

1960년대가 되면서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는데, 여자아이들은 꽃무늬 있는 하얀 코고무신을 신었다. 학교 다닐 때는 주로 검정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운동화를 많이 신었다.

### ▷ 세탁

비누가 귀한 시절에는 잣물로 세탁을 했다. 잣물은 메밀짚을 태워 재를 만들어 시루에 망사를 깔아 재를 담는다. 그리고는 가마솥 위에 시루를 얹어놓고 물을 가만히 부으면 노랗고 맑은 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물에다 아이 빨아 삶아서 다시 빨다. 그렇게 여러 번 맑은 물에 헹궈야 한다.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천에 잣물기가 남아 있어 천이 쉽게 상한다. 그러다가 양젓물이 나와 그것을 사다 썼다. 양젓물은 해방 후에 나왔고, 그 전에는 집에서 잣물을 내려서 썼다. 양젓물은 원주장에서 구입해 썼는데, 양젓물은 물이 아니라 덩어리다. 그걸 구입해 물에 담가두면 녹아서 미끈미끈해 진다. 양젓물은 독하다. 그래 그거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 양젓물은 보통 종이에 싸주는데, 주머니에 넣고 가져오다가 종이가 헤어져 주머니가 구멍이 나고 그랬다. 세면은 맹물로 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하면 때에 띠라 자기 오줌을 받았다가 물에 타서 머리를 감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등겨로 만든 검정비누를 장사꾼들이 부곡리에 팔러 다녔다.

▷ 옷관리

옷을 오래 보관할 때는 좀약 파는 걸 사다가 넣고, 여름 장마가 끝난 후에 햇볕에 말렸다.

▷ 베틀

6.25 전까지도 삼베, 미영(무명), 명주를 집에서 다 짰다. 삼베, 미영, 명주 짜는 틀은 같고, 바디만 다르다. 그래서 천의 종류에 따라 바디가 촘촘하거나 듬성하다. 일제 때는 명주를 못 짜게 해서 산속에 들어가 짰는데, 그 당시에는 누에고치를 팔게 하고 명주옷은 해 입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 몰래 숨어서 명주옷을 짰는데, 차정옥 씨는 어렸을 때 친정할머니가 그렇게 짜는 걸 봤다. 당시에는 저수지 위 부석골에서 살았다.



자세



바디와 북

## ▷ 염색

옥양목, 광목을 구입해 어른들 바지저고리를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예전에도 물감이 있었으나 광목은 물들여보지 않았다. 집에서 명주를 짜서 물을 들여 치마저고리 해 입고, 어른들이나 아이들 옷을 빨간 물, 파란 물을 들여 해 입었다. 물감은 파는 거 사다가 했다.

## ▷ 삼

예전 삼베길쌈하기 위해서는 삼굿을 하는데, 삼굿할 때는 삼을 눕혀서 찐다. 개인적으로 조금 할 때는 가마솥에 세워 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삼굿을 해서 찐다. 삼을 베어서 삼칼로 가지를 쳐서 찐다. 삼칼은 버드나무로 칼처럼 만드는데, 버드나무로 만드는 까닭은 가지가 쉽게 잘라지기 때문이다. 삼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베어서 똑같이 하기 위해 윗부분을 작두로 자른다. 그런 후에 긴 것을 삼칼로 가지를 쳐서 삼굿을 하고 찐다. 찐 다음에 삼 껍질을 벗겨놓으면 그것을 손질해서 여자는 겨울에 삼을 삼는다.

## 제2절 식생활

식생활은 지역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곧은치·솔거리 마을은 전형적인 산촌이다. 지금이야 부곡저수지의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만, 그전에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철이면 해마다 어려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봄이 늦고 겨울이 빨리 오는 산간 마을의 지형적 특징과 계곡의 차가운 물로 인하여 마지기당 벼 수확량 또한 전채 너머에 있는 우천면, 횡성읍 지역보다 적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예전에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 콩, 옥수수, 메밀 등 밭작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했다.

## ▷ 설날음식

설날에는 찰강냉이 시루떡, 차조떡, 메밀 만둣국, 순대를 먹고 제사상에는 메밀 부침개, 탕국(북어, 마늘, 파, 무, 두부), 산적(돼지, 소고기), 전병(속은 만두와 똑같음), 절편, 인절미, 전 등을 올린다. 과일 중 복숭아는 귀신이 싫어한다 해서 올리지 않는다.

### ▷ 찰강냉이 시루떡

찰강냉이 시루떡은 찰옥수수를 물에 불려서 디달방아로 뺏는다. 물기를 뺀 옥수수 가루를 팔고 물과 시루에 켜켜로 넣고 찐다. 이 떡은 뜨거울 때 먹으면 찰진데 식으면 뻣뻣하다.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 찰옥수수시루떡도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다.

### ▷ 옥수수 증편(기증)

찰옥수수와 메옥수수를 반반씩 해서 떡을 하면 맛있다. 방앗간에 가서 옥수수를 뺏아 껍질을 벗긴 다음 우려낸다. 그런 다음 멧돌에 갈아 체로 쳐서 가루를 만든다. 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쌀가루 반죽한 것과 같이 하얗다. 반죽한 것에 콩이나 팥을 넣고 찌서 먹는다.

### ▷ 메밀 만둣국

밀가루가 귀한 시절이라 집에서 농사지은 메밀로 만두를 만들었다. 찧기가 없어서 끈기가



떡메

약할 뿐만 아니라 건져 놓으면 뻗뻗하다. 국물에 넣어야 그나마 괜찮았다. 만두소는 주로 두부와 김치를 넣었다. 고기, 당면 등도 예전에는 귀했기 때문에 넣지 못했다.

#### ▷가래떡

쌀을 디딜방아로 찧은 다음 체로 걸러서 시루에 찐다. 그리고 그 떡을 떡메로 쳐서 손으로 주물러 길게 해서 가래떡을 빳었다.

#### ▷집안떡

예전에는 10월이나 정월에 집안의 터주에게 감사의 뜻으로 안택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하는 떡을 집안떡이라 한다. 시루에 팔시루떡, 백설기 등을 찌서 고사지낸 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요즘은 방앗간에 떡을 맞춰 집에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 ▷추석음식

추석에는 송편을 빳는데, 송편에는 밤, 콩, 팥을 소로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빳었다. 기증떡(술떡)과 순대도 만들었다. 제사상에는 비늘이 없는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

#### ▷정월 대보름

정월 열나흘날에는 오곡밥을 해먹고, 나물로는 취, 고사리, 도라지 등을 먹는다. 보름날 아침에는 찰밥을 먹고 귀밝이술을 마시고 부럼(밤, 콩)을 깨물어 먹는다.

#### ▷김장

예전에는 짠지라 했는데 지금은 김치라 한다. 김장은 입동 전에 하는데, 요즘 김장을 하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다. 오래두고 먹을 김치는 양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양념이 없어서 마늘과 소금이 전부였다. 고춧가루도 부족하여 백김치처럼 허영계 양념을 해서 배추와 무를 한 켠씩 차례로 놓고 마지막에 돌을 얹어 누른 후 향아리 뚜껑을 덮고 흠으로 모두 덮어놓으면 다음해 여름까지도 먹을 수 있다.

요즘은 양념이 다양해서 많이 넣기도 하지만, 주로 마늘, 파, 고춧가루를 기본으로 한다. 배추김치를 할 때 무김치도 함께 하며, 동치미는 김장 전에 담근다. 예전에는 김장을 한 후에 독

을 땅에 묻어서 보관했으나,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 김치광을 만들지 않는다. 김치를 담글 때 예전에는 젓갈을 넣지 않았으나 요즘에 와서는 새우젓갈, 멸치액젓 등을 넣는다.

예전에는 겨울에 특별히 먹을 반찬이 없으므로 김치를 두 접 이상을 담갔다. 김치는 고춧가루 조금하고 마늘, 파 등을 넣고 담갔는데, 고추 또한 귀해서 희아리고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는 붉은 고추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 김장은 김치광을 만들어 보관했으며, 김장은 보통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을 담갔다.

김치광을 지을 때는 서까래를 걸고서 위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 씌워놓고 김치광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김치광을 짓는 집은 없고 모두들 김치냉장고에 보관한다. 고춧가루가 귀할 때는 '덤병김치' 라고 해서, 막장 담글 때 넣는 고추처럼 품질이 떨어진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물에 생강, 마늘, 파 등을 넣고 버무려 멸절게 된 양념 물에 절인 배추를 덩병 담갔다 건져서 김장을 했다. 이렇게 절인배추를 덩병 담갔다 뺏다고 해서 '덤병김치' 라 한다. 그래도 덩병김치가 맛이 있었고,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탓에 늦게까지 먹을 수 있었다. 향아리에 넣을 때는 사이사이에 무를 넓적하게 썰어 넣었다. 그리고 총각김치, 깍두기 등도 함께 담갔는데, 이들도 배추김치처럼 빨갱게 담그지 못하고 붉은 색 흥내만 났다.



배추 절이기



김장하기

### ▷나물밥

봄에는 나물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 곡식을 조금 넣고 나물밥을 자주 해 먹었다. 칼나물, 망초대나물, 방울나물, 곤드레, 나물취, 질경이를 많이 뜯었다. 나물밥을 할 때는 주로 곤드레,

참나물, 미나리쌈, 모시대를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무쳐서 밥이 되기 직전에 밥 위에 올린 다음 밥이 다 되면 섞는다.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우리 삼동서 보나물 가자”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맛이 좋다.

### ▷나물죽

봄에 나물죽을 많이 먹었는데, 나물죽을 끓일 때는 그때 뜯은 나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질경이, 곤드레, 다래순 등 제철 나물을 뜯어다가 밀가루 혹은 강냉이쌀과 섞어 넣었다. 밀가루와 쌀이 귀할 때는 조금 넣었다. 멸건 죽을 먹으면 물을 길러갈 때 배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물을 뜯어야 반찬이 되기 때문에 매일 나물을 뜯었다. 화전을 할 때는 산에 나물이 많았으나 현재는 나무가 우거져서 나물이 없다.

### ▷올챙이묵/ 올챙이국수

여름에는 올챙이묵, 감자부침개를 해서 먹고, 옥수수와 감자 등을 썰 먹었다. 옥수수는 젊은 사람, 감자는 노인들이 많이 먹었다. 올챙이묵은 완전히 익은 옥수수를 갈아 걸러내고 가라앉은 앙금을 끓인 다음 구멍 뚫린 바가지에 넣고 눌러 먹었다. 구멍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마치 올챙이 같다하여 올챙이묵이라 부른다. 올챙이묵은 올챙이국수라고도 하는데, 황옥은 올챙이국수를 만들어 먹으려고 재배 한다. 옥수수를 타겨 맷돌에 갈아서 체로 쳐서 물을 넣고 죽을 쑤어 구멍 뚫린 올챙이국수 틀에 넣고, 찬물 담은 물에 빠지게 한 다음 그것을 조리로 건져 간장과



올챙이묵 틀

열무김치를 넣고 식성에 따라 양념을 더 첨가하여 먹는다. 끈기가 없어 젓가락으로는 집으면 끊어지므로 숟가락으로 먹는다.

### ▷국수

모내기를 할 때 제누리는 주로 국수를 내갔다. 점심에는 밥을 대접했는데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함께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먹는일이 많았다. 모내기, 김매기는 품앗이로 했다.

### ▷능이버섯

가을에는 능이버섯이 별미이다. 능이는 추석쯤에 많이 나는데, 능이버섯으로 백숙을 해 먹으면 맛있다.

### ▷김치메밀전

겨울에는 뭉게 반죽한 메밀에 김장김치를 담갔다가 건져서 전을 부쳐 먹었다. 이때는 만두도 많이 빚어먹었다.

### ▷도토리묵

도토리를 말려서 껍질을 깬 다음 물에 담가 불린다. 그 다음에 갈아서 거른 다음 녹말로 묵을 만든다.



도토리 말리기



강판

### ▷감자전

감자로 할 수 있는 음식은 여러 가지나 마을에서는 옹심이, 송편, 부침개를 등을 많이 만들

어 먹었는데, 감자를 지금처럼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기보다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에는 특히 감자전을 많이 부쳐 먹었는데,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물기를 약간 뺀 후에 부쳤다. 그렇지 않으면 강판에 간 감자에 밀가루를 조금 넣고 부쳐 먹기도 했다.

### ▷옥수수엿

옥수수는 메옥수수로 수제비를 끓여 먹거나 올챙이묵(올챙묵)을 주로 해 먹었으나, 아이들에게는 과자를 못 사줘서 강냉이를 튀겨주거나 엿을 만들어 줬다. 추운 날 엿을 먹으면 추위도 덜 타고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다.

### ▷깻잎짬지

깻잎이 세기 전에 따서 씻은 후 물기를 빼서 양념을 해서, 간장에 마늘, 파 등 갖은 양념을 넣어서, 깻잎을 댓 개 씩 놓고 양념장을 바르고 또 댓 개 놓고 양념 바르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삭한 맛이 더해 더 맛있다. 삶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겨울에 두고 먹어도 좋다. 예전에는 다 삶아가지고 반찬을 했다. 그리고 깻잎을 두툼하게 해서 실로



꽂꽂 묶어서 단지에 넣고 삭혔다. 단지에 소금물을 만들어 깻잎을 넣고 돌로 눌러놓으면 누렇게 색이 변하는데, 그걸 꺼내서 물에 헹궈서 먹었다. 요즘에는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서 양념을 해서 먹기도 한다.

###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를 많이 했는데, 예전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해주려면 마땅치 않아 마늘장아찌를 많이 싸줬다. 마늘장아찌는 여러 개씩 묶어서 고추장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었다.

### ▷더덕장아찌

예전에는 치악산에 더덕이 많이 나서, 꼬지(꼬치)로 끼울 수 있는 것은 팔고 그렇지 못한 작은 것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에 고추장에 넣었다가 꺼내서 반찬을 했다. 그때는 재배더덕이 없고 모두 산더덕이다.

### ▷무장아찌

예전에는 동치미를 해먹고 남은 것을 넣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김장할 때 무를 몇 개 항아리에 함께 넣는다. 그리고 봄이면 그것을 꺼내서 씻은 다음 곁을 말린 후 막장 담글 때 함께 항아리에 넣어 무장아찌를 해 먹었다.

### ▷장 담그기

정월달 말날에 메주로 장을 담그는데, 상품성이 떨어진 서리태를 함께 넣어 담그면 간장이 맛이 좋다. 간장을 빚고 남은 메주덩어리는 버렸다. 막장은 메줏가루(4~5말), 엿기름가루(반말), 고춧가루, 보리밥(1말 반)을 섞어 만든다. 예전부터 몸이 아프면 장맛이 변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메주를 음력 10월에 빚고, 장은 3월 삼짙날 담았다. 그런데 요즘은 정월에 많이 담근다. 삼짙날 담그는 것은 제비가 오는 날이라 좋은 때라 그

날 담그는 것이다. 간장을 빚고 남은 메주는 가정에 따라 소를 주거나 메줏가루를 섞어 된장을 만들기도 한다. 마을에서는 보통 막장을 담갔는데, 예전에는 막장을 그냥 장이라 했다.

고춧가루 좋은 건 양념이나 고추장 담글 때 쓰고, 다 따고 남은 푸릇하고 울긋불긋한 고추를 따서 막장 담글 때 쓴다. 상품이 아닌 고춧가루와 보리밥 그리고 메줏가루를 함께 버무리며 막장을 담근다. 식성에 따라 소금과 엿기름 넣은 물로 버무리는 분들도 있고, 소금물로만 버무리기도 한다. 막장은 희나리고추(희아리고추)를 넣는데, 고추를 넣으면 더 맛있다.

예전에는 간장을 담고 남은 메주덩어리를 버렸다. 그러다가 그 메주를 사러오는 분들도 있고, 이웃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주기도 했다. 그래 어떤 집에서는 간장 담갔던 메주덩어리



메주 틀

를 함께 넣어서 막장을 담그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웃이 하는 걸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서 지금은 막장을 그렇게 담그는 집이 많다. 막장을 담글 때 간장 빻었던 메주를 쓰려면, 간장을 담근 후 20여 일이 지나면 건져서 메줏가루와 함께 버무려 막장을 담그고, 그렇지 않고 간장으로만 담그고 버리면 세 달까지도 간장 물에 담가 둔다. 메주를 건진 간장은 여름이 되면 곰팡이가 필 수 있으므로 술에 넣고 졸인다. 이후 간장에서 건진 메주와 메주 덩어리를 물에 넣고 손으로 주무르며 된장을 담근다.

간장은 음력 정월에 담그고, 2월에는 장을 담그지 않으므로 3월에 고추장과 막장을 담그면 된다. 3월 되면 바쁘니까 정월에 간장 담글 때 고추장, 막장을 담그는 집도 있다. 지금은 가을 장을 담근다는 말도 있다. 정월에 담그는 건 보통 손 없는 날인데, 말날이 좋다고 한다. 그래 달력에 말 그림이 있으면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담근다.

### ▷술 빚기



맷돌



맷방석



체

옥수수술은 메옥수수를 뺀아 물에 불린 후 맷돌에 갈아서 옛기름을 섞은 다음 끓인다. 끓이면 죽이 되는데, 죽을 퍼서 식힌 다음 다시 술에 붓고 옛기름을 또 섞는다. 이후 물을 적당히 붓고 그대로 두면 삭는다. 시간이 지나서 멀겁게 되면 끓인 다음 찐다. 그 후에 항아리에 담는

다. 향아리에는 3일 전에 밀질 밥을 해서 넣어 둔다. 며칠 지나면 술이 완성된다. 옥수수술보다 쌀로 만드는 술이 더 쉽다. 쌀로 만드는 술은 밥을 해서 엿기름을 섞은 다음 술약을 넣으면 된다.

양조장이 생기면서, 세무서 직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밀주를 담갔는지 확인하던 때가 있었는데, 보통은 양조장에서 일러줘서 그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 어떤 집은 요강에 술을 담가둔 경우도 있었다. 어느 집에서는 할아버지 기제 때 쓰려고 술을 조금 담갔다가 걸려서 벌금도 물기도 했다.

### 제3절 주생활

집터는 보통 지관이 잡았다. 부곡마을에도 지관이 있었는데, 집터를 잡을 때는 방향과 집주인의 생이 맞아야 한다. 지관은 패철을 놓고 좌향을 잡는데, 마을에서는 이관호 씨가 집자리와 뗏자리를 잡아주었다. 대치마을에서는 집자리를 잡을 때는 주로 비루봉 쪽을 보는데, 집터를 정하고 나면 큰 돌을 끈에 묶고 여러 명이 지경을 다졌다. 지경 다지기는 울력으로 주로 밤에 했다. 집터를 모두를 다지는 게 아니고 주추 자리만 다졌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방이 두 칸인데, 일자로 집을 지었고, 찻개벽이라고 벽에 싸릿가지를 대고 흙을 뭉쳐서 싸릿가지를 감싸는 방식으로 벽을 만들었다. 지붕을 뿔으로 이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부곡리에는 저릅(겨릅)으로 지붕을 한 집도 있었다. 이곳은 삼이 잘 되지 않아 많이 심지 않았다. 저릅으로 지붕을 하면 3년 정도 쓸 수 있는데, 마을에서는 보통 짚으로 지붕을 했다.

‘초가삼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조그맣게 지었는데, 아래, 옷방에 부엌 하나이다. 거기에 툇마루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지붕을 이엉으로 해 이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크게 짓지 않았다. 사랑방하고 소죽을 끓이는 부엌하고는 가까이 있다. 그래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외양간을 청소하여 명석을 깔고 과방을 만들었다. 마구간에서 과방을 보면 부엌이 가까워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집벽은 외를 엮는다고 해서, 중짓이라고 가운데 가느다란 작대기를 몇 개 세운다. 거기에다 새끼줄을 수수깡이나 산에 있는 휘추리나무(싸리나무)를 대고 엮어서 초벽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마르면 맞벽을 붙인다. 이때 진흙은 짚을 작두로 쓴 풀을 흙과 함께 반죽해서 만든다. 그런 다음 회를 올린다고 해서 벽에 회를 바른다. 예전 짚개벽 시절에는 추석 때가 되면 진흙을 파다가 이겨서 흙손으로 벽을 바른다. 이렇게 하는 걸 ‘맥질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맥질을 했다.

지붕은 추석 전에 하지 못하고, 추석이 지난 후인 음력 10월에 한다. 예전에는 집 울타리를 만들었다. 울타리는 작대기를 드문드문 세우고 거기다 띠를 갖다 매고 참나무를 한 길 되게 같이 잘라서 꽂는다. 그리고 양쪽에서 끈을 묶어놓는다. 그리고는 겨울에 보온한다고 옥수숫대를 울타리 바깥으로 돌린다. 그렇게 하면 바람이 막아져서 보온이 된다. 봄이 되면 옥수숫대는 뜯어서 불을 땀다.

구들은 아궁이 하고, 벽 불 넘어가는데 하고 맞아야 한다. 개자리에서 연기를 뽑아내는 굴뚝을 세우는데, 불을 땀 연기가 모이는 개자리가 깊어야 불이 안 난다.

자리 만드는 나무는 도토리나무, 참나무 등으로 만들었다. 처음 만들어 놓으면 하얀 것이 좋는데 시간이 지나면 때가 타면서 시커멓게 된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음식을 쏘거나 아이가 불일을 보면 닦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집에서 키우던 개를 데려다가 그곳을 핥게 했다. 왕골 자리도 그렇지만 갈자리도 그렇게 청소를 했다. 그래서 산모가 있는 집에서는 출산할 때면 자리에 피가 묻어 잘 닦이지 않으므로 자리를 걷고 벗짚을 깔았다.

마을에는 소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서 주로 전나무로 집을 지었다. 예전 집을 뜯어봐도 전나무, 잣나무가 대부분이고 소나무는 없었다. 예전 집을 지을 때는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다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산에 다니면서 하나 둘 베어다 집에다 놓고, 집 한 채 지을 수 있겠다 싶으면 짓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나무는 어느 정도 마른다.

집을 지을 때 주로 삼 칸 방이 많았다. 식구 많은 사람은 한 채에 방 세 칸짜리 집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두 칸짜리 집을 지었다. 세 칸짜리 집을 지을 때는 꺾어서 기억자 집으로 짓고, 두 칸으로 짓는 사람들은 일자로 지었다. 세 칸으로 지을 때는 아래 옷방으로 두 칸, 꺾어지는데는 한 칸으로 짓는다.

부엌하고 외양간은 붙어있는데, 그래야 쇠죽을 썰어서 바로 구웁에 퍼 담을 수 있다. 아궁이에 보통 솔을 두 개 걸어놓는데, 큰 솔에는 여물을 쭈고 작은 솔에는 밥을 한다.

잔치를 할 때 마구간(외양간)을 과방으로 꾸민다. 과방을 꾸밀 때는 외양간 바닥 및 벽을 청

소 하고 명석을 깔고 방을 꾸민다. 잘사는 집들은 광이 있어 그곳에서 과방을 봤다.

변소는 안방에서 안 보이는 곳에 짓는다. 변소를 예전에는 잿간이라 했다. 나무를 해서 땄 때는 한 거울에 150짐을 해서 밥도 해먹고 여물도 끓여주는데, 그 재를 화로에 담았다가 다 타면 쏟고 다시 담고 그러는데, 불일을 보고 그 위에 재를 얹어 똥가래로 떠서 한쪽에 두었다 가 거름으로 썼다. 형편에 따라 다른 곳에 단지를 묻어놓고 불일 보는 사람도 있고, 단지도 묻을 형편이 못되면 그냥 돌맹이 두 개 갖다놓고 불일을 봤다. 이러한 사정은 이곳 부곡마을뿐만 아니라 예전 강원도 산촌은 물론 농어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인포택 가옥 구조〉



차인표 댁



지옥너 씨 옛집

차인표 댁의 가옥 구조는 일자형인데, 앞채는 한국전쟁 나던 해에 지었다. 현재는 사랑방, 뒷마루, 대문, 창고 등의 구조이지만 전에는 사랑방이 2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뒤채는 세 칸 짜리(안방, 옷방, 부엌) 작은 집이었는데, 48년 전 어머니 환갑 때 개축을 했다. 지붕은 초가였는데 새마을 운동 때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다가 10년 전에 현재와 같이 지붕을 했다.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간 지는 4년 정도 됐다.

마을에 전기는 1987년도에 들어왔으며, 그 전에는 석유 등잔불을 사용했다. 차인표 씨 아버지 가 계실 때는 석유 한 초롱으로 1년을 사용했다.

## 제4절 상수도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주위에 샘이 있는 곳에다 지었다. 부곡리는 건수지대이므로 겨울철에는 물이 귀하다. 그래 냇가에 물이 없을 때는 빨래를 하려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식수의 경우 그래도 개울에 가서 떠다 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 잔치나 제사 같이 큰 일이 있거나 소여물을 끓이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떠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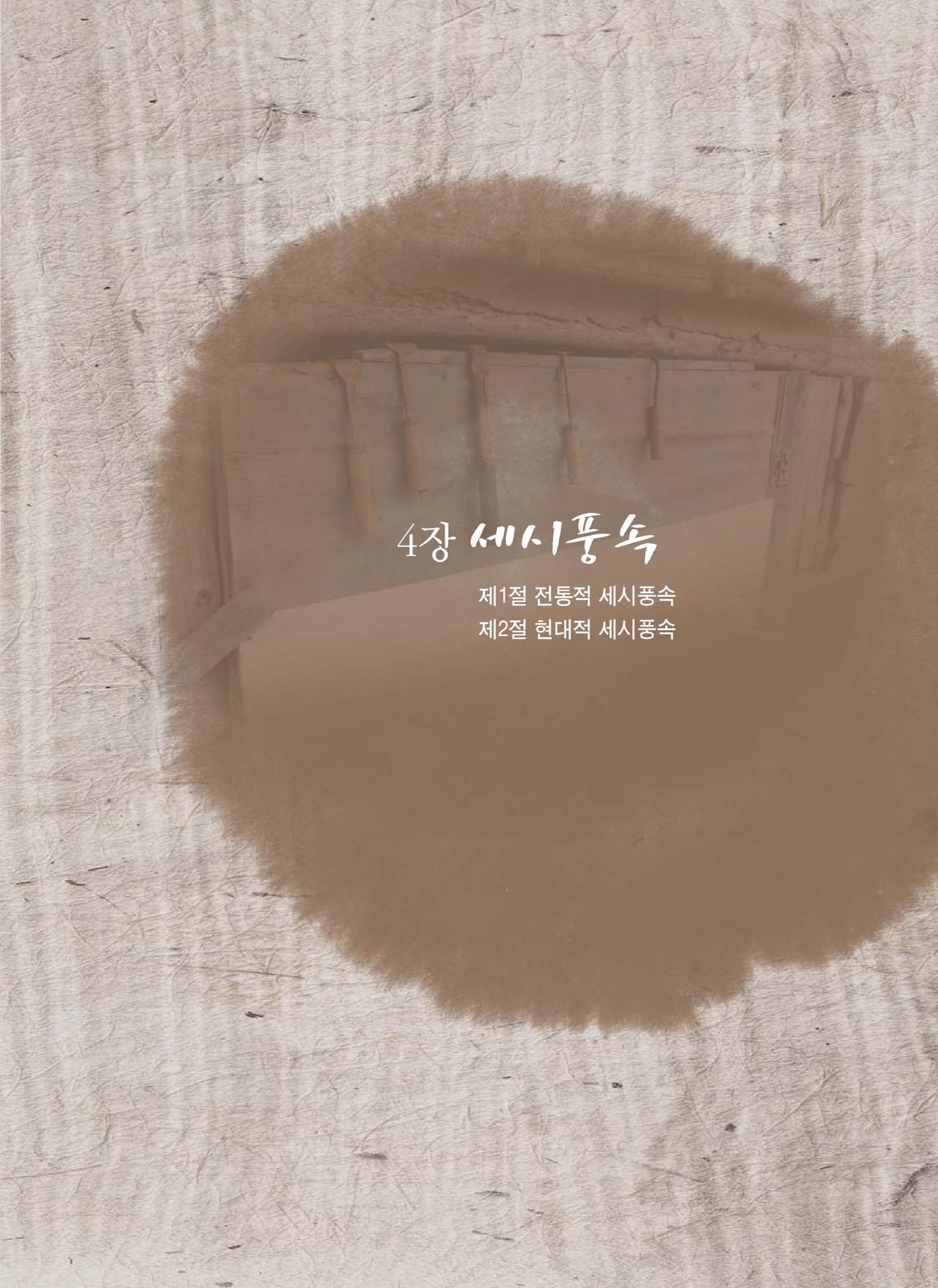
2003년에 군의 지원으로 부곡2리에 상수도가 들어 왔는데, 그 해 5월 20일부터 첫 요금을 받았다. 당시에는 50여 가구가 이용했으며 집마다 계량기가 있다. 2014년에는 72가구가 이용했다. 초기에는 매월 검침을 했으나 3년 전부터는 분기별로 한다. 요금은 기본이 3천원이고, 1㎡ 단위로 기본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분기별로 마을 전체 요금은 80~90만 원 정도 나온다. 집집마다 다니며 계량기 확인 후 요금을 직접 받는다. 계량기만 있는 빈집은 기본료로 계



상수도 물탱크

산해서 일 년 동안의 상수도 요금을 미리 받아 놓는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연로하시어 통과 된 수도는 상수도 관리원인 이대성 목사가 수리해주지만,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군청 상수도 사업소에 얘기해서 수리한다.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100만 원 이하면 마을 돈(물값)에서 사용한다.

마을에서 상수도 설치 후 관리원을 정할 때 마을에서 할 분이 없어 부곡교회 이대성 목사가 임시로 맡았는데 지역민들 사이에 평판이 좋아 현재까지 하고 있다. 관리원 보수는 분기당 50만 원이며, 12월 말 마을 대동회에 참석하여 상수도 관련 연말 결산을 한다.



## 4장 세시풍속

제1절 전통적 세시풍속

제2절 현대적 세시풍속

# 제4장 세시풍속

## 제1절 전통적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같은 마을이라도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특정 집안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대를 한마을에서 살았다면 세시풍속 또한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증조부 때부터 이곳 곧은치에 살고 있는 차인표 씨와 월현리가 고향인 그의 부인 이선옥 씨, 그리고 곧은치에서 2대 이상 거주하신 분들의 구술을 종합하여 음력을 기준으로 계절별로 정리한다.

### 1) 봄철 세시풍속

#### 1월

##### ▷ 차례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명절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긴다. 설빔을 차려입고 설날 아침에 만둣국 제사를 지내는데, 만두는 반달 모양으로 빚는다. 만두를 빚을 때 만두소는 닭고기를 갈아서 김치, 두부와 섞는다. 예전 아이들 설빔은 형편이 좋으면 몰라도 대부분 따로 해주지 못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다. 차례상에 차조떡, 메밀 만둣국을 놓고, 제사상에는 메밀 부침개, 탕국(복어, 마늘, 파, 무, 두부), 산적, 전병, 절편, 인절미, 전 등을 올린다. 과일 중 복숭아는 귀신이 싫어한다 해서 올리지 않는다. 다른 집은 그믐날 저녁에는 떡국 제사를 지내고 설날 아침에는 만둣국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시댁은 정초에 만둣국 제사만 지낸다. ‘치’ 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곧은치·술거리마을의 정월 대보름 풍습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집안에 따라서는 ‘부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더위팔기’ 등의 날짜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착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모님 또는 시부모의 영향으로 그렇게 날짜와 행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그대로 정리한다.

### ▷ 세배 · 성묘

가장 큰 명절이다. 초열흘 안에는 여자들이 남의 집에 출입을 하지 않고 남자들만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하러 다녔다. 현재는 가족끼리만 명절을 보낸다.

### ▷ 콩점

정초에 친정아버지가 수수깡 속에 동네 호수(戶數) 만큼 콩을 넣고 표시를 한 다음 묶어서 물에 넣어 그 해 운세를 봤다. 물에 담긴 수수깡은 다음날 아침에 꺼내어 불은 콩의 주인은 재수가 좋고, 불지 않은 콩의 주인은 재수가 나쁘다고 했다. 시댁에 와서는 콩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콩점을 보통 신수점이라 하는데, 정월 열나흘날 수수대를 반으로 잘라,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등 식구대로 차례로 놓는다. 수수깡 한쪽 속을 파내서 콩알을 하나씩 둔다. 그리고는 쪼갠 수수깡을 합쳐서 실로 묶는다. 그리고는 물에 담근다.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건져서보면 잘 불은 게 있고 안 불은 게 있다. 그래 콩이 불은 주인은 그 해 신수가 좋고, 불지 않은 사람은 안 좋다고 하여 그해 몸조심을 했다.

### ▷ 정초12지일

용날에 물을 길러오면 일꾼 얻은 날에 비가 온다 해서 전날에 물을 길러 와야 했다. 소날 칼질과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 쥐날에는 콩을 볶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는다. 말날은 누에 날이라 하여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

### ▷ 복조리달기

정월 보름 전에는 복조리를 사람들이 팔러 다녔다. 2개씩 사서 집에 걸어 두었다.



복조리

### ▷ 젓가락으로 밥 먹기(14일)

정월 열나흘날 수저로 밥을 먹으면 발김을 땀 때 넓은 고랑을 만다하여 젓가락을 쓰게 했다. 예전 화전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발김매기를 했다.

### ▷ 오곡밥 · 묵은 나물 먹기(14일)

정월 열나흘에는 오곡밥을 해서 먹는다. 집에 있는 곡식을 주로 넣는데, 밤, 강낭콩, 찹쌀, 멥쌀, 수수 등을 넣는다. 곡식 다섯 가지를 모두 챙겨서 넣지 않는다. 열나흘날 오곡밥을 해서 먹는데, 보름에 밥이 차면 데워서 먹기도 했다. 나물은 호박오가리, 무나물, 취나물 등을 주로 먹었다. 열나흘날 찰밥을 하는데 싸리나무로 불을 때면 곡식이 잘 된다고 했다.

### ▷ 부럼 깨물기(14일)

아침에는 부럼 깨물기를 하고 귀밝이술도 먹는다.

### ▷ 귀밝이술 마시기(14일)

귀밝이술을 담가서 열나흘날 아침에 먹었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으면 먹었다. 부럼 깨물기도 열나흘날 아침에 했다.

### ▷ 더위팔기(14일)

정월 열나흘날은 여름날이고, 보름날은 가을날이라 한다. 그래서 열나흘날 다니며 이름을 부른 후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우!” 그린다. 여름에 더위 먹는 것이지, 가을에 더위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정월 보름날에는 더위를 팔지 않는다.

### ▷ 풍흉 점치기(14일)

정월 열나흘날은 싸리나무로 밥을 해먹는다. 밥을 다 한 후 12달의 의미로 숯불 싸리가지 12개의 ‘달불금’을 해 놓는다. 부뚜막에 숯덩이 별건 걸 12개 차례로 놓고, 먼저 삭아서 재가 되는 숯의 달은 가뭄이 있는 달이고, 그대로 식어서 숯이 되는 달은 비오는 달이다. 달불금은 아침 불을 때면서 한다.

### ▷ 키 큰 남자들이기(14일)

열나흘날 아침에 키 큰 남자가 지나가면 집으로 들였는데, 곡식이 키가 크고 농사가 잘 되었다고 밥을 해놓고 남자를 불러들였다. 이날은 여름날이라고 해서 농사꾼날이라고도 한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라고 연락하기도 한다.

### ▷ 간보기(14일)

열나흘날 아침에 아이를 낳은 여자가 반찬 맛을 다 봐야 곡식이 발아가 잘되고 이삭이 잘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가 반찬을 일일이 다 먹어보고 상을 차렸다.

### ▷ 용알뜨기(14일)

열나흘날 밤에 우물에 달이 들면 그걸 얼른 떠다 보름날 아침에 밥을 해먹었다. 서로 물을 먼저 떠가려고 난리였다. 물을 뜨고는 짚으로 또와리(띄리)를 만들어 우물가에 놓는다.

### ▷ 다섯 곳에서 물 떠오기(15일)

보름날 아침에는 다섯 군데의 샘에서 물을 떠다가 자기 집의 우물에 부으면 물이 계속 잘 난다고 했다. 시집오기 전부터 집에 우물이 있었다. 여름에만 물이 나고 겨울에는 물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큰 개울물을 이용했다. 평상시 우물에 물이 나지 않을 때는 세 군데 샘에서 물을 떠다가 우물에 넣었다.

### ▷ 섬만두 빚어 먹기(15일)

정월 보름에는 오곡밥을 찌서 먹거나 차갑게 먹기도 했다. 섬만두를 빚는데 큰 만두 속에 작은 만두를 넣어서 빚었다. 식구수대로 만들어서 끓여 먹었다. 친정에서도 섬만두를 만들었다. 명이 길라고 명길이가 국수도 먹었다.

열나흘 날은 여름날이라고 해먹고, 보름날은 또 가을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섬만두 해먹는다고 해서 만두를 굵게 빚어서 칼국수와 함께 끓여먹었다.

### ▷ 보름밥 얻어먹기(15일)

정월대보름에 좁쌀, 수수를 쌀과 섞어서 찰밥을 많이 한다. 동네 아이들이 밥을 얻으러 오

면 바가지에 퍼줬다. 나물은 고사리, 취나물을 해먹었다.

#### ▷ 부럼 깨물기(15일)

새벽에 부럼을 깨물었는데 콩을 볶아서 했다. “부스럼 깨물자!” 하면서 먹었다.

#### ▷ 노래기 제거하기(15일)

노래기 없앤다고 “노나각시 길쌈하라!”고 외면서 보름날 아침에 방안 구석에 솔가지를 꺾어다 놓았다.

#### ▷ 고담책 읽어주기(15일)

보름날 할머니들이 몰려다니며 고담책(고대소설)을 읽어줬다. 권인식 씨의 어머니가 고담소설을 잘 읽었다.

#### ▷ 망우리싸움(15일)

정월대보름에 망우리 돌리기를 했는데, 주로 부곡1리와 2리가 경쟁을 했다. 햇불싸움도 했다. 권인식 씨는 20세가 넘어서 군 입대 전까지 햇불싸움을 했다고 회고하는데, 부곡2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늘 이겼다.

#### ▷ 귀신달걀날(16일)

정월 열엿새날은 귀신날이라 하여 귀신달기를 했다. 이날 귀신이 신발을 신으면 재수가 없다하여 신발을 집안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체에 바늘을 꽂아 처마 끝에 걸어 두는데, 귀신이 체 구멍을 세다가 날이 새면 간다고 했다.

16일은 귀신달걀날이다. 이날은 여자들이 길에 돌아다니면 귀신이 붙는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집에서는 귀신이 들어온다고 첻바퀴를 문 밖에 걸어두고 옆에 솔갑(솔잎)을 함께 둔다. 솔잎을 두는 까닭은 솔잎으로 체 구멍이나 세다 돌아가라는 의미이다. 귀신이 신발을 신어보면 안 좋다고 해서 저녁에 집안에 들여놓았다.

열엿새날은 해먹는 게 없고, 귀신날개날(귀신달걀날)이라고 해서 원새끼 파서 문에 걸고 솔가지를 끼웠다. 그리고 한쪽에 열개미를 걸어두고, 다른 쪽에는 가는 체를 걸어두고 마당

가운데는 모닥불을 피웠다. 이날 귀신이 나타나서 오다가 얼개미구녕(구멍)을 다 세고 모닥 불에 와 불을 켜고 첻바꾸(첻바퀴) 세다보면 날이 새서 간다고 한다. 이날 귀신이 오면 옷도 입어본다고 해서 옷을 한쪽으로 치웠다.

### ▷ 키 감추기

정월 보름 전에 남자가 키를 보면 안 된다 하여 숨겼는데, 남자가 키를 보면 발가는 연장이 망가진다고 해서 그랬다.

### ▷ 장 담그기

장은 정월달에 날을 받아서 담그는데 주로 말날에 담갔다. 말날은 육갑을 짚는 분에게 알아보고나 달력에 표시된 간지의 말 그림을 보고 안다.

## 2월

### ▷ 머슴의 날

2월 초하룻날은 노는 날이라 했다. 또는 머슴의 날, 농군의 날이라고도 하며 나뭇가리를 가리는 날이라고 했다.

### ▷ 영등모시기

2월 초하룻날은 영등 할머니 오시는 날이라 해서 식구 수대로 수저로 쌀을 떠서 떡을 해먹었다. 이날 바람이 불면 영등 할머니 딸이 내려오고, 비가 오면 며느리가 내려온다고 했다. 이날 비가 오는 것은 며느리 치마에 얼룩지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은 딸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라고 하는 것이다.

### ▷ 여자들 남의 집에 출입하지 않기

2월 초하룻날 아침에 남의 집에 여자가 첫 손님이면 그 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 이날은 여자들이 출입을 삼갔다.

### ▷ 키 큰 남자 데려오기

2월 초하룻날 키 큰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농사가 잘 된다고 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집 앞을 지나가는 이웃남자를 일부러 불러들이는 일도 있었다.

### ▷ 노래기 예방하기

2월 초하룻날에 초가지붕에 솔가지를 꽂으면 노래기가 죽는다고 했다. 그리고 초하루 아침에 식구들이 집안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기가 생긴다고 했다. 또 첫 천둥소리에 돌을 뒤집어 놓고 그 돌을 건너는 사람이 재수가 좋다고 한다.

### ▷ 나이떡 해먹기

2월 초하룻날은 나이떡 해먹어. 어린 나이로다 손가락으로 쌀을 떠서, 인제 열 살이면 손가락으로 쌀을 열 번 떠서 떡을 하는데 다 모이면 엄청나. 그래 그걸 뺏아서 송편을 해서 먹으면 고계 나이떡이라 그러대. (나이떡은 왜 해 먹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를 영동떡이라 그러대. 그걸 영동할머이 떡이라고 그러대.

## 3월

### ▷ 삼진날

예전에는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다는 삼월 삼진날을 장 담그는 날이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주로 정월에 장을 담근다.

## 2) 여름철 세시풍속

## 4월

## ▷ 한식

한식날은 조상들의 묘소를 돌아보고 제사를 지낸다.

## ▷ 초파일

예전에는 삼진날,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에 마을에 보살이 탁발을 오면 시주를 했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보살이 오지 않았다.

## 5월

## ▷ 단오

그네는 김녕 김씨 선산 소나무, 솔거리 밤나무나 방앗간 터에 있던 미루나무에 주로 매달았다.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네를 뛰었는데, 그네를 뛰며 “추천이야~”, “우두그네야~”, “수리취떡이야~”라고 사람마다 외치는 소리가 달랐다. 남자들은 씨름을 했다. 마을에서 그네 뛰기를 하면 상품으로 바깥세를 주기도 했다.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후반 때부터는 그네뛰기를 하지 않았다. 이날에는 취나물을 뜯어다가 수리취떡을 해먹었는데, 차좁쌀에 취나물을 넣고 찰떡을 해서 먹었다. 요즘은 취떡을 하지 않는데, 산에 나무가 많아 그들이 저서 취나물이 없다.

## 6월

## ▷ 유두날

아침 일찍 사람이 안 볼 때 쌓아놓은 돌맹이를 하나 뒤집어 놓는다.

## ▷ 복달임

삼복 때마다 복달임을 했다. 예전에 남자들은 몇 명씩 모여서 개고기를 먹으며 천렵을 했다. 요즘은 경로당에 모여서 삼계탕을 먹는다. 2014년 초복 때는 횡성읍 닭집에서 생닭을 60마리 사다가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끓였고, 2015년 초복에는 마을의 한 사람이 생닭 60마리를 기증해서 이장, 반장들도 초대해서 함께 먹었다.

복달임을 마을에서는 복놀이라고 하는데, 20여 년 전부터 계속 초복에 닭을 사다가 삼계탕을 끓여먹었다. 그전에는 이웃이랑 어울려 감자부침개도 해먹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게 잘 해먹는 거였다. 아니면 큰 개울에 가서 솔을 걸어놓고 감자를 갈아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끓여먹기도 했다. 불은 주변의 나무를 모아 불을 지피고 솔뚜껑을 뒤집어 전을 부쳤다. 그때 기름을 바를 때는 깻잎을 뜯어서 사용했으나, 많이 할 때는 무를 잘라서 썼다. 무를 잘라서 쓰는 까닭은 무에 기름이 스며들지 않아 기름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깻잎도 기름을 적게 먹는다. 기름칠 하는 무를 '기름식개', '기름짜개' 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들기름이다. 예전에는 산초기름도 썼으나, 요즘은 산초가 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산에 나무가 많으면 산초가 자라지 않는다. 나뭇잎이 많이 날 때는 산초도 많았다. 술은 옥수수엿술보다 옥수수막걸리를 주로 먹었다.



복달임

## 3) 가을철 세시풍속

## 7월

## ▷ 호미씻이

두레패끼리 냇가에 가서 국수, 떡 등을 먹으며 천렵을 했다. 이때 가족들도 모두 참석한다. 요즘은 호미씻이는 없고 필요하면 수시로 이웃들과 어울려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한다.



호미

## 8월

## ▷ 추석

추석날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송편을 해먹는데 모양은 반달모양으로 빚고 소는 콩, 팥, 밤 등을 넣는다. 요즘은 아이들이 깨 넣는 것을 좋아해 깨도 넣는다. 차례 지낼 때는 햇과일, 햇곡식을 올리는데, 벼가 채 여물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확할 수 없을 때는 몇 단의 벼를 베어다 말려서 찢어 햅쌀을 준비했다. 이렇듯 햅쌀을 준비하기 위해 아직 익지 않은 벼 베는 것을 '바슴(바십)', '바스미'라 한다. 작년에 이어 올 2015년에도 추석이 빠르



차인표 덕 차례

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바심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 때문에 햅쌀을 구입해서 쓰거나, 아니면 요즘 웬만한 집에는 벼 찢는 기계가 다들 있기 때문에 작년 벼를 새로 찢어서 쓰기도 한다. 예전 바심을 할 때는 낮으로 벼 몇 단을 베어 말린



장정자 덕성묘

후 벼훅개로 벼를 훑어 절구에다 찢어 키로 까불린 후 쌀을 만들어 밥을 지어 차례를 지냈다. 나물은 도라지, 무나물, 고사리를 하고 튀김은 다섯 가지 정도 한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튀김을 일곱 가지 정도 한다.

송편을 해먹었는데 반달 모양으로 빚는다. 차례상에는 사과, 배, 감, 과일, 꽃감, 대추, 북어, 조기, 탕국(북어, 두부, 무), 닭을 올린다. 송편의 속은 밤, 콩, 팥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 기장떡(술떡)도 만들었다. 차례상에는 비늘이 없는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

## 4) 겨울철 세시풍속

## 10월

## ▷ 안택

성주 모시기를 하기 위해 추수 후 집안떡을 했다. 백설기를 5되 한 다음 집안의 거실, 주방, 장독대, 정미기 등에 뒀다가 먹었다. 거실에 가장 먼저 두는 까닭은 그곳에 성주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비손을 했으나 요즘은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집안떡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으나, 지금은 집안 식구들끼리 먹는다.

안택을 한 다음에는 사구지에 실을 엮어서 벽 한쪽 구석에 걸어둔다. 안택을 안 한 지가 20년 지났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했다.

안택은 음력 10월에 좋은 날 받아서 떡을 몇 말씩 했어. 두 시루씩 하는데, 이 집에는 비나수를 하더라고. (비나수가 뭐예요?) 비는 사람, 남자 할아버지.(복술? 복치면서?) 복은 안 쳐. 그냥 앓아 빌어. 그리고는 동네 떡 나눠주고. (떡은 무슨 떡, 무슨 떡 하세요?) 우리는 마구설기라고, 대추 넣고 이렇게 마구설기 찌구, 하얀 백설기 찌구, 또 새벽에 우린 또 달라. 새벽이면 새옹메다 새옹메 쳐가지고 또 산에 갔다 와. 인제 임시 나만이 만들어 놓고 저기. (해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장소가?) 안 바뀌지. (어르신 댁만 가는 거지?) 그럼 우리만 가지. (그때 시어머니도 가시고 어르신도 가세요?) 아니 우린 안 가지. 시어머니 하고 시아버지 하고 둘이. 새옹메를 집에서 지어가지고 올라가지. 우리도 둘이 그렇게 했는데 이젠 안 하지. '일 년 열두 달 몸 건강하게 농사 잘 짓고 잘 살아서 이거 산신님께 고하는 거라고 빌지. 또 올 일 년도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미 빌지 뭐.' (그걸 비나수라고 그래요?) 어. 그러구 소지 올리지. (소지는 남자가 올려요?) 예. (비는 거는 어르신이 빌고?) 아니, 그것도 다 남자가 하지. 그래 없으면 내가 하고. 그러다가 안 하는 게 이제 몇 년 됐어. (힘들어서 못 가시는구나?) 그럼 거기 밤에 가야 하는데, 새벽 4시면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바위 아래 공간에 사구지 하나 요렇게 해서 걸어놓고. (그걸 뭐 한다 그러세요?) 그거를 안택 하는 데서 하는 거지. 안택하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안택고사 하는데, 새벽에 가서 그렇게 하고는 내려와서?) 아침 먹고는 떡방아, 그

전엔 발 방아니까, 발 발아에 쫓어가지고 저녁에 찌지. 찌서 그 복술 모셔다가 비나소 하지. (복술은 부곡에도 계셨어요?) 예. (어느 분이 잘 하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뭐. (그 분들 모시면 사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떡이나 드시고 가시지 뭐.

### ○김장하기

김장은 음력 10월에 했다. 양념은 소금, 마늘, 파, 고춧가루 등을 넣고, 새우젓은 30여 년 전부터 넣기 시작했다. 땅에 묻은 김치는 봄에 꺼내서 여름 내내 김장 김치를 먹었다.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무를 쫓어 김장 양념을 해서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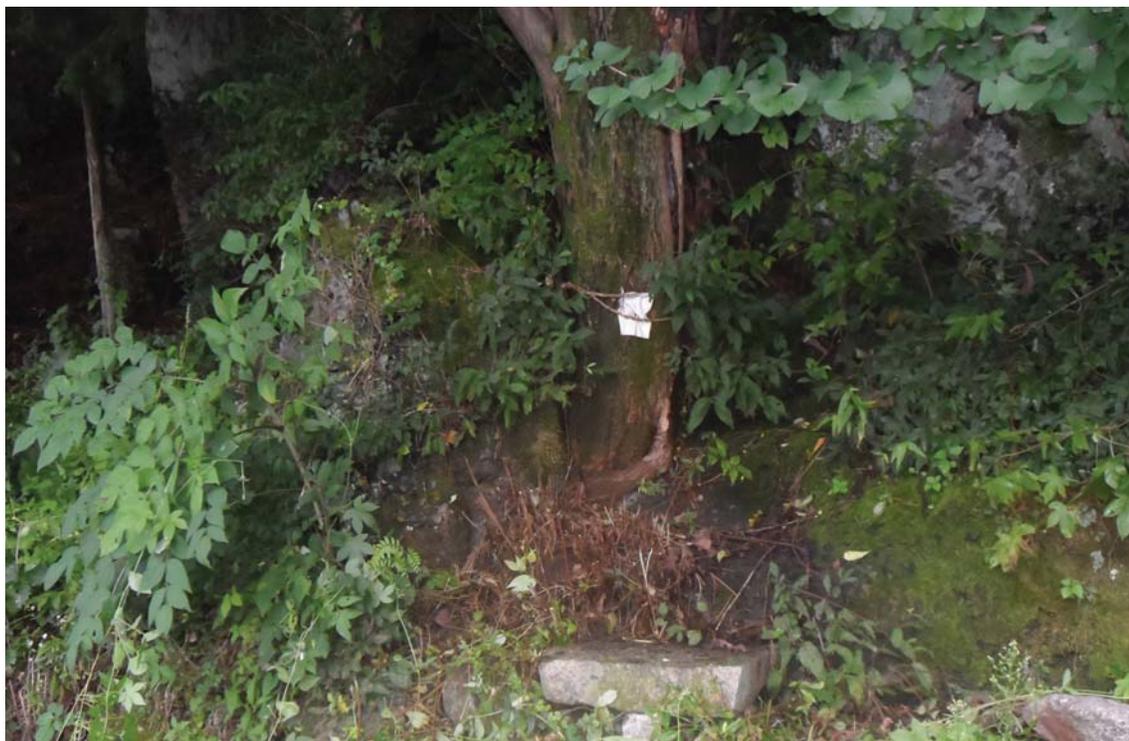
배추를 절였다가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넣고 버무려 김치를 담근다. 젓갈은 예전에 넣지 않았는데, 이곳은 젓갈이 귀해서 김장할 때 젓갈 넣는 걸 몰랐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젓갈을 넣지 않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만 넣고 김장하는 경우가 많다. 젓갈을 넣지 않으면 김장이 오래가도 군내가 나지 않아 봄에 먹기 좋다.



절임배추 씻기

## 11월

예전 대부분의 마을주민은 10월에 안택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동짓달 초에 낱을 받아서 ‘집안떡’을 했다. 성주 앞에는 팔시루떡을 놓고 백설기는 집 뒤의 산신을 모시는 지당에 놓는다. 이를 ‘집안 해 먹는다’, ‘집안 고사 드린다’고 한다. 해마다 성주와 산지당 앞에 한지를 걸어 둔다. 그리고 떡은 조금씩 떼어 한지에 찢 다음 집의 동, 서, 남, 북, 중앙에 놓아둔다. 예전에는 백설기 1말, 팔시루떡 1말을 집에서 만들어 곧은치, 솔거리의 이웃들에게 떡을 돌려주고, 가까운 친지들은 집에 초대해서 먹었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집안떡’을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지금은 떡을 많이 하지 않고 백설기, 팔시루떡을 5되씩만 해서 정성을 드리고 가족끼리 먹는다.



차인표떡 지당

### ▷ 팔죽 쭈어 먹기

동지 팔죽은 해 먹지 않는다. 예전부터 조상 중에 염병(장티푸스)로 죽은 분이 있으면 동지 팔죽을 해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시어머니가 염병으로 돌아가셨다. 윗대부터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도 동지팔죽을 해 먹지 않는다.

동지 때는 팔죽을 해서 먹는데, 애동지에는 먹지 않고 노동지(늦동지) 때만 해서 먹는다. 어떤 집에서는 집안을 돌며 팔물을 뿌리기도 한다.

## 12월

### ▷ 풍흉 점치기

선달그믐 새벽에 나물과 밥을 키에 놓고 소를 먹인다. 소가 나물을 먼저 먹으면 다음 해에 흉년이 들고,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라 했다.

### ▷ 윤달

윤달은 손이 없는 날이라 해서 뗏자리를 옮기거나 집수리를 했다.

## 무상시

### ▷ 천렵

여름 농사일이 한가해지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먹었다.

### ▷ 도로리

예전에 주로 겨울철에 친한 친구끼리 모여 비용을 분담해서 국수, 떡 등을 해서 먹었다. 여름철에는 여럿이 개를 한 마리 해서 먹



천렵

을 때도 있는데, 이처럼 특정 음식을 먹을 때 경비를 분담하는 것을 도로리라 한다. 그래서 닭을 해서 먹으면 ‘닭도로리’, 개를 해서 먹으면 ‘개도로리’라 한다. 경로당이 생기면서 요즘은 도로리를 하지 않는다.

## 제2절 현대적 세시풍속

### ▷ 어린이날

예전에는 어린이날에 자녀들을 챙기지 못했으나, 요즘은 손주들에게 용돈을 준다. 김장생씨는 이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직접 김밥, 어묵, 떡볶이 등을 요리해 주었다.

### ▷ 어버이날

과거에는 어버이날이 없어서 부모들께 하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꽃, 선물 등을 챙겨준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카네이션을 사서 달아주더니, 결혼한 후로는 용돈을 준다.

어버이날도 중년에나 와서 했다. 자녀들이 와서 꽃 한 송이를 꽂아준다.

### ▷ 운동회

자녀들 졸업식에는 가보지 못했으나, 학교 운동회는 마을잔치이기 때문에 참석했다. 이날은 어른들끼리 축구 경기도 했다. 가능한 음식을 집에서 싸가지 않고 난전의 식당에서 사먹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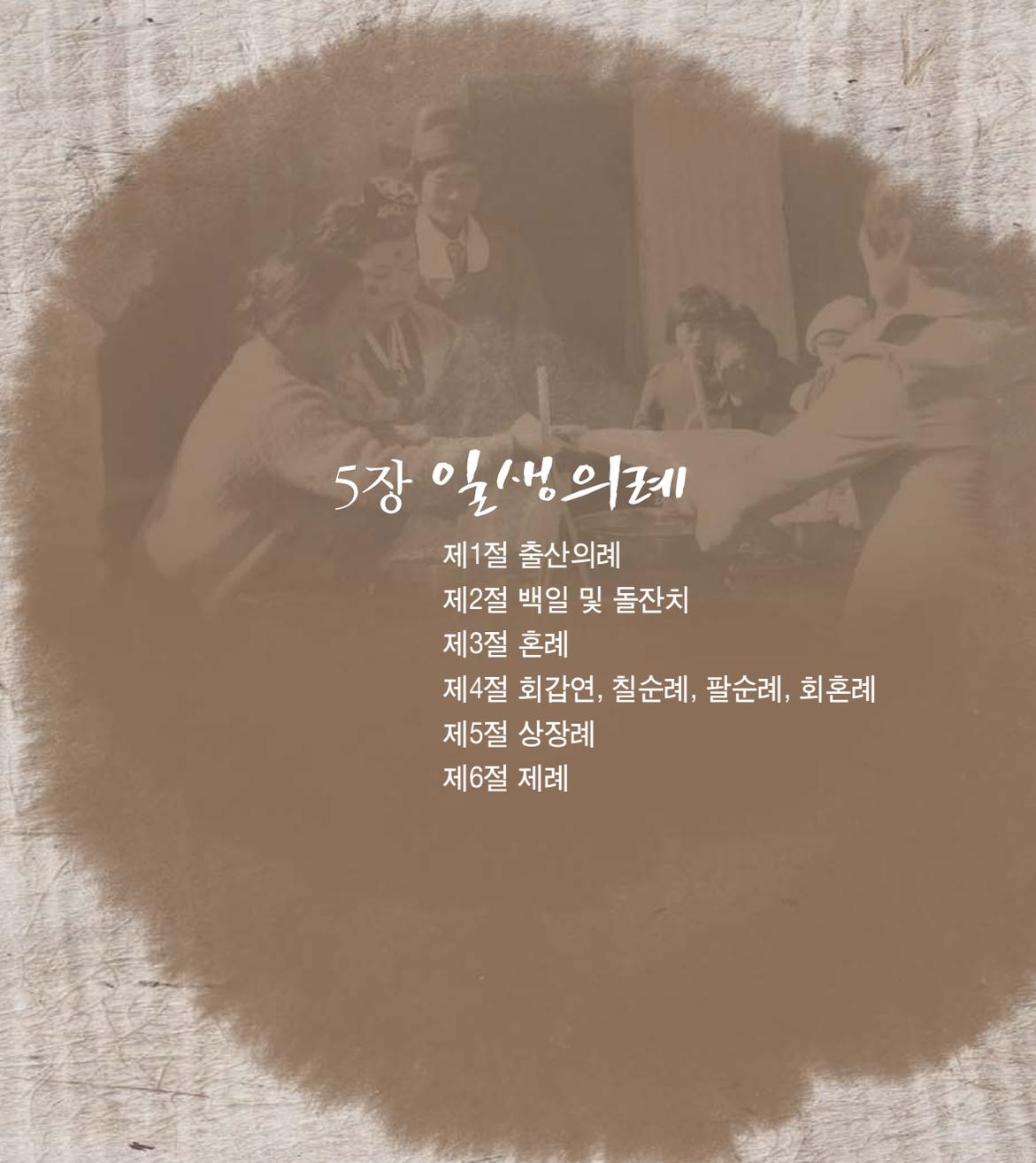
었다. 난전식당에서는 돼지국밥, 보신탕 등도 팔았는데 1그릇에 30원 했다. 권인식 씨가 40대였던 당시에는 부곡초등학교 학생수가 368명이었다.

### ▷ 크리스마스

아이들과 크리스마스트리를 함께 만들었다.

### ▷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 먹는 날로 알고 있다.



## 5장 일생의례

제1절 출산의례

제2절 백일 및 돌잔치

제3절 혼례

제4절 회갑연, 칠순례, 팔순례, 회혼례

제5절 상장례

제6절 제례

## 제5장 일생의례

### 제1절 출산의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산이나 바위 등을 찾아 치성을 드리거나 삼신을 받아 정성을 드리는데, 마을에서는 기자의례(祈子儀禮)를 하신 분은 없는 듯하다. 대부분 결혼하고 큰 탈 없이 아들딸을 낳았다.

○○○ 씨는 19세에 큰아들을 낳았는데, 겨울에 낳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몸조리를 할 수 있었다. 몸조리 할 때는 미역국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미역국과 밥을 놓고 삼신할머니상을 차렸다. 정성이 끝나고 그 국과 밥을 먹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한가할 때 출산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출산 후 몸조리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다행인 것은 산모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도 젖이 잘나와 아이는 제대로 먹일 수가 있었기에 고마웠다. 그러나 젖이 부족할 때는 옥수수쌀에 물을 부어서 끓인 후 당원(糖原)을 타서 먹었다. 예전에 쌀이 귀해서 옥수수를 주로 먹었는데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 씨는 19세에 첫 출산하여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아이를 낳고 바로 부업에 가서 일을 했다. 백일과 첫돌은 곤궁해서 챙겨줄 수 없었다. 기저귀는 평소에 헌옷으로 만들어서 사용했고 외출 시에만 천기저귀를 사용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젖이 많은 것도 복이라 했다.

○○○ 씨는 출산 후 3일째 아침에 시어머니가 아이 머리맡에 미역국, 밥, 간장을 올린 상을 차리고 삼신할머니한테 “단엿을 먹고 단밥을 먹고 단잠을 재워 달라”고 빌었다.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자라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시어머니께서 오남매를 모두 해주었다. 삼신할머니한테 빈 다음에 미역국과 밥은 산모가 먹었다. 산모가 깨물어야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라 하여 반찬은 먹지 않았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나가서 집안일을 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해주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에 오랫동안 몸조리를 할 수가 없었다.

○○○ 씨는 산달이 가까워질 때 시어머니께서 “힘들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애가 커서 낳기 힘들다!” 했다.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될까봐 출산 막달에도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쉽게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는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한다. 하지만 출산 때 남편이 군에 가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애를 낳기도 했다. 더욱이 시부모님도 안계신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씨는 24살에 큰딸을 출산했는데, 남편이 21살에 입대해서 27살에 제대했기 때문에 출산이 늦었다. 군 입대 전인 한국전쟁 때 남편은 청년방위대를 했다. 아이 다섯을 혼자 낳았고, 막내만 남편이 있을 때 낳았다. 혼자 출산할 때는 문지방에 매달려서 힘을 준 다음에 애를 낳았다. 시부모가 모두 전쟁 때 돌아가시고 친정 식구들은 원주로 이사를 나가서 출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몸조리를 할 때는 동서들이 강냉이밥하고 미역국을 차려줬다. 그런데 강냉이밥이 너무 맛이 없었고 설사병이 나서 고생을 했다. “동짓달에 난 애를 정월달에 내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저이가 제대를 해가지고 오더라고. 둘째 머슴애 낳고.” 친정에 있을 때는 할머니가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것을 봤는데 시집 와서는 직접 하지 않았다.

**(배넛저고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속을 뒤집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꿰맬 때 뒤집어 하지 않고 바깥쪽에서만 꿰맨다. 보통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으로 배넛저고리를 만드는데, 할아버지처럼 장수하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다. “오래 수(壽)하라고 그러는 거야!” 배넛저고리에 신타래로 하는 것도 오래 살라고 그러한 것이다. “길게 수(壽)하라고 그러는 거야.” 사주를 받더라도 복 많은 분에게 받아오고, 바느질도 자식이 많은 분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다.

금줄을 달 때 아들을 낳으면 왼새끼줄에 고추, 청솔(솔갑, 솔가지), 숯껌정(숯)을 끼우고, 딸을 낳으면 솔갑과 숯껌정만 끼운다. 치성드릴 때 매는 새끼줄도 왼새끼로 금줄이라 부르고, 출산했을 때 매는 왼새끼줄도 금줄이라 한다. 출산했을 때 금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었다가 치운다. 금줄은 남자가 주로 매는데, 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매는 게 일반적이다. 금줄은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에서 매는 것이다. 송아지 낳았을 때도 금줄을 매는 집이 있었다.

## 제2절 백일 및 돌잔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병원이 없던 시절 아이들이 아플 때는 주로 민간요법을 썼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체하면 산에 가서 산초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서 꿀을 넣고 끓여서 아이에게 먹였고, 아이가 갑자기 경기가 나면 손을 찼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아이가 백일이 되고, 돌이 되면 부모들은 기쁨에 온갖 음식을 차리고 예쁜 옷을 준비하여 아이의 백일과 돌을 축하한다. 그리하여 백설기도 하고, 돌잡히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부모는 물론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인다. 지금이야 백설기를 해서 이웃과 나눠먹고 아이에게 돌잡히기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전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솔거리·곶은치마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백일, 돌, 생일을 격식에 맞춰 차려주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집에서는 겨우 흥내만 냈다. 백일을 차리는 집은 드물었는데, 이날 삼신할머니한테 백설기를 바쳐야 백 살을 산다고 했다. 돌에는 삼신할머니에게 미역국, 쌀밥을 차려 놓고 빈 다음 산모가 먹었다. 돌잔치는 대부분 돌상과 돌잡이만 겨우 했다. 권인식 씨의 경우 아들 돌잡히기를 할 때 상에 다 실, 돈, 수저, 공책, 연필 등을 놓았다. 실은 장수를 뜻하는 것이고,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하고, 수저는 먹는 복을 의미한다. 공책이나 연필을 먼저 집으면 아이가 커서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

백일 때는 방아를 찧어서 백설기를 만들어 먹고, 수수를 빻아서 수수무삼기(수수경단)를 해줬다. 수수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른 다음 끓는 물에 삼아 조리로 건져서 붉은 팥에 묻힌다. 왜 누르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잘 익으라고 그러는 것 같다. 아이가 열 살 때까지 수수무삼기를 해먹이면 액땀을 하여 아이에게 좋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수수처럼 키가 크라고 열 살 때까지 수수무삼기를 해 주는 것이라 한다.

돌에는 백설기와 미역국을 끓인다. 이때 송편도 빚는데, 이는 아이가 속을 넓게 쓰라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 특별한날 먹는 음식은 동태찌개에다 쌀밥 먹는 거다. 이런 건 보통 생일에 먹는 별식인데, 동태찌개,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쌀밥 이정도면 근사한 생일 밥상이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형편이 나아져 마을 분들을 초대할 때는 소내장국을 많이 끓였다.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 분들을 초대해서 어른들 생일상을 차려드렸다.

### 제3절 혼례

혼례를 위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갈 때는 신랑이 가마를 타고, 혼례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는 신부가 가마를 탔다. 신부가 가마를 탈 때는 요강을 신는데, 요강속에는 쌀, 목화씨를 넣었다. 예전에는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마, 사모관대, 족두리, 활옷이 있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는 함진애비(함진아비)가 함을 메고 따라가는데, 함에는 활옷, 족두리, 기러기 등이 들어 있다. 신부 집에 도착하면 상에 팔시루떡, 술을 해놓고 신부 어머니가 함을 받는데, 함진애비가 장난을 치면서 함을 늦게 내려놓기도 한다.

대례를 올릴 때 신랑이 먼저 재배를 하고 신부는 사배를 한다. 그리고 신랑이 또 재배를 한다. 술은 석 잔을 서로 나눈다. 이때 신랑의 절은 함진애비가 도와주고, 신부가 절을 할 때는 여성 두 명이 옆에서 도와준다. 집사는 따로 없었다.



부곡리 결혼 뒤풀이(1970년대)



부곡리 전통혼례(1970년대)

대례가 끝나면 신랑이 사모관대를 벗어서 함에 넣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상객과 함께 큰 상을 받는다. 단자에 한자를 써서 얹어 놓는데 그걸 들어서 보면 답례를 해야 한다. 이는 신랑이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다. 남은 음식은 시댁으로 보낸다.

혼례를 올린 후 시댁으로 오면 신부는 폐백을 하고 신부상을 받는다. 이때 남은 음식은 친정으로 보낸다.

신방은 시댁에 와서 차린다. 이때 신부 친구들이 장난을 치기 위해 신부의 옷고름과 족두리를 꼭 묶어서 신랑이 쉽게 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밖에서 문창호지를 뚫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이를 “신방 지키다”라고 한다.

○○○ 씨는 17세에 혼인하였는데, 얼마 후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 후인 26세에 첫 아들을 봄에 낳았다. 마을의 다른 친구보다 아들을 일찍 낳은 까닭에 함진애비를 계속 했는데, 임형식 씨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6~7명의 함진애비를 했다.

○○○ 씨는 경우, 22살에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첫딸인 까닭에 함진애비를 하지 않았다. 처가는 원주 봉산동인데, 삼일도배기를 갔다가 신랑 달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 저녁에 신랑 달아 먹는다고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렸다.

예전에는 혼례를 치르기 전에 몇 차례 오고가는 것이 있다. 먼저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신부집에 보내는데 이를 납채라 한다. 이후 혼례 날짜를 정하는데, 부곡에서는 보통 신랑측에서 날을 받아 신부집에 전한다. 이렇듯 결혼 날 잡는 것을 택일이라 한다. 이후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에 온 신부는 3일을 보낸 후에 친정에 가는데 이를 재행(再行), 또는 근친(覲親), 3일 만에 친정식구를 다시 본다고 해서 삼일도배기라 하는데, 곧은치·술거리에서는 보통 7일 만에 재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곧은치·술거리마을 분들은 예전에 조혼을 많이 했다. 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럿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공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산골 마을에도 자유롭지 않아 해방이 되기 직전 급작스레 혼인이 많이 이뤄졌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급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서 신랑감을 찾았다. 이러한 까닭에 부곡리에서는 마을 내 혼인이 많았다. 하지만 마을에서 혼인연령이 된 사내들은 이미 강제징용을 당하였기에 마을에는 여자보다 손아래 남자들만 있었다. 이에 여자들은 부모의 권유에 따라 어린 신랑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지던 손아래 신랑

과의 혼인은 1950년대 초까지 이어져 곧은치·솔거리마을 나아가 부곡2리에서는 여러 분들이 손아래 신랑과 결혼하였다.

○○○ 씨는 일제 때 공출을 피해 급히 혼인을 했다. 남편은 같은 마을 사람으로 두 살 연하인데 이웃이 중매 했다. 대례상에는 떡, 다식, 닭, 고기 등을 올렸다. 친정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다. 17살에 길쌈해서 명주 치마, 저고리를 직접 만들어서 혼수로 가져왔다.

그래도 잔치는 잘 해주더라고. 사주를 받고...(같은 마을에 사셔서 얼굴도 다 알지 않으셨어요?) 알죠. 쪼그만 게 그래요. (어떠셨어요? 나이 어린 신랑.) 신랑인지도 모르고 그 집 가라니까 간 거죠. ... 좁쌀을 집에서 밥도 안 해봤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좁쌀로 밥을 하네. 들팽이 땀에 먹을 수가 있어야지. 들팽이 밥하고 혼나고. (혼인하고 그 다음날부터 부엌에서 일하셨어요?) 그럼. 농사일도 안 해보던 게 다 했죠. (무슨 농사 지으셨어요?) 밭농사. 논일하는 데 밥도 해다 주고. ... 시댁에 잔칫날 가가지고 또 사흘 만에 도배기떡을 두 말 해가지고 친정을 가라고 그러더라고. 또 메밀국수 누르고. 집에서 그대로 해주느라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지. 물은 저~기 있는데 물지게로 져다가 그렇게 다 맨들었다고.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마를 타고 갔다. 흔히 전통혼례에서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탄다고 하는데, 곧은치·솔거리 마을 나아가 부곡리, 강림면에서는 1950년대까지 신랑이 가마를 타고 신부 집에 갔다. 초례를 치른 후에는 그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신랑은 걸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차를 타고 오는 신부가 있으면 신랑친구들이 교군이 되어 원주 반곡역까지 마중 나가기도 했다. 마을에서 원주 반곡역까지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가마에 요강을 두는데, 요강 안에는 팔이나 숨을 넣었다. 그런가 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설 무렵 액막이를 한다고 잣봉지나 소금을 뿌렸다. 신부가 초례를 마치고 신랑 집에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로 재와 소금을 뿌렸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랑이 가마에 탔지만 키가 큰 사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에 가마를 타고 가다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신부 집에 다다르면 그때 다시 가마를 탔다. 보통은 오전에 혼례를 치르고 낮에 신부를 가마에 태워 집으로 왔다. 잣봉질은 신부에게도 했

다. 그런가 하면 가마꾼이 힘들까 봐 가마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기도 했다. 가마를 타면 흔들리기 때문에 어지럽고 불편하다. 여자들 중에는 가마올렁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마꾼을 ‘교군’, ‘하인’ 이라고 불렀다. 가마꾼끼리 발을 맞추기 위해 “으샤으샤”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권인식 씨 혼례 때 가마꾼은 동네 친구들이었다. 원주에서 곧은치로 시집 올 때는 곧은치재를 넘어야 했는데, 가마꾼들이 힘들어서 신부가 가마에서 내려 걸었다.

○○○씨는 17살에 중매로 결혼했는데, 부인은 20살이었다. 외아들이어서 일찍 며느리를 보기 위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다. 혼례를 치를 때 신랑은 가마를 타고 신부 집에 갔다. 가마꾼은 2명이었다. 마을에서 멀어지면 가마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신부 집이 가까워질 때 다시 가마를 타고 갔다. 혼례를 치르고 올 때는 신부가 가마를 탔다.

○○○씨는 18살에 혼인을 했는데 남편과는 아래, 윗집에 살던 사이였다. 즉 ‘이웃 혼인’이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혼례 때 남편이 가마를 타고 왔으며, 갈 때는 신부가 가마를 탔다. 가마는 두 사람이 뺏으며 이들을 ‘하인’ 이라고 부른다. 혼례를 올리고 친정에서 나올 때는 신랑 친구들이 소금, 물, 재를 가마에 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방한다.’, ‘방지한다.’ 고 했다. 시댁에 들어올 때 남편이 마굿간에 들어갔다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또한 예방하느라 그런 거라고 한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올 때 맨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바가지를 쥔다. 그리고 신랑이 초례를 치르고 자기 집에 오면 국수를 한 바가지 말아가지고 젓가락을 많이 꽂아서 구움에다 한쪽 다리를 얹어놓고 먹은 다음 그것을 온 식구가 함께 먹는데, 이는 식구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자손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 거다.**

곧은치·솔거리마을 분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씨는 첫날밤은 시댁에서 보냈다. 사람들이 문에 구멍을 뚫고 보면서 혼수를 줬다. 이를 ‘신방 지킨다.’ 고 했다. 재행은 시댁에 온 지 삼일 만에 갔는데, 이를 삼일 도배기라고 한다. 친정에 갈 때는 찰떡 같이 차지게 살라고 해서 찰떡을 해서 가져갔다. 이 떡을 동네 사람, 친지들과 나눠 먹었다. 시댁으로 올 때도 똑같이 찰떡을 해왔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준비를 해줬다. 친정

에 왔을 때 신랑 친구들이 신랑달기를 했다. 신랑의 발바닥을 다듬잇방망이로 때리면서 신부에게 술을 따르라고 장난을 쳤다. 친정에서 3일을 지낸 뒤 시댁으로 돌아왔다.

원주 봉산동에서 솔거리마을로 시집온 ○○○ 씨는 혼례를 원주 친정에서 올렸다. 남편은 하루 전날에 마을에서 가마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친정아버지께서 보내준 트럭을 타고 원주로 왔다. 친정아버지가 모곡장사를 했던 까닭에 원주의 아는 트럭을 맞춰서 남편이 타고 오게 했다. 신랑이 트럭을 바로 타지 않고 가마를 조금 탄 후에 트럭으로 갈아 탄 것은 가마를 꼭 타야한다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저녁에 온 신랑은 신부 뒷집에서 잤다. 예전에는 혼례 날과 시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월 초열흘날 새벽 7시에 대례를 올렸다. 겨울이라 눈이 오고 너무 추워서 친정아버지의 발이 얼 정도였다. 혼례를 마치고 시댁에 올 때는 남편이 타고 왔던 트럭을 타고 원주-횡성-안흥으로 해서 강림으로 왔다. 그리고 강림 남바우에서부터는 가마를 타고 마을로 왔다. 시댁에 올 때는 친구들이 따라 왔는데, 친구들은 시댁이 좁아서 옆집에서 묵었다. 친구들이 돌아갈 때는 걸어서 곤은치재를 넘어서 갔다. 같이 온 친구 중에는 애를 업고 따라 온 친구도 있었다. 삼일도배기 가는 날에 부엌 출입을 했는데, 이 날 시어머니께서 성냥에 불을 붙여서 아궁이에 불을 사르라고 시켰다.

#### 제4절 회갑연, 칠순례, 팔순례, 회혼례

지금은 대부분 80살 이상을 사는 까닭에 환갑잔치는 쑥스러운 일로 여겨 아예 칠순잔치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환갑나이를 넘기는 일이 쉽지 않아 자식들은 회갑을 맞는 부모를 위해 온갖 준비를 다하여 장수를 축하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에서는 회갑잔치를 개인 또는 한 집안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마을 구성원 모두가 축하했다. ‘환갑날은 연기도 안 피우는 날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도 회갑 잔치음식 먹으려고 이웃에서 많이 왔다. 이러한 까닭에 회갑잔치를 준비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박선옥 씨 시아버지 환갑 때는 손님이 많아서 국수가 떨어질 정도였다. 떡은 쌀떡, 차조인절미를 했다.

곤은치·솔거리마을에서는 회갑 때 손님들을 위해 국수, 옥수수술 등을 준비하고, 손님들



장정자 씨 시부모님 환갑잔치

은 자기 형편에 맞게 축의금을 가져왔다. 차인표 씨는 아버지 회갑연을 했는데, 상을 크게 차린 후 자식들이 큰 절을 올렸다. 이때 차인표 씨는 아들이므로 먼저 절을 하고, 이후 누님과 매형이 절을 했다. 술은 절을 하면서 부모님께 한 잔 올렸다. 큰상에는 항렬이 같거나 위인 집안 어른들도 같이 앉았는데, 절은 부모님에게만 했다. 회갑잔치는 부모님 생신날에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 어머니 회갑잔치를 따로 했다.

차인표 씨 아버님의 회갑은 선달 초이레였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었다. 그해 영주, 제천 등지에서 온 친지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머물러 있었다. 치악산을 넘어 돌아가야 하는데 눈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눈길은 열흘 뒤에야 뚫려서 집안들이 떠날 수 있었다. 그래도 산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차인표 씨는 젓먹이 조카를 업고 반곡역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 제5절 상장례

사망이 확인되면 시신을 안정시킨 후, 사갓밥을 차리고 초혼을 한다. 사갓밥을 차릴 때는 보통 밥 세 그릇, 나물 세 접시, 신발 세 켄레를 둔다. 이어서 초혼을 부르는데, 초혼은 망자의 집 앞에서 오른손에 속적삼을 들고 했다. 망자가 살던 지명, 생년월일, 이름을 차례로 말하고 복~복~복~ 세 번 부른다.

초혼이 끝나면 안방에서 칠성판 위에 시신을 똑바로 올려놓는다. 염을 할 때는 집안의 남성이 시신을 향물에 씻기고 옷을 입힌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 베주머니에 담아 입관할 때 함께 넣는다. 입관할 때는 틈이 나지 않도록 짚으로 꼼꼼하게 메운다.

5일장 또는 7일장을 하려면 시신을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신의 부패를 막는 일의 중요하다. 이에 입관을 마치면 관을 방에서 밖으로 모시는데 이를 마을에서는 ‘퇴룡(토룡)’이라고 한다. 퇴룡은 곧은치·솔거리마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임시매장법이다. 좁은 방에서 문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을 밖으로 모시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다.

상을 당하면 상주는 일일이 간섭할 수 없어서 호상(護喪)에게 일임한다. 그러면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장례를 총지휘한다. 아울러 지금은 부조로 돈을 내는 일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형편에 따라 팔죽 한 동이, 팔떡 한 시루 등을 부조했다. 가져온 음식은 빈소에 올린 후 가져온 이가 절을 하고 나눠 먹었다. 전을 올릴 때 사구지로 곱게 오려 웃기를 장식한다. 떡은 절편을 했다. 팔죽은 상가에도 한 동이씩 써가기도 하지만, 이사 가는 집에 해주기도 한다. 상가에서는 성복하기 전에만 팔죽을 먹고 이후에는 안 먹는다. 팔죽은 한 동이 만들 때 팔 세 되가 든다. 문상객이 많은 경우는 과방을 두어 음식의 들어오고 나감을 관리했는데, 과방은 보통 외양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명석으로 바닥과 구유(구유)을 덮은 후에 사용했다.

장지는 미리 정해두거나 지관을 불러서 정한다. 혹은 친한 사람에게 좋은 밋자리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곧은치에 살던 이관호 씨가 지관을 잘 봤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손들이 번성한 집에서는 출상 전날 빈 상여를 메고 상가 주위를 오가며 다음날 있을 운상에 대비하여 미리 발을 맞춰보는 상여놀이를 했는데, 부곡리에서

는 이를 대돋움이라 했다.

출상하는 날 시신을 상여에 모시기 위해 나갈 때는 관의 앞머리로 바닥에 놓여 있는 바가지를 깨거나, 관을 든 앞 사람이 발로 밟아서 깨기도 한다. 이렇듯 바가지를 깨는 것은 이승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집안에 따라서는 바가지를 깨지 않기도 한다.

운상을 하고 장지로 가는 과정에 다리를 만나면 상두꾼은 건너는 것을 망설이며 온갖 구실을 붙여 상주의 주머니를 열게 했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회다지를 하는데, 보통 3쾌, 5쾌를 다졌다. 곧은치·솔거리마을에서도 부잣집은 7쾌까지 다지기도 했다.

회다지가 끝나고 봉분이 완성되면 평토제를 지낸다. 평토제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초우를 지내고, 이어 다음날에도 집에서 재우를 지낸 후 그 다음날 묘소에 가서 삼우를 지낸다.

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술 담그는 것이다. 술은 옥수수를 맷돌에 갈아 엿물로 담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듯 술이 금방 익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통 5일장, 7일장을 치렀다. 상을 당해 비가 오면 안판상주가 머리에 솔뚜껑을 거꾸로 이고 곡을 한다.

## 제6절 제례

제례는 차례와 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명절 차례를 마을에서는 차사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사라고 부른 경우도 있다. 제례 음식을 준비할 때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

### 1) 차례(茶禮)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 하는데,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설날과 추석에만 차례를 지냈다. 추석에는 모두 메밥을 지어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에 가는데, 설날에는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많은 집에서는 설날 아침에 메밥 차례만 지내지만, 어떤 집에서는 설날 전날인 선달 그믐날 저녁에 만둣국을 준비하여 만두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그믐날 조상이 오셨다가 설날에 되돌아가시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서는 설날 아침에 만둣국과 메밥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예전 짚개벽 시절에는 추석이 돌아오면 진흙을 파다가 이겨서 흙손으로 벽을 발라 집안을 손질했다. 이렇게 흙손질 하는 걸 ‘맥질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모든 벽을 시멘트로 미장을 한 까닭에 맥질할 일이 없다.

제수 준비는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곳 부곡리는 산촌인 까닭에 생선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제물을 진설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동백서(紅東白西), 두동미서(頭東尾西), 좌포우혜(左脯右醢), 조율이시(棗栗梨柿) 등을 따른다.

예전에는 북어포가 지금처럼 넓게 손질되어 나온 것이 아니어서 통북어를 나무방망이로 두드려 넓게 펴서 포로 만들어 썼다. 그래 방망이로 통북어를 너무 두드리다보면 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탕을 끓일 때, 지금은 소고기와 무를 넣고 끓이지만, 예전 소고기가 귀할 때는 탕을 쌀뜨물을 받아서 무와 북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탕을 끓였다. 그래 북어탕국을 먹고는 제사지냈다고 했다. 추석이 일러서 무가 귀할 때면, 덜 여문 박을 따서 속을 걷어낸 다음 껍질을 까서 무처럼 썰어 북어를 넣고 탕을 끓이기도 했다.

만둣국이나 메밥을 차릴 때는 조상 수대로 놓으며, 조상의 순서는 차례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상을 볼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놓는다.

## 2) 기제사(忌祭祀)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밤에 지내는 제사와 망자의 생일날 지내는 생일제사가 있는데, 생일제사의 경우 돌아가신 후 3년까지 지낸다. 망자는 왼손잡이라 왼쪽에 수저를 놓는다.

차례나 제사를 지낸 후 조상이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잠시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때는 조상이 놀랄까 헛기침 세 번을 하고 들어온다. 예전에는 딸의 경우 잔을 올리거나 절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리지 않는다.

제사는 할아버지인 3대까지 지낸다. 이후 오래된 조상은 시제 답으로 내놓는다. 제수 중 생선은 비늘 있는 조기를 놓고, 북어포, 떡, 부침, 과일, 과자 등을 진설한다. 문어는 뼈 없는 생선이라고 해서 놓지 않았다. 지금은 겨울에도 과일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예전 과일이 귀할 때는 사과, 배는 사정에 따라 진설을 못하기도 하지만 대추, 밤, 꽃감은 빠지지 않았다.





6장 민간요법

## 제6장 민간요법

- 나무하다가 손을 베이면 소나무의 속 껍질을 벗겨서 상처를 감싸 지혈을 한다. 칩닝쿨을 자르면 나오는 진을 다친 곳에 바르면 지혈이 금방 된다. 잣나무 속껍질을 벗겨다가 벤 데를 감아주고, 잣나무 송진을 굽어다가 수시로 발라준다. 잣나무 속껍질이 소나무 속껍질보다 더 잘 낫는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로 상처를 싸맨다.
- 배가 아플 때는 초롱단(용담)의 뿌리를 먹는다.
- 설사가 심할 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으면 멈춘다. 하지만 열이 날 때 먹으면 안 된다.
- 담에 걸렸을 때는 지네와 멧돼지 웅담(쓸개)을 먹으면 좋다. 웅담은 중풍에도 좋다. 말린 웅담을 잘라서 따뜻한 물에 넣으면 안개처럼 퍼진다.
- 골절이 되었을 때는 산골조개를 먹으면 좋다. 산골을 먹을 때는 나이수대로 먹어야 한다.
- 뱀에 물렸을 때는 돼지 똥을 발라주거나, 돼지기름을 내서 바른다.
- 폐결핵일 때는 뱀을 탕으로 끓여 먹으면 좋다.
- 숙취는 토종꿀을 수저로 세 스푼 정도 먹으면 금방 깬다.
- 중풍이나 산후조리에는 멧돼지 쓸개가 좋다.
- 배앓이 때는 사철썩을 빵아 즙을 내서 먹는다.



산골조개

- 아이가 경기 날 때는 손가락, 발가락, 인중, 이마를 바늘로 따서 시켜면 피가 나오게 한다. 아이가 놀랐을 때 바늘로 손가락을 따면 노란 물이 나오고 나중에 피가 나온다. 두충을 들기름에 넣고 끓여서 물만 먹인다.



침과 침통

- 접질렸을 때는 침을 맞는다.
- 두통이 있으면 양법을 하면 괜찮아진다.
- 열이 날 때는 찬물에 꿀을 타서 먹인다.
- 중한데 시주할 때 아이의 제비꼬리 머리를 잘라서 곡식 밑에 깔 다음에 주면 아이에게 좋다고 했다.
- 체했을 때는 소금을 먹거나 침침을 맞았다. 침침은 침덩굴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한쪽 끝을 입으로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들기름을 발라 환자 입에 깊숙이 넣는다.
- 학질에 걸리면 아침, 저녁은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춥다. 이때는 익모초 즙을 먹는다.

- 몸이 허약한 데는 닭백숙에 잔대를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세 번 해서 먹으면 몸에 좋다.



북나무진

-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른단.
- 손발이 트면 북나무를 잘라 와서 낮으로 칼집을 낸 후 불에다 대고 있으면 진이 나오는데, 그것을 튼

곳에 발리준다.

- 동상에 걸리면 차가운 생콩자루에 발을 넣어 발의 얼음을 뺀다.
- 집에서 키우는 벌에게 쏘이면 치료를 하지 않는다. 치료를 하면 벌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둔다.
- 화상에는 무청태(물청태)가 좋다. 개울에 가면 시퍼런 청태가 있는데 그걸 뜯어다가 화상 입은 상처에 붙이면 시원하고 덧나지 않는다.
- 충치로 이가 심하게 아프면, 간장을 끓여서 숨에 묻혀 이빨에 문다. 그렇게 몇 번 하면 치통이 사라진다.

- 산에 사냥하러 갈 때는 감발 안에 달비를 넣고 발을 감싼다. 그러면 발이 잘 얼지 않는다.



달비

- 젖니증은 굵아 터지도록 기다리는데, 터지지 않을 때는 낫쇠 손가락 손잡이 끝을 갈아 손갈총을 만들어 불에 달군 후에 젖을 찢어서 고름을 뺀다.
- 종기가 나면 손갈총을 빼쪽하게 갈아서 불에 달군 후 찢어서 고름을 빼고 송진을 긁어다가 붙인다. 그리고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서 감는다.
- 산모가 젖이 부족하면 돼지 족을 삶아서 먹는다.



## 7장 민간신앙

제1절 마을신앙

제2절 가정신앙

제3절 기우제 및 기후예측

## 제7장 민간신앙

공동체신앙은 마을이 형성되면서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행하던 의례이다. 마을에 따라 산신제, 서낭제, 거리제 등으로 명칭이 다르고, 성격 또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이들 신을 통하여 마을 구성원이 바라는 바는 다르지 않다.

부곡2리 마을에서는 현재 대치마을과 곧은치·솔거리마을에서 마을제의를 지내고 있으나, 무례마을은 몇 년 전부터 지내지 않는다.

### 제1절 마을신앙

#### ▷ 곧은치재 서낭제

곧은치에서 원주 행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곳 교동에 살던 분들이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냈었다. 교동은 곧은치재 정상 바로 아래 재 밑에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지내던 제당이 있었는데 화전정리 때 마을이 없어지면서 곧은치마을에서 한동안 지냈다. 곧은치마을에서 이 마을의 제사까지 지냈던 까닭은 곧은치마을 분들이 곧은치재를 넘어 원주에 다녔기 때문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지냈다.

제당은 곧은치재 서낭당이라고 불렸으며, 서낭당은 나무를 켜서 잘 지었다. 제의는 음력 10월 초정일 오전에 지냈다. 소장수들이 소를 끌고 이 길을 통해 원주로 다녔기 때문에 소장수들의 안전도 함께 빌었으며, 제의 때 그들은 기부를 많이 했다. 일제 강점기 때나 해방 후에도 한동안 안흥, 월현, 영월 수주 사람들이 원주장에다 소를 팔려면 이 곧은치재를 넘어 다녔다. 또 일제 때는 문막에 소금배가 들어와 강림은 물론 수주 사람들도 소금 받으러 문막으로 다녔는데, 그때는 모두들 이 곧은치재로 다녔다.

#### ▷ 무례서낭제

부곡2리 무례마을에 서낭당이 있어서 서낭제를 지냈으나 몇 년 전부터 지내지 않는다. 서낭제를 지내지 않는 까닭은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연로하신 분들만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서낭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전 서낭제를 지낼 때는 정월 첫 정일(丁日) 자시(子時)에 지냈다. 모시던 신은 여신이였다. 서낭제 3일 전에 도가를 뽑으면 도가는 자신의 집과 서낭당에 원새끼로 금줄을 쳤다. 서낭제 때는 술을 쓰지 않고 감주를 썼는데, 감주는 도갓집에서 담갔다. 제물은 백설기, 돼지, 메밥, 북어, 밤, 대추 등을 진설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백설기 1말을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떡을 잘 먹지 않으므로 5되만 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머리와 내장만 삶고 나머지는 부위별로 각을 떠서 생으로 진설했다.

부정이 없는 마을 부인들은 도갓집에 초저녁부터 모여서 순대를 만든다. 제수비용은 마을 돈으로 충당했다. 소지는 도갓집부터 올린 후 마을 분들 소지를 차례로 올렸다. 신목은 예전에 서낭당 앞에 있던 엄나무를 위했으나 그것이 죽고는 주위에 있는 낙엽송을 위했다. 서낭제를 지낸 후에 낙엽송에다 절을 하는데, 특정 낙엽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낭당 들보에는 ‘西紀 壹九六七年 丁未 七月初七日’ 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예전에 서낭당이 바람에 날려가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라 한다. 서낭당 외벽은 송판과 함석, 지붕은 함석이며, 크기는 가로 195cm, 세로 195cm, 높이 200cm이다. 제단 위 위패에는 ‘성황신위(城隍神位)’ 라 새겨져 있다. 이 마을 서낭당이 부곡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 한다.<sup>5)</sup>

무례마을에서 살다가 곧은치로 이사와 사는 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마을제의를 지낼 때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물론 부정을 봐서도 안 된다. 만약에 부정을 보면 제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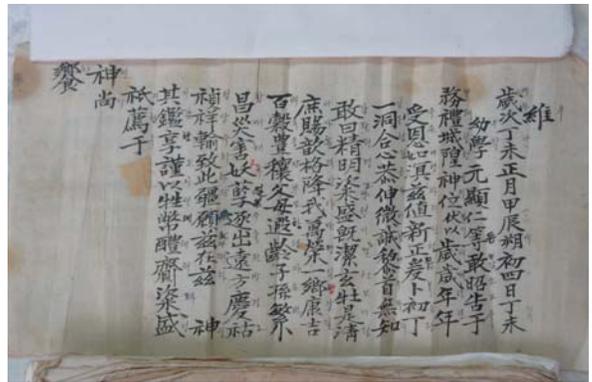
**용하긴 용해요. 용하는 건 왜 용하나? 우리가 도가를 맡아가지고 도가를 할라 그러는데, 도가를 할라면 그 마리, 온 마릴 갖다 삶고 이러면 나무를 때야 되잖아?(그렇죠.) 그 우리 셋째 시동상이 인제 땀라고 저 올라가가지고 싸리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오다가 엎어졌어. 엎어져 고병이를 깬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시어머이, 그때 뭐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해 줄라고 뭐 상어뼈라나 뭐 그거를 저 산성골이라고 지금은 사람이 안 살지. 그때 거기 사람이 살았어. 그래서 상어뼈를 구할라고 거길 갔었어. 거길 갔는데 어느 개가 죽어가지고서는 덮어놨드래, 가마이로. 덮어놨는데 풍지가 요만큼 나왔드래. 그걸 봤대요. 그래 봤는데 이제 상어뼈를 구해가지고 오시다가, 집을 안 오셔도 내가 다 하는데 집으로 오셔야 되는 줄 알고 개울에 와서 세수를 하고 이래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 당에는 밤 저기 1시면 나오거든. 1시에 인제 제살**

5)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2008, 48~49쪽 참조.



무례마을 서낭당

지내러 나오는데, 제살 지내러 나갈라 하는데 우리 시어머이가 쓰러진 거요 그만 까물쳐서. 그거 인제 벌 받는 거지. 개꼬리 보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뚜막이 얼마나 뜨거워 불을 그렇게 땀는데. 쥐가, 쥐가 큰 놈이 하나 고 떡시루 쩌 떡시루 앞을 요래 두구 죽었드라구. 그래 고놈이 대신 간 거야. 우리 시어머이, (대신요?) 그럼요. 그 뜨거운 델 뭉 하러 들어와 지가. 그런데 쥐가 거길 와가지고 알려주더라고. 그제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구나!) 그럼 그래서 우리 시어머이 그날 저녁 때가 되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



무례마을 축문

## ▷ 장승, 솟대

부곡1리와 2리 경계선에 있었는데 오래 전에 없어졌다. 솟대와 장승이 있을 때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었다.

## ▷ 국수멩이(국수당)



국수멩이 자리

곶은치재를 올라가며 가재바우 전에 국수멩이(국수당)가 있었다. 큰무례골을 지나 조금만 가면 작은 고개에 다릅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주위를 국수멩이라 한다. 예전에 이곳을 지날 때는 돌멩이 하나씩 던져놓고 침을 뱉으며 “오늘 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해 달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쌓였던 돌멩이는 산관 길을 닦을 때 사용했다. 이곳 국수멩이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곶은치·솔거리마을에서 원주로 넘어가거나, 원주에서 곶은치·솔거리마을로 넘어오자면 보통 세 번을 쉬었다. 마을에서 원주로 가자면 먼저 국수멩이에서 멈춰 돌을 하나 던지고 인사를 한다. 이곳을 지나 더 올라가면 노적바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쉰다. 그리고는 곶은치 잣말랑(고갯마루)에 올라가서 쉬고,

재를 넘어서는 참샘물등지에서 물을 마시며 쉰 다음 원주 목적지까지 바로 간다. 원주에서 곧은치 마을로 올 때는 반대로 참샘물등지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쉬다가, 잣말랑에 올라서 다시 쉬었다가, 노적바우에서 쉰 다음 국수뎡이에서 돌멩이 하나 던지고 인사 한 후 마을에 들어선다. 김상돈 씨는 어려서 곧은치재를 많이 넘어 다녔는데, 국수뎡이를 지나가면서 ‘무고하게 해 달라고 돌멩이 하나 던지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돌멩이를 던지며 ‘무사히 돌아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소리 나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빈다.

## 대치, 곧은치 · 솔거리산신제

부곡2리에서는 현재 곧은치 · 솔거리마을과 대치 마을에서만 산신제를 지낸다. 마을에서는 치악산 여신을 모시는데, 곧은치 · 솔거리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정일(初丁日)과 칠월 초정일에 지내고, 대치마을에서는 음력 칠월 초정일에만 지낸다.

### ▷ 대치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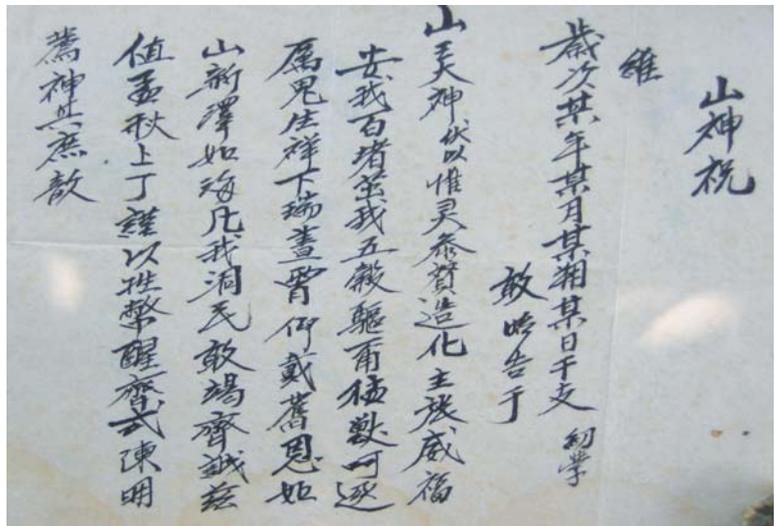
대치마을 제당은 대치골 부곡천 냇가에 있는데, 당집 없이 제단과 신목만 있다. 제단과 이웃하여 자작나무와 층층나무가 있는데 이들이 신목이다. 자작나무는 산신으로 여신이며, 층층나무는 수부이다. 냇가 약간 언덕진 곳에 나무를 중심으로 시멘트와 돌로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진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신제는 칠월 첫 정일(丁日) 아침에 지낸다. 예전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제의를 주관하는 도가는 생기를 따져 3일 전에 선출했다. 선출된 도가는 자신의 집과 서낭에 금줄을 친다. 제일이 되면 제의는 산신부터 지낸 후에 옆에 있는 수부 치성을 한다. 술은 안 쓰고 감주를 쓰는데, 감주는 도갓집에서 빚었다. 수땀지를 잡아 내장은 순대를 만들어서 간과 염통은 생으로 두 접시씩 준비하여 산신과 수부에게 각각 진설하고, 메밥도 각각 준비했다. 제수경비는 필요한 만큼 추렴하여 썼다.

하지만 현재 7가구가 모여 고사를 지내는 까닭에 돼지 한 마리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은 물론 돼지를 잡아서 손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장에서 돼지머리와 순대 만들 내장을 구입해서 쓴다. 제물은 돼지머리, 순대, 메밥, 북어, 밤, 대추 등을 쓰는데, 이 제물들을 산신에게 먼저 올린 후 제의가 끝나면 그것을 그대로 수부에게 진설한다. 축문은 마을에서 모시는 신



대치마을 지당

이 산신이기 때문에 산신 축만 고한다. 소지는 산신치성을 다 한 후 “산신님 잘 흡향하셨습니다까?” 하고 산신소지부터 올리며, 다음은 도가를 비롯한 마을 분들 소지를 차례로 올린다. 산신치성이 끝나면 산신에게 차렸던 음식을 그대로 수부에게 진설하고 “수부님 잘 흡향하셨습니다까?” 하고 수부 흡향소지만을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참여한 분들과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눠먹는다.<sup>6)</sup>



대치마을 축문

6)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2008, 50-51쪽 참조.

## ▷ 곶은치 · 솔거리산신제

곶은치 · 솔거리마을에서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대치마을과 같이 당집이 없다. 산신제는 곶은치마을과 솔거리마을이 함께 지내는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예전부터 함께 했다. 마을에서는 작은 무례골에 산신을 모시고 있으며, 산신은 여신이다. 당집이 없으나 마을에서는 그냥 산신당이라 부른다. 제의는 정월 첫 정일(丁日)과 칠월 첫 정일 일 년에 두 번을 지내며, 제의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 제물이 준비되면 마을에서 바로 출발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 정오를 전후로 지내게 된다. 제일 3일 전에 생기를 따져 도가를 선출한 후 도갓집에 금줄을 치며, 도가 일을 도와주는 유사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산신당에는 하루 전에 유사가 올라가서 금줄을 친다. 이곳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 산신당에 금줄을 치러 갈 때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길이 망가지면 손질을 해서 다니기 편하게 해놓는다. 이렇듯 길을 손질하는 일은 유사를 비롯하여 계장 그리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제일(祭日) 당일 아침에 수 돼지를 직접 잡아 시래기, 김치, 파, 마늘, 불린 찹쌀 등에 선지를 함께 넣어 버무려 순대를 만든다. 마을에서는 제의에 쓰는 돼지를 '마리'라 부른다. 순대 만드는 일은 마을 부인들이 담당하는데, 자신이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도갓집에 와서 일을 돕는다. 아침부터 준비한 순대와 머리, 다리 하나, 갈비 한 짝을 삶아서 큰 대야에 담아 지계에 지거나 어깨에 메고 산에 가져간다. 쌀은 1말을 준비하여 1되는 새옹메를 아래에서 지어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을 분들이 먹을 밥을 짓는다. 북어, 밤, 대추, 과일 등은 쓰지 않는다. 산신당에 도착하면 먼저 한지로 예단을 만든다. 병풍처럼 서 있는 바위 아래에 돌로 만든 제단에 산신을 모시고, 산신을 바라보고 오른 쪽에 있는 참나무를 수부로 모신다. 산신에게는 예단걸이를 만들어 예단 걸고, 수부에게는 나무둘레에 원새끼줄을 묶어 예단 하나를 걸어둔다. 이렇게 곱게 접어 폐백을 드린 후에는 준비한 음식을 진설하는데, 제물을 진설할 때는 다른 그릇에 옮겨 담지 않고 가져온 그대로 올린다. 제물을 진설하면서 바가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새옹메 뚜껑을 열어 숟가락 두 개를 꽂은 후 젓가락 두 개를 각각의 제물에 놓고 양쪽에 초를 켜고 향을 피운다. 도가가 무릎을 꿇어 앉아 술을 두 잔 올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술은 소주이다. 도가와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절을 재배 절한다. 이어서 모두들 꿇어앉은 후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2014년 7월 초정일 마을제사 도가는 박만호 씨이다. “유세차 갑오칠월 기해삭초 구

일정미 유학 박만호 등 감소고우 치악산령 신위복이 일향강길 백곡풍양 육축번식 만사형통 원자재자 실뢰신우 근이생폐 양재번성 지천우신 상향(維 歲次 甲午七月 己亥朔初 九日丁未 幼學 朴萬鎬 等 敢昭告于 雉岳山靈神位 伏以 一鄉康吉 百穀豐穰 六畜繁殖 萬事亨通 願茲在 茲 實賴神佑 謹以牲幣 釀齋繁盛 祇薦于神 尚饗)과 같이 축문 읽기가 끝난 후 도가는 다시 재배를 하고, 이어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재배를 한다. 도가를 비롯한 몇 사람이 앉아서 소지를 올리는데, 첫 번째는 산신님소지로 “이 소지는 산신님 소지입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와 같이 올린다. 다음으로 도가소지를 올렸다. 이어 마을 구성원들의 소지를 올리는데, 차인표 씨, 당 계장 소지를 올린 후 마을 아래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집들이 있는 순서대로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다 올린 후에 모두들 재배를 한다.

산신에 대한 제례가 끝나면 수부에게 지내는데, 수부는 산신을 모시고 다니는 신이다. 산신에게 진설했던 돼지머리, 순대, 갈비, 새옹메 등을 수부 앞에 그대로 놓고 도가가 술 한 잔을 올린 후 재배를 한다. 이어서 수부소지를 “이 소지는 수부님 소지입니다. 산신령님 잘 모시고 다니십시오!” 하고 인사말을 한 후 도가는 다시 재배를 한다. 이어서 잡귀 밥을 준다고 하면서 메밥, 갈비, 순대, 돼지머리 등을 조금씩 잘라낸 후 소금을 넣어 한지에 싸서 물바가지와 함께 들고 제단 한 쪽에 가서 “잡귀들아, 식사 가져왔다. 이거 먹고 여기 얼씬도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하면서 한 손에 있던 한지에 싼 제물을 던지면서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의 물을 동시에 뿌린다.

이렇게 산신제를 다 마치면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곳에서 정성 드리는 일을 다 마쳤으니 식사들 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산신당 바로 아래 계곡에서 돼지를 잡고 제물을 준비했던 까닭에 그곳에 마을 분들이 다들 모여 있고, 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다. 그리고 산에서는 음복을 하면서 음식을 나눠먹는다. 음복이 다 끝나면 짐을 꾸려서 하산한다.<sup>7)</sup>

곶은치마을과 솔거리마을이 함께 지내는 산신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돼지이다. 돼지도 아무 거나 쓰지 않고 교배를 안 한 수돼지를 쓴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키우던 돼지를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강림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구입한다. 과거에 소 값이 쌀 때는 제물로 소를 쓴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암수 구별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돼지를 지게에 지

7)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2008, 52-53쪽 참조.



2014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제물준비



2014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산에 오르기



2014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진설



2014년 7월 초정일 산신제의



2014년 7월 초정일 산신제 객귀놀이



2014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음복

고 가서 그곳에서 잡은 다음 돼지 머리, 갈비, 다리, 순대 등을 제물로 올렸으나, 최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제를 주관하면서 점차 간소화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돼지 머리, 갈비 한 짝, 순대, 새우메 등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 제를 지낸다. 제의가 다 끝나면 음식은 도갯집

에서 나눠 먹는다. 과거에는 사십 여 가구가 산신제에 참여했으나, 인구가 줄어서 현재는 이십 여 가구 정도가 참여한다. 마을제외는 2014년과 2015년에 김길생 씨가 당 계장을 맡았다. 도가로 선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이 타지 않게 해야 한다. 여자는 순대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만 돼지를 손질하고 삶는 일은 모두 남자가 담당하고, 제당에는 남자만 간다.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럼 다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 온 마을이 다 가지고 갔었어. 삶아 가지고.(겨울에도?) 그럼. 그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힘들다고.(겨울에. 아~) 그러니까 피가 생겨가지고 돼지 머리 한 거지. 원래는 돼지 통으로 가져갔는데. 통으로 다 가지고 가요.(그렇게 되면 여름에만 이제 해가지고 순대 하시고, 겨울에도 순대 하셨어요?) 아휴~ 그럼요. 겨울에는 집에서 하고 도갓댁. 그러면 생기가 맞는 사람을 해지. 그 전에 취제한 사람들은 그 저기 여기서 제복을 다 입고 그걸 다 했어요.(아~ 사진 잘 나오게 할라고? 제복을 입고 해달라고 했구나.) 응. 그래서 나도 가서 했는데.(근데 순대는, 왜 순대랑 다 놓으세요? 머리랑 순대랑 왜 다 하세요?) 순대는 사람이 그 전에는 사십 가구가 사십 몇 가구씩 이렇게...(여기 고든치가?) 고든치, 솔거리랑 2개 반이 합동이 하거든.(여름에는?) 여름에도 다 합동이에요.(근데 겨울에는 안 했잖아요.) 아니. 겨울에도 합동이야. 만날 솔거리랑.(엇그저께 제가 들었더니 겨울에는 솔거리랑 안 하고 여기 고든치만 한다고 하시던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아~ 같이 했군요.) 같이 하지. 근데 저 쪽에는 교인이 많아. 또. 그 솔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지요. 고든치는 이십 칠호인가 되지. 아마.(솔거리는?) 솔거리는 몇 가구 안 되는데.(여기보다 적어요?) 아~ 적지. 적은데 교인들이 있으니까 빠졌거든. 이쪽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그래요? 그것도 참 묘하네. 그건 왜 그러시지?) 옛날부터 교인이 없어. 교회 땡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곶은치·솔거리 산신제 지내는 모습은 예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도가를 선발하는 날 짜, 제물, 제주 등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도갓집에서 옥수수막걸리를 담갔으나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현재와 같이 소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도가 선발을 일주일 전에 했으나 지금은 3일 전에 한다. 그리고 도가는 오랫동안 차인표 씨가 생기와 복덕을 따져서 선정했다. 도가로 발탁되면 도가는 3~4일 전에 자신의 집과 산신당에 금줄을 쳐야 하지만, 지금은 작

은 무례골 산신당에만 금줄을 친다.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 제당 아래 개울에서 음식 준비를 했으나,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연세가 있어서 지금은 마을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올라간다. 겨울에는 도가네나 마을회관에서 모여 제물을 준비하고, 여름에는 마을에서 관리·운영하는 솔거리 공원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수탉지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소를 사용한 적도 있다. 권인식 씨는 군 입대 전인 1950년대에 산신제에 쓸 소를 구입하러 원주에 다녀온 적이 있다. 소 역시 마을에서 직접 잡았으며, 소를 제물로 쓸 때는 내장을 상에 올렸다.

산신제를 위한 계를 마을에서는 당고사계라 하는데, 현재 김길생 씨가 계장이다. 산신제 날을 현재와 같이 음력 정월, 칠월로 잡은 분은 솔거리에 있는 라승휘 씨의 아버지인 라군식 선생이다. 라군식 선생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훈장을 했다. 마을제의를 정월과 7월에 지내는 까닭은, 정월은 그 해의 처음이고, 칠월은 후반기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정월에는 날이 춥기 때문에 제물 준비를 집에서 했고, 7월에는 날이 좋으므로 제당 밑에 있는 계곡에서 음식을 했다.

예전에는 마을 구성원이 많고, 대부분 살림이 곤궁해서 산신제가 있는 날이면 모두들 모였다. 그러니 준비한 음식이 부족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을회의를 통해 한집에 3명까지만 참석해 음식을 먹게 했다. 소를 제물로 쓸 때는 황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자란 중송아지를 마리로 썼는데(이때는 순대가 없으므로 소 내장을 삶아서 순대 대신 진설했다), 현재는 수탉지 혹은 새끼를 낳지 않은 암탉지를 쓴다. 순대는 예전부터 올렸다. 산신제 때 모시는 신은 하나인데, 술을 2잔 올리는 까닭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바가 없다. 산신제의가 끝나면 수부에게도 술을 1잔 올린다. 제물은 계원들이 경비를 모아서 준비하는데, 제의 때마다 ‘당계’, ‘치성계’라 부르는 마을제의 계원들에게 1만원씩 각출한다. 제의를 치르고 남은 고기는 계원끼리 ‘분육’을 한다. 예전에는 모두들 치성계에 가입하여 참여했으나 지금은 희망하는 분들만 참석한다.

도가는 생기복덕에 맞춰 뽑지만, 요즘은 본인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도가를 뽑을 때는 도가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의 생기복덕도 함께 봐야 한다. 혹시 젊은 부인이라면 달마다 찾아오는 손님으로 부정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신제는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지내지만, 마을에 상이 나면 열흘 후인 다음 정일(丁日)로 미룬다.

2014년 8월 4일(음력 7월 9일 丁未) 오전9시에 돼지를 구입하러 갈 예정이다. 돼지 값이 올라서 65만원인데 농장에서 30만원에 돼지를 주기로 했다. 도가인 박만호 씨가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트럭이 있는 선우영수 씨와 돼지(마리)를 구입하러 가기로 했다. 돼지는 솔거리 공원에서 잡는데, 전에는 돼지 잡는 일을 김길생 씨가 모두 다 했지만 올해부터 박만호 씨가 전담하기로 했다. 남자들이 돼지를 잡으면 여자들은 순대를 만든다. 대치마을에서는 돼지를 잡지 않아서 순대에 피를 섞지 않지만 곧은치·솔거리마을에서는 피를 섞는다. 돼지는 잡아서 각을 뜬다. 갈비, 돼지 머리만 삶고 순대를 만들어서 산에 갖고 올라간다. 예전에는 산에서 모든 준비를 했지만 현재는 마을에서 준비를 다 한다. 올 해는 도갓집에 금줄은 치지 않았고, 7월 31일에 김상열 씨와 박만호 씨가 산에 올라가는 길의 풀을 꺾었으며 금줄을 쳤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산신, 도가, 계원들 순이다. 제를 지내는 동안 아래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면 음복을 하고 식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산신제를 며칠 앞두고 초상이 나면 열흘 후로 날을 미룬다.

#### ▷ 2015년 곧은치·솔거리산신제

2015년 정월 마을제의는 2015년 2월 20일(음 1월 2일 丁卯)인데, 제물은 이날 오전 부곡2리 마을회관에서 곧은치·솔거리 마을주민 대여섯 명의 부인들이 준비했다. 특히 도가를 맡은 박만호 씨 어머니 지길녀 씨와 계장인 김길생 씨 부인인 이숙자 씨가 중심이 되어 제물을 준비했다. 마을제의 때는 마리(통돼지)를 썼는데, 이날처럼 마리가 아닌 머리만을 쓰는 일은 흔치 않다. 이번 마을제의는 전날이 설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까닭에 고기의 소모가 적으므로 머리만을 준비했다. 그럼에도 순대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주에 가서 돼지 내장과 선지 등을 설날 전에 구입했다. 순대에는 백김치, 배추, 파, 시래기, 마늘, 고춧가루, 생강 등의 부재료와 양념을 잘 버무려 넣었다.

도가는 작년 2014년 7월 초정일 마을제의 때 도가였던 박만호 씨가 다시 맡았다. 박만호씨는 작년에 이어 올 정월 초정일 마을제사도 도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해에는 정월 초정일 마을제의가 설날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모두들 일찍 집안 차례를 지내고 모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마을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정월에 지내는 경우 순대와 고기 등만을 준비하지만 예전에는 마리를 꼭

잡았다.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나, 얼마 전까지도 마을에 돼지를 키우는 곳이 있어서 제사 때면 그곳에서 돼지를 구입해 썼다.

도가인 박만호 씨는 친구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도가를 맡은 까닭에 가보지도 못했다. 마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내장, 피, 앞다리 하나 등을 구입했는데, 가격만을 따지면 마리 한 마리를 잡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마을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순대를 준비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박만호 씨가 큰 솥에 돼지머리와 앞다리를 넣고 가스불로 끓였다. 순대 소를 내장에 밀어 넣는 작대기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 만들었다. 원래 순대 소를 밀어 넣는 막대는 싸리나무로 만드는데, 이유는 싸리나무가 독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을 계장인 김길생 씨는 마을제의 경비를 방에 계신 분들로부터 만원씩 받았다. 소를 다 넣은 순대는 돼지머리, 앞다리 삶는 솥에 넣었다. 돼지머리, 순대 등이 삶아지는 동안 박만호 씨는 집에 있던 순대를 가져와 참석한 분들과 술 한 잔을 했다. 지당에 2014년 7월에 친 금줄을 아직 있으나 올해 다시 쳐야 한다고 해서 벗짚을 가져와 박재신 씨 등이 원새끼줄을 꼬았다.

제물이 모두 준비되자 도가, 계장, 이장 등이 차를 타고 마을제당 초입에 내려 제물을 어깨에 메고 산에 올랐다. 제당 아래에 있는 개울에서 바가지에 물을 담았다. 제당에 도착해서 바가지 물을 제단에 올린 후 제물도 함께 진설하였다. 한편에서는 작년 금줄을 걷고 준비한 금줄을 새로 쳤다.

제물을 다 진설하고 난 뒤 모두들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고 김상열 씨가 제문을 읽었다. “유 세차 을미정월 병인삭초 이일정묘 유학 박만호 등 감소고우 치악산령신위 복이 일향강길 백곡풍양 육축번식 만사형통 원자재자 실뢰신우 근이생폐 예재자성 지천우신 상향(維歲次 乙未正月 丙寅朔初 二日丁卯 幼學 朴萬鎬 等 敢昭告于 雉岳山靈神位 伏以 一鄉康吉 百穀豐穰 六畜繁殖 萬事亨通 願茲在茲 實賴神佑 謹以牲幣 釀齋繁盛 祇薦于神 尚饗)” 제문을 다 읽은 후 모두들 재배하였다. 이후 산신령을 위한 소지를 이장 김상돈 씨가 올렸다. “이 소지는 산신령님 소지입니다! 마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을 일을 맡아서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어 이장이 도가인 박만호 씨 소지를 올렸다. 그리고는 계장인 김길생 씨가 정리해온 수첩을 보고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면 이장과 김상열 씨 두 사람이 번갈아 소지를 한 장씩 올렸다. “이 소지는 김길생 소지입니다. 그제 우리 회장님이시고 그제 두루두루 잘 되시고 만사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소지는 김호규 소지입니다. 아직까지 총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금줄준비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제물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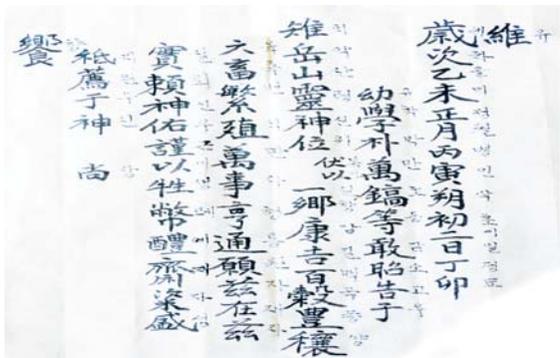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산에 오르기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제단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수부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제문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음복



2015년 정월 초정일 산신제 하산

각으로 혼자 지내는데, 올해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소지는 우리 이장 김상돈 소지입니다. 아까 종이가 안 좋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산신 앞에서 소지 올리기가 다 끝난 후 철상을 하여 그 제물을 수부 앞에 다시 차린 후 도가가 술을 한 잔 올리고 모두 재배를 하였다. 그리고 “이 소지는 수부님 소지올시다. 그제 신령님 잘 모시고 다니고 동네 무탈하게 이 소지 일장으로 알고자 합니다. 백운등천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소지를 올렸다. 이후 제물인 돼지머리의 코, 귀 그리고 순대 등 몇 부분에서 조금씩 떼어 종이에 찼다. 이장이 종이에 찐 제물과 물바가지지를 함께 들고 제당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잡귀들아, 이거 먹구 썩 물러가거라!” 하고 외친 후에 종이에 찐 것을 던지며 물바가지의 물을 뿌렸다. 이렇듯 산치성 마지막에 잡귀신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괘귀풀이’라 그러는데, 잔칫집에도 귀신이 많이 오듯이 이곳에도 잡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주면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장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김상열 씨는 “네, 산신제 끝났어요. 식사하세요!” 하고 마을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계장은 결산을 보고를 하는데, 이번 마을제사에 총 23만원과 소주 등이 들어왔고 남은 돈이 15만 원 정도 있음을 얘기했다. 그리고는 제의에 참석한 분들이 진설했던 제물로 음복하는데, 날이 차가우므로 가져간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피워 주전자에 국물을 넣고 데운 후 순대와 고기를 국물에 담갔다 먹었다. 음복을 하면서 마을제의에 대해서 로들 얘기했다.

2015년 7월 초정일 마을제의는 2015년 8월 19일(음 7월 6일 丁卯)에 있었다. 제의 이틀 전인 8월 17일 오후에 계장인 김길생 씨, 이장인 김상돈 씨, 김상열 씨, 주상돈 씨 등이 지당가는 길을 제초기 및 낫으로 길땀이를 했다.

제의 당일인 8월 19일 오전에 김길생 씨와 주상돈 씨는 강림 돼지농장에 가서 돼지 한 마리를 구입해 왔다. 제물 준비는 술거리 공원에서 하는데, 이번 마을제의 도가인 선우 영수 씨 부인이 순대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놓고 배추를 손질하자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순대에 들어갈 배추, 시래기, 파 등을 잘게 썰었다. 9시 30분 경에 박만호 씨가 돼지를 잡아 손질하고 김상돈 씨, 김상열 씨, 도가인 선우 영수 씨, 박재신 씨 등이 냇가에서 내장을 손질했다. 돼지 족은 예전부터 도가 뭍이라 한다.

큰 술을 두 곳에 걸어두고 한쪽에는 머리, 다른 한쪽에는 갈비와 다리를 삶았다. 내장은 굵

은 소금으로 여러 번 비벼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손질이 끝난 내장을 여성들에게 전하면 여성들은 내장에 깔대기를 대고 소를 넣으며 순대를 만들었다. 순대를 갈비 넣은 술에다 넣고 함께 익히며, 나무 끝을 날카롭게 해서 순대가 터지지 않게 곳곳에 구멍을 내주었다.

제물이 준비되자 하나둘 큰 대야 여러 곳에 담았다. 오늘은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 지난번보다 제물을 넉넉히 가져갔다. 트럭과 승용차 등에 나눠 타고 제당 초입에 도착하여 제물은 지계에 지거나 몇몇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산에 올랐다. 지계는 김상열 씨가 먼저 지었다. 계장인 김길생 씨는 배낭을 메고 톱을 들고 산에 올랐다. 톱은 지난 번 길 닦을 때 봤던 소나무를 베려고 함인데, 소나무가 길을 가로 막고 있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산에 오르면서 예전에는 마리를 지계에 지고 가서 계장 아래에서 잡았다는 얘기, 산에서 잡아 그곳에서 제물을 준비하려니 술, 그릇 등을 다들 짊어지고 가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 등을 하며 산에 올랐다. 중간쯤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지계를 김상돈 이장이 지었다. 조금 오르며 김길생 씨가 길을 막은 나무를 자르느라 잠시 쉬었다. 계장 아래 개울에 도착하여 바가지에 물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진설했다. 산에 같이 오른 분들 소지를 올려주려고 김길생 씨가 이름들을 적었다. 예단 짚는 막대를 준비하여 기존에 있던 예단 곁이에 예단을 걸고 고정시켰다. 초를 맨 앞 양쪽에 하나씩 켜고, 삼열로 진설했는데, 앞에 메밥, 가운데에 좌로부터 돼지머리, 갈비, 순대 및 간, 뒤에 물을 진설했다. 제물은 포장만 벗겨 담아온 그릇 채로 진설했다. 술 두 잔을 물 담은 바가지 앞에 두고 수저 두 벌을 순대가 있는 그릇에 놓았다.

도가는 자리를 깔고 곁에 도포를 입었다. 시작 하자고 하면서 향 세 개를 피웠고, 향을 피운 도가는 먼저 재배를 했다. 위에 있는 술잔을 도가가 받아, 옆의 보조자가 술을 따르자 '상신할 거니까' 조금만 따르라고 했다. 조금 받은 잔을 바닥에 조금씩 부어서 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빈 잔을 제단에 다시 올리고, 제단에 있던 다른 빈 잔도 받아 앞에서와 같이 술을 조금 받아 세 번 나눠 바닥에 붓고는 빈 잔을 다시 올렸다. 그리고는 도가가 혼자서 다시 재배를 하고, 이어서 도가를 제외한 참석자 모두 재배하였다. 이후 도가가 무릎 꿇어 두 잔에 술을 따라 올렸다. 위에 있던 보조자는 수저를 바가지 물에 담갔다가 분리하여 젓가락 한 쌍은 갈비에, 한 쌍은 머리에 두고 메밥 뚜껑을 열어 수저 두 개를 밥에 꽂았다. 그리고 도가는 축문을 읽었다. 축문을 읽을 때는 주위에 있는 분들 모두 함께 무릎을 꿇었다.

“유세차 을미칠월 임술삭초 육일정묘 유학 선우영수 등 감소고우 치악산령 신위복이 일  
향강길 백곡풍양 육축번식 만사형통 원자재자 실뢰신우 근이생폐 양재번성 지천우신 상향  
(維 歲次 乙未七月 壬戌朔初 六日丁卯 幼學 선우영수 등 敢昭告于 雉岳山靈神位 伏以 一鄉  
康吉 百穀豐穰 六畜繁殖 萬事亨通 願茲在茲 實賴神佑 謹以牲幣 釀齋繁盛 祇薦于神 尚饗)”

축을 고한 후 모두 재배했다. 이어서 도가가 산신 소지를 올렸다. “이 소지는 그제 산신령  
님 소지올시다. 이렇게 끈은치 술거리 양 부락에서 정성을 모아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오니,  
흠향 강축을 잘 하셨으면 소지 일 장 백운등천 하시옵소서. 소지 일장으로 길흉화복 선불선  
을 알고자 합니다!” 소지가 높이 잘 오르자 “야 잘 잡수셨데!” 웃음을 띠며 박수를 쳤다. 제  
단에 있던 술을 도가와 이장이 음복을 하고 제물 모두를 수부로 모시는 나무로 옮겼다. 제물  
은 좌측부터 머리, 순대, 갈비 등의 순서로 놓았고, 밥과 물은 앞에 두었다. 수저는 한 벌, 술  
잔도 하나만 올리고 도가가 재배를 했다. 도가의 재배가 끝난 후에 수부 소지를 올렸다. “이  
소지는 그제 수부님 소지올시다. 신령님께 정성을릴진데 수부님도 일향흠향 잘 하셨습니  
까? 소지 일장이 백운등천 하시옵소서. 소지 일장으로 알고자 하는 바이옵니다!”

수부 소지 올리기가 끝나자 다시 신령님 제단 앞으로 가서 개인 소지를 올렸다. 먼저 도가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길뒹이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제물준비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산에 오르기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제물진설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소지올리기

소지를 도가인 선우영수 씨가 자신의 소지를 직접 올렸다. “이 소지 그저 도가 정성을 맡아 하는 사람인데, 그저 일향흠향 잘 하시어 백운등천 하시옵소서. 소지 일장으로 알고자 하는 바이옵니다.” 이후 계장인 김길생 씨가 일러주는 이름 순서대로 도가 선우영수 씨, 이장 김상돈 씨, 김상열 씨 등 세 사람이 소지를 나눠서 올렸다. “이 소지는 김길생 소지올시다. 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지는 주상돈 소지올시다. 객지에서 들어와서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항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시기를 이 소지 일장으로 바라고자 합니다!”, “이 소지는 백명주 소지올시다. 국리공원에 가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의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객귀물리기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음복



2015년 7월 초정일 산신제 하산

서 근무하고 계시고 혼자 사는데 하여간 모든 게 잘 되시게 바라웁고 건강하게 다 도와주십시오!”, “이 소지는 서형은 씨 소지올시다. 항시 강림면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는 화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개인소지를 올렸다.

소지 올리기가 끝난 후에 모두를 함께 재배를 했다. 이후 제물에서 잡귀신들을 위해 조금 씩 떼어 소금과 함께 한지에 썼다. 이장이 오른 손에 물바가지, 왼손에 잡귀신을 위해 썬 제물을 들고 제당 한쪽 골짜기에 서서 “잡귀님들아, 이거 먹고 썩 물러가라!”고 외친 후에 양손의 것을 앞에다 뿌리고 던졌다.

“네 전대요, 식사하세요! 네네.” 김상열 씨는 마을에 전화를 해서 제의가 끝났음을 알렸다. 그리고 산에 있는 분들은 모여 음복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음복을 하고 다시 짐을 꾸려 지게와 어깨에 메고 하산하였다.

## 제2절 가정신앙

### ▷ 산치성

○○○ 씨는 시어머니가 계실 때 10월에 날을 받아 해마다 개인치성 드리는 곳에 가서 정성을 드렸다. 이 정성이 끝난 후 저녁에 집안먹을 했다. 산치성 드리는 곳은 무례마을 골짜기에 있는데, 새벽에 올라가 창호지를 걸고 수저와 메밥을 놓고 비손을 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도 몇 번 갔으나 이제는 힘이 들어서 가지 않는다.

## ▷ 삼신

마을에서는 보통 출산을 한 후 3일이 되는 날 아침에 쌀밥과 미역국을 끓여서 상에 받치어 산모 머리맡에 놓고 삼신할머니에게 빌었다. 비는 것은 시어머니가 해주었다. 하지만 이것도 형편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냉수 한 그릇을 떠서 산모 머리맡에 놓고 빌기도 했다. 친정에 있을 때는 할머니께서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것을 봤는데, 시집에서 하는 하지 않았다.

## ▷ 성주

곶은치·솔거리마을 각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기적으로 모셨던 신은 성주이다. 보통은 안택, 집안떡 한다고 하는데, 음력 10월 추수가 끝나면 날을 받아 정성을 드렸다. 이때 정성을 드린 후 한지로 예단을 접어 실타래로 묶어 기둥이나 모서리에 걸어둔다. 지금도 가정에 따라서는 지내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 그 떡의 양이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안택을 한 후 떡을 주위에 돌리기 위해 많은 양을 했으나 지금은 가족끼리 먹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다.

떡을 할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을 하는데, ‘추수 후 팔시루떡, 백설기를 해서 올린다. 팔은 조상을 뜻하고 백설기는 고사를 지낸다 해서 올린다.’, ‘떡은 마구설기(콩을 넣고 버무리), 팔수수떡, 백설기를 했다.’ 와 같이 집안에 따라 떡의 숫자가 다르나 백설기와 팔떡은 어느 집에서나 준비했다.

현재 성주를 모시지는 않지만 추수가 끝난 후에 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집안에 떡시루를 놓고 간단히 비손을 한 후 떡을 떼어서 몇 곳에 두었다가 가족끼리 먹는다.

○○○ 씨 친정과 시댁에서는 성주를 모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때 성주를 계속 모셨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수 후 음력 10월에 날을 받아서 ‘집안떡’을 해서 마을에 돌렸다. 백설기와 팔시루떡을 1말씩 했는데, 백설기는 삼신시루, 팔시루떡은 조상님 시루라고 했다. 시루는 성주에 갖다 두고, 조양에는 떡을 조금 떼어서 갖다 두었다. 외양간에도 떡을 조금 떼어서 갖다 두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찰강냉이떡을 돌렸다. 찰강냉이를 디딜방아로 뺨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맷돌로 곱게 갈아서 채에 친 다음 물에 우려서 떡을 만든다. 물에 잘 우려야 냄새도 안 나고 하얗게 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찰강냉이떡을 하려면 며칠이 걸렸다. 현재는 만들어 먹지 않는다. 이 떡이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고 시방은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예전에는 옥수수를 수확 후 삶아서 그릇에 담아 장독, 성주(문)에 갖다 놓았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추수 후에 텃고사를 지냈는데, 이를 첸신(천신)이라고 했다. 쌀을 디딜방아에 빻아 시루에 찌서 팔시루떡을 한 다음 새벽에 터에 놓고 빌었다. 하루는 떡방아를 찧어 놓고 마실을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죽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한테 말을 하니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말을 잘못 했나 하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에 떡시루를 찌는데 계속 김이 새니까 시어머니가 시루에 대고 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절을 하라고 시켰다. 그래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하고 절을 했다. 그래도 김이 계속 새서 결국에는 그냥 터에 갖다 놓고 빌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루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김이 계속 새 것이었다. 떡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

### ▷복술

마을에 복술 하는 사람은 없어서 필요한 경우 다른 동네에서 모셔와 경을 읽었다. 곧은치 마을에서는 경쟁이가 와서 경을 읽는 일은 드물었고, 주로 책을 보거나 육갑을 짚는 분을 통해 개인이나 가족들의 길흉을 점쳤다.

남편이 남의 집에 모내기를 하러 갔다가 아파서 돌아온 일이 있어요. 옥수수밥을 끓여서 먹이니 괜찮아졌는데 밤만 되면 자꾸 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마을의 복술이(책보는 분)에게 물으니 섬살을 했다면서 양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밥을 3점시 담고 남쪽으로 열 몇 발자국 간 다음에 밥을 버리고, 또 나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가면 괜찮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밤에 남편 몰래 밥상에 밥을 올려서 가다가 그만 넘어졌네. 무서운 마음에 나가던 길로 다시 집에 오다가 괜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다른 집에 가 놀다가 잠이 들어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괜찮다는 거야. 거 참 신기하더라고.

### ▷쥐밥 주기

쥐가 논이 벼를 갉아 먹어서 시어머니가 밥을 갖고 논둑에 두고 비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시어머니는 “서생원님, 서생원님. 이 밥 잡수시고 벼는 자르지 말라고” 빌었다.

## ▷기름 냄새 풍기기

예전에 어떤 집이 조밭에 가서 조농사가 잘 되라고 부침개를 부쳐서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 제3절 기우제 및 기후예측

하지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구성원은 부곡계곡에 올라가 돼지머리를 놓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40년 전까지 했다. 지금은 부곡저수지가 있어 어지간한 가뭄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2014년 여름 및 2015 봄 가뭄이 몹시 심하여 부곡저수지 물이 거의 바닥을 보일 정도였다. 그래 몇몇 집에서는 개울바닥에 있는 물을 양수기로 퍼서 밭에 물을 대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뭄이 와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우제를 지내자고 하는 분들이 없다.

부곡리의 개울은 건천이다. 그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냇가에 물이 없어 빨래하기도 어려웠고, 심지어 집에서 먹을 식수도 부족하여 멀리 가서 길어오기도 했다. 이처럼 날이 몹시 가물면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개울에 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 마을 앞에 있는 형제봉에 구름이나 안개만 끼면 금방 비가 온다.
- 가을에 갠 무 뿌리가 길면 그 해 겨울이 춥다.
- 단옷날 비가 오면 마흔닷새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 초복에 비가 오면 삼복에 비 온다.
- 찢레꽃 필 때 비가 오면 삼복에 비가 온다.
- 안달미(소가 좋아하는 풀)가 빠죽하면 늦장마가 든다. 안달미, 억새, 찢르기 등 세 가지 풀이 있는데, 안달미는 연해서 소가 좋아하는 풀이다. 그런데 안달미는 영양가가 없다고 한다. 영양가로 따지면 세 가지 풀 중에서 억새가 가장 많다고 한다.
- 시루봉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 대치 마을에서는 원주 신림 성남으로 넘어가는 재가 컴컴하면 비가 온다.
- 예전에는 아이가 트림하면 비가 온다고 했다.



8장 민속놀이

## 제8장 민속놀이

곧은치·솔거리마을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는 다른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산간 마을이어서 그 놀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 주로 여성들의 놀이가 조사되었는데, 그 종류가 많지 않다. 남성들의 경우 산에 나무하러 가서 놀았음직한 장치기, 지계행상 그리고 비사치기, 고누놀이, 장기, 바둑 등 전통 놀이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 ▷먹지차기

땅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발로 돌을 차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놀이이다.

### ▷복놀이, 복달임



복놀이 삼계탕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복날에 ‘복놀이’, ‘복달임’ 한다며 냇가 외만 데 가서 놀았다. 그때는 시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마을에 경로당이 없을 때 그리했다. 그리고 복날에는 남자들이 모여

서 개고기를 먹으며 천렵을 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 모여서 삼계탕을 끓여 먹는다.

가재는 된장을 넣고 볶아먹고, 많이 잡으면 가재를 통째로 찜어서 계란을 풀어 찌개처럼 해 먹었다. 지금은 가재가 귀하다. 가재와 뱀장어는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까닭에 전기와 관계가 있다. 전기가 들어온 이후 이들이 없어졌다. 마을 냇가에 있는 물고기 중 뚝지(뚜거리, 꼭저구, 동아리)와 꺾지가 단단하고 고소해서 맛있다. 이 고기는 일급수에서만 사는데, 이 물고기는 매운탕도 좋지만 머리와 껍질을 벗겨 생으로도 먹는다.

### ▷통곱살이

소꿉놀이를 이르는 것으로, 자질구레한 작은 것들을 이용하여 반찬도하고, 밥도 지으며 살림살이 놀이를 했다.

### ▷호미씻이

논농사 일을 마치면 냇가(현재 솔거리 공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국수와 막걸리를 먹으며 농사 얘기도 나누며 하루 놀았다.

### ▷그네뛰기

단오 때 밤나무나 소나무 등에 묶어서 그네를 탔다. 그네를 타면서 “우두 그네야~ 춘천이야~”, “수리취떡이야~” 하면서 그네를 뛰었다. 남녀 모두 그네를 뛰었고 두 사람이 타는 것은 ‘쌍그네’ 라고 하는데, 남녀가 함께 타지는 않았다. 여자들은 꼬리치매뒤쪽이 트여 있는 치매를 입고 탔다. 한때 마을에 그네뛰기 시합을 했는데, 상품은 양동이였다.

### ▷널뛰기

널뛰기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널을 뿔 때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을 목발 짚는 사람이라고 한다.

### ▷다리빼기 놀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뺀어 서로 상대방 다리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구만두 짹 벌려 생감주”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손으로 다리를 차례로 짚는다. 그렇게 짚어가다가 마지막 ‘생감주’에 손이 가는 사람이 다리를 구부린다.



천렵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다리가 남아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다. 벌칙은 노는 사람들끼리 미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천렵

단오 때 여자들은 그네를 타고 놀지만, 남자들은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서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놀았다.

### ▷줄넘기놀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노래를 불렀으나 해방 후에는 다양한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줄넘기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줄넘기는 돌려주는 사람이 잘 돌려줘야 한다.

### ▷고무줄놀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노래를 불렀으나 해방 후에는 다양한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고무줄은 2000년대까지도 아이들이 많이 놀았으나 지금은 아이들도 즐기지 않는다. 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한 시대에 따라 즐기는 노래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자유의 길’ (무찌르자 오랑캐~), ‘고향의 봄’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

### ▷자치기

장치기는 마을에서 잘 하지 않았고, 자치기를 많이 했다. 작은 것을 메뚜기, 긴 것은 잣대라 한다. 메뚜기는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반 뺨 정도 잘라 양쪽 끝을 어긋하게 잘라 만 든다. 자치기 놀잇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을 세로로 흙을 판 다음 그 위에 메뚜기를 가로질러 놓고, 잣대를 흙에 넣은 후 힘껏 위로 치켜 멀리 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땅에 조그맣게 원을 그린 후 그 안에 메뚜기를 놓고 잣대로 어긋하게 자른 메뚜기 끝을 쳐서 위로 올린 다음 잣대로 뛰어오른 메뚜기를 쳐서 멀리 가게 방법이 그것이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면 편을 가르른 후 100자, 50자 등 팀 규모에 맞게 잣대 수를 정한다. 그리고 팀별로 메뚜기가 날아간 거리를 잣대로 재어서 합산한 후, 미리 정한 잣대 수에 먼저 이르는 팀이 이긴다.

### ▷제기차기

구슬치기는 하지 않았고 제기차기는 많이 했다. 제기는 엽전 3개를 함께 포개어 형겼으로 엽전 구멍에 꿰어 넣은 후 형곶 끝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너털너털하게 날개를 만들었다. 엽전 3개를 함께 하는 까닭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제기가 잘 차지고 웬만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곶으로 한 까닭은, 형곶이 종이보다 질긴 이유도 있지만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 해진 옷의 천으로 많이 했다. 구슬치기나 자치기는 10살 안팎으로 놀았다.

### ▷ 딱지차기

딱지차기는 아이들이 많이 했다.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묵은 책 등이 있어서 그것으로 딱지를 접어서 놀이를 했다. 그래 어떨 때는 방에 딱지가 수묵이 쌓여 있어 그것으로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했다.

마을에서 딱지차기를 잘했던 친구 원용문이 있었는데, 당시 친구들에게 짓궂은 짓을 많이 했다. 딱지차기를 할 때면 학교에서 나눠줬던 건빵과 우유가루를 걸고 내기를 많이 했다.



## 9장 민속문학

제1절 설화

제2절 민요

제3절 생애사

## 제9장 민속문학

곧은치·솔거리마을에 전승되는 민요는 주로 가창유희요이다. 마을에서는 논밭을 갈거나 논을 삶을 때 호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모는 소리가 널리 불리지 않았다. 기껏해야 ‘이랴’, ‘돌아서’ 정도이다. 이러한 점은 강원도 산간마을 대부분이 거리소로 밭을 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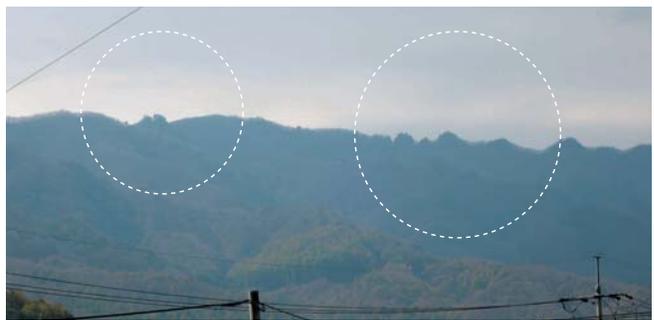
그런가하면 현재 마을에 논이 많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1990년대 부곡저수지가 생기고 농지정리가 된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논들은 대부분 다랑논으로 큰 것이 2마지기짜리도 드물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모를 심고 논매는 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모심기와 논매기는 가족 단위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공동체인 두레 및 품앗이 작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지 않아 모심기와 논매기에 따르는 소리가 발달하지 못했음을 짐작한다. 부곡리에는 모심는소리를 부르지는 않았고 다만 논매기할 때 애벌소리인 ‘단허리’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리 또한 이후 전개되는 농촌의 기계화영농에 과묵혀서 제대로 전승되지 않고 있다.

전설은 지명과 관계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명의 뜻을 글자 그대로 따거나 한자를 풀이하여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제보자마다 큰 차이가 없다. 마을에는 운곡 원천석과 태종이 관련된 태종대, 횡지암, 변암, 노고소 등의 이야기와 나옹소 이야기가 많이 전승된다. 특히 나옹소 이야기를 구연하는 중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흙물이 나왔다는 점을 여러 분들이 강조한다.

### 제1절 설화

#### ▷형제봉

형제봉은 봉우리 두 개가 똑같이 생겨서 형제봉이다. 형제봉 옆에 삼형제봉이 있다.



형제봉과 삼형제봉

**▷곧은치**

곧은치는 끝이 곧아서 곧은치이다. 길이 곧장 쪽 올라간다고 해서 곧은치다.

**▷국수당**

국수당은 원주 행구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던 서낭이다. 곧은치재, 제비바위 밑 길에 돌을 쌓아 놓았었는데, 등산로를 만들면서 없어졌다.



국수당 자리

**▷무레골**

무레골은 가다가 물을 먹었다고 해서 무레골이다. 또는 예전에 보를 막아서 논농사를 지어서 무레인데, 부곡저수지가 생긴 뒤로 그 보가 없어졌다.

**▷다래골**

다래골은 가다가 다래를 따먹어서 다래골이다.

### ▷가래골

와가지고 가래골이라는 데 그전에 거기 옛날에는 갈 자리를 내가지고 살았잖아. 거기가 그전에 갈밭이 됐대. 그래서 거기는 또 가래골이라고 하고 갈밭 많았다고 해서 가래골이라고 그러고.

### ▷가마골

또 조금 올라오다가 보면 가마골, 거긴 가마소가 있어. 가마 생기듯 했어. 그걸로 해서 가마골이라고 하고.

### ▷솔거리

솔밭이 많아서 솔거리. 옛날엔 소나무가 많았다구.

### ▷횡지암

또 올라 와가지고 태종대 있는 데서 일로 들어가는 길 있죠? 일로 올라오는 길 있고, 글로 들어가는 거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홍지암(횡지암)이라 그래. 거기 왜 그렇게 지었냐고 하면 말을 타고 글로 들어가던 그 왕이 혹시 또 글로 들어갔다 찾아 들어갔다고 해서 홍지암이라고 그래. 또 기냥 들어가서 못 찾고 왔지.

### ▷말치골

태조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뭐야 저거 그 왕원천석을 잡으러 나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일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물어 물어 와가지고 또 혹시 글로 갔나 싶어서 말을 타고 뛰었다고 말치골이라는 데. 그 태종대 밑에 고라데이, 거길 말치골이라고 그래.

### ▷제비바우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아서 명명되었다.

### ▷시루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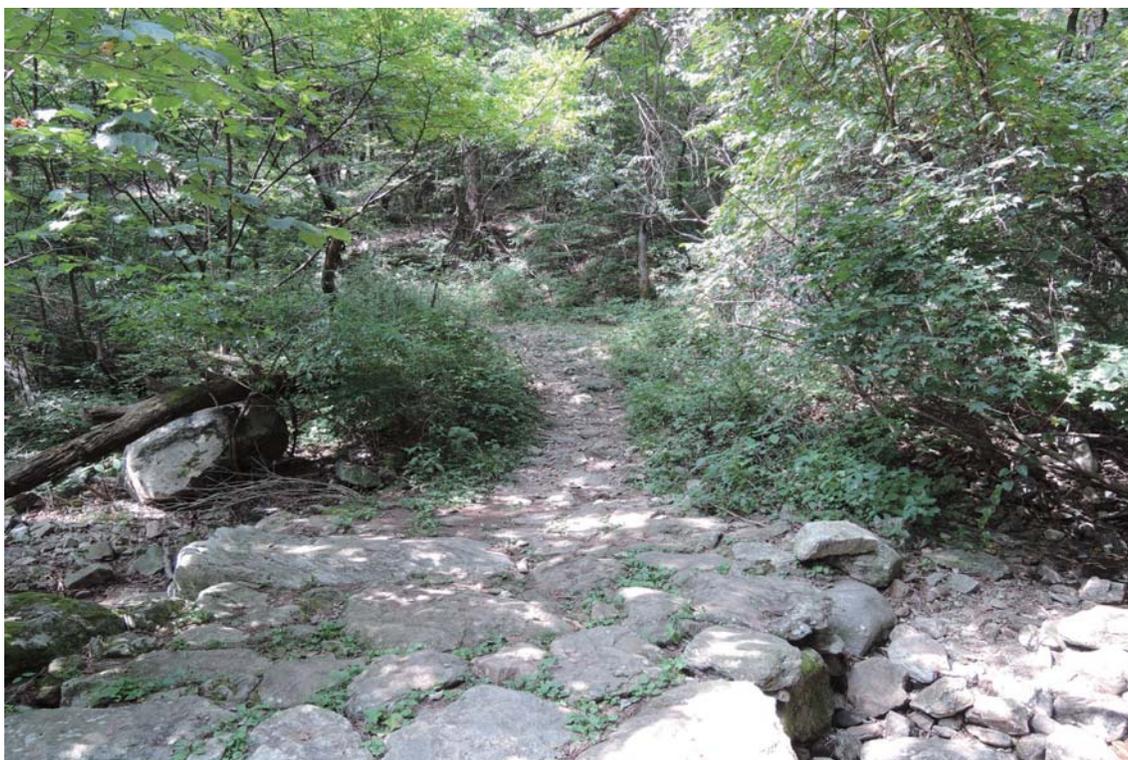
산이 마치 시루처럼 생겨서 이름 지었다.

### ▷작은무례골

치성드리는 골짜기를 ‘작은무례골’ 이라 하는데, 위의 큰무례골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무례골이라 한다. 산치성 드리는 곳도 작은무례골이다. 치성 드리는 바위는 이름이 따로 없이 그냥 당, 서낭당이라 한다.

### ▷큰무례골

작은 무례골에서 곧은치를 따라 더 올라가면 큰무례골이 있는데, 그곳에 1개 반이 살았다. 원통에도 1개 반이 있었고, 부석동은 저수지 있는 데가 부석골이고, 이곳 큰무례골에 있던 마을은 원통마을이라 했다.



큰무례골 초입

### ▷굴바우

곧은치를 올라가다 가재바우 가기 전에 굴바우가 있다. 젊은이들이 바위에서 쉬며 심심하니까 돌을 던져서 엮고 그랬는데, 쉽게 엮어지지 않는다. 그게 전해져서 돌을 한 번 던져서



굴바우

그 바위에 엎히면 아들 낳는다는 소문이 나서 아들 낳는 바위로 변했다. 예전에 마을 여자들도 나물을 뜯으러 다니다 돌을 던진 경우가 많았다. 바위는 길옆에 있고 아래쪽이 커다랗게 파여서 소나기를 피하기가 알맞다. 그대 바위가 굴처럼 파였다고 해서 굴바우라 한다.

### ▷가재바우

굴바우를 지나 조금만 가면 왼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그곳에 마치 방아확처럼 깊게 파인 바위가 있다. 큰 비가 올 때면 거센 물에 가재가 쓸려가다가 그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방아확처럼 생긴 구멍이 깊어서 한번 들어간 가재는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르면 바위가 미끄러워 스스로 나오질 못한다. 그대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큰 비가 오고나면 가재바위에 가서 가재를 많이 잡아왔다. 부곡초등학교가 있을 때면 해마다 소풍을 가재바위로 갔는데, 주변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쉴 수 있다.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은 가재바위로 소풍을 많이 다녔다. 안흥에서도 걸어서 이곳 가재바위로 소풍을 왔다. 몇 해 전에도 원주 태장초등학교 아이들이 행구동에서 곤은치재를 넘어 가재바위에 와서 놀다가 곤은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가재바우

#### ▷대궐터 이야기

부곡에 대궐터가 있었다. 박씨 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되려고 대궐을 지었고 병사도 모집했다고 한다. 해방되기 2년 전에 김상태 씨 아버지가 대궐의 자재를 뜯어다가 집을 지었다.

#### ▷나옹소 이야기

나옹이라는 고승이 제자를 데리고 절터를 잡으러 다니다가 제자가 목이 마르다하여 지팡이를 꽂았는데 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 그 자리가 현재 치악산 송어 양식장 횃집이 있는 곳이다.

옛날에 스님이 상원사를 가는 길에 쉬어 가다가 목이 말라서 땅에 지팡이를 꽂으니 물이 나왔다.

#### ▷나옹대사가 뚫은 나옹소

나옹소라는 게 늪소자를 써서 나옹소예요. 나옹소라는데 나옹대사가 지팡이를 꽂았었다가 빼갔고 나왔다 해서 나옹소예요. (아니, 지팡이를 왜 난데없이...) 아니, 물맥을 찾아서. 수맥을 찾았대요. 그게 정확한 구전은 모르고 상원사가 처음에 창건한 게 신라 때거든요. 상원사라는 게. 그런데 나옹대사는 고려 말 사람이예요. 고려 말 사람인데 그 무렵에 제가 들었는데 원천석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아마 그때 고려 말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아마 같이 여기서 지금 말로 따지면 교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천석 선생은 저 강림 우체국 자리에 강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방원 교육했다니까. 나옹대사가 원주에 나옹정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랬듯이 여기 왔다 갔으니깐 그 도술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했겠죠. 그런데 상원사를 옛날에는 머야 암자라고 할까? 그걸 좀 키우려고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늪지대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마른 땅이 없고, 그래서 그 물을 좀 빼서 어디로 해 가지고 마른땅을 이렇게 말하자면 포크레인으로 거기 흙을 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맥을 찾아서 내려온 게 여기래요. 그런데 일로 물을 다 돌리면 또 상원사에 물이 안 나오면 절로써 가치가 없잖아요. 상원사에 물 나오는 걸 열로 봤을 때 한 3분의 1은 거기에 두고, 나머니 3분의 1은 여기로 빼고 3분의 1은 신림으로 돌렸다는 얘기에요. 전설에. 그래서 이 물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상원사에도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나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살던 노인들 얘기가 나옹소라면서 상원사하고 여기하고 물맥이 한 라인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머 계량컵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유리 소주병 있잖아요. 한 되짜리. 그걸 가지고 가서 상원사 물을 가득 채우고 여기서 이 물 가득 채워 가지고 딱 달아보면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물마다 무게가 있어요. 어떤 물은 싱겁고 어떤 물은 좀 쓴물. 강한 그런 알칼리 저 칼슘 있듯이 이 물이 다른 데보다 좀 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다고 해서 나옹소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원사 증축을 하러 오야지들, 건설하는 오야지들. 목수나 머 미장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옛날에 오야지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주먹밥 싸가지고 올라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좀 식사를 하고 갑시다 이려고 앉은 자리가 여기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머 이것 저것 보다가 지팡이를 꽂았다가 뺐는데 물이 나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나옹소라는 거는 그 양반이 해갓고 물이 나왔다 해서 그때부터 나왔다 해서 나옹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원사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권오걸)

### ▷ 흙탕물을 내뿜은 나옹소

전설은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전 벼들밭이었었다. 벼들밭, 낭구 숲인데. 그러니까 저 상원사에 스님이 여 마을을 내려왔다가 아마 그리 길이 딱 났었나보지. 상원사 올라가는 길에 거 앉아 쉬다가 지팡 막대기루 콧 찌르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막 치솟드래. 그레가지고 거기

인제 개천이 되고, 샘물이 되고 그랬는데. 그기 6.25 난리가 나, 6.25 난리 나던 해에 우리 시어머이가 고 등 너머에서 우리 식구들이 살았는데, 아침 몇 시 다섯 신가 뭐 몇 시 돼서 물을 푸러 나오니까 그냥 진흙물이 이렇게 끓어 올르더라. 그러니 그 물이 용한 물이래요. 진흙물이 막 끓어올라서 물을 못 퍼서 들어갔다 한 10시 돼서 나오니까 그때서 가라앉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구 그기 다 망가져서 그렇지, 그전에는 거기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인제 일을 하거나 김을 매거나 그러면 동우 갖다 다 점심 물 퍼다 먹었어요. 그 물이 차가웠어요. 지금 저 그것이 회를 하기 때문에 다 망가트렸잖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안 보이잖아. (그전에는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럼.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서 뭐 부정하게 개 같은 거 뭐 해먹는 거 못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막하니까. (그런데 그걸 뭘 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나요?) 나옹수. (이거는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예, 난 못 봤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지. (김복연)

#### ▷목재를 운반해 준 나옹소

그나옹소 물은 저 상원사, 상원사에 그 옛날 원효대사 그 양반이 다니러 왔다가 지팡이로다가 뭐 어떻게 뚫었는데 우리 이리 나옹소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 상원사에서. 그래가지구 저기 각림사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몰라? (네 각림사) 네 각림사 없어졌는데 그 각림사라는 절을 절 적에 이나옹소 물을 이용해서 그 ○반해서 그 잣낭기구 전낭기구 이따구로 해서 물로 띄워서 내렸다가 지었다 그래요. (아,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물에 띄워서?) 네 네 네. (그럼 적심을 해서 띄웠단 말이죠?) 네 누군가 절을 지을라 하는데, 운반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네, 그럼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를 이용해서 낭구를 해서 냐다가 그 물루다 띄워서 각림사까지 운반했다 그래요. 그 정확한지는 몰르고 또, 나옹소 물은 원효대사가 상원사서 지팡이로 뚫었다는 게 나와. (여기서 뚫은 게 아니라?) 예, 상원사에 뚫었다 그래요. 지팡이로, 원효대사가. 각림사 짓는 목재 운반을 나옹소 물로 했고. (정연오)

#### ▷영험한 나옹소

나옹소 물이 나라에서 그런 무슨 일이 있을 시에는 그 흙물이 나온다는 것이 있어요. 뭐 본 거는 없는지 몰라도 그 6.25 나던 해도 흙물이 사흘이 나오고 6.25가 터졌다 그래요. 그나옹소 물이. 흙

물이 이렇게 나오드래요, 사흘 동안.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도 뭐 흠물이 났다고.(정연오)  
 그 왜정 때는 우리 어려서 잘 몰랐었는데, 그 전에 거 있던 사람은 하여간 흠물이 나와 가지고, 먹지 못하는 물이 나왔다 그러드라고. 그 삼 일간 나오다가 왜정 해방되었다 그러드라고.(주윤철)

▷운곡 원천석과 이방원

그 방원이, 태종이 그 선생이, 스승이 원천석인데, 그 원천석이가 태종을 갈쳤단 말이에요? 그 원천석이 그양반이 지혜가 깊었나보다라고요. 그 이렇게 보니까 형제간에 무슨 골육경쟁이 날 거 같아서, 그래서 “에이 내가 그까짓 거 그만 보고 피신을 해야겠다.”고 말을 타고. 말하자면 피신을 오는데 태종이 선생을 놓치면 안 되겠으니깐 따라왔다 그래요. 태종도 말을 타고. 그 ○○오다가서는 그 원천석 그 분이, “이 뒤 말탄 이가 따라 올 테니, 내 이 골테기루 들어갔다 그러라구” 그 노구할머이가 빨래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구서, 아 좀 있다보니까 그 방원이 따라, 뒤따라 오면서 “여기 말 타고 간 우리 선생님 안 봤냐?” 하니까 “이 고라니로 쪽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황지암이라는 데를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빗길 황자 황지암이고, 그 원천석이는 이제 그 골로 안 들어가고 변암골로 들어갔대요. 그리 들어가 움막을 짓고 있다가, 또 저 변암이라는 데 갖바위가 있는데 가 공부를 하고, 또 잘 때는 거 내려와 움집에서 인제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방원이가 찾아오다 찾아오다 모르니까 찾아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 저 원통이라는 델 올라갔대요, 곧은치 재 밑에. 거 가니 만날 길도 없고 “야, 우리 선생님 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겠구나!” 그래 돌려갖고 내려오다가 이 아래 태종대라는 곳 있죠?(네 네.) 거기 가서 앉아서 쉬구, 저 배향산이라고 있고, 저 두산리 가는 데. 저 배향산 그리 대고 절을 했어요. 선생님 잘 가시라고. 그래서 배향산이라는 곳 있고, 그래 태종이만, 방원이만 고만 돌아갔다는 거여. 그래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그런데 노구 할머니는?) 노구할머니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방원이가 그 나라 왕이니까, 임금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살면 뭐 하나!” 죄책감에 그 빠져 죽어서 노고소가 된 거죠. 노인이 빠져 죽은 데라 해서 이름이 노고소라 하지.(정연오)

▷태종을 피한 운곡 원천석

그리고 우리 영감이 댕긴 건 저 시루봉 그계 전설이지. 이 원가들이, 이기 그러니까 뿌리가 큰 뿌

리면서 깊은 사연이야. (음, 어떤?) 저기 원썬데, 원주 원썬데 저기 뭐야 원주 원썬 그 전설이 운곡 할아버지래. 운곡 할아버지의 지평공판데 저 돌○○이가면 이제 아주 큰 산소가 있어. 운곡 할아버지 산소가. (그런데 왜 시루봉하고 인연이 있는지?) 시루봉하고 왜 어떤 일이 있나 하든, 시루봉 고가다가 갓바위라는 게 있대요. 갓바위가 있는데, 거 어디 중턱이라 그러는데 난 못 가봤어. 바위 밑에 옛날 동란 난리에 저 잡을라구. 인제 그 왕을 잡을라구, 왕을 잡을라구 하는데, 여기 누구소라고 있죠?(예, 노구소) 노구소 그 노구할미라고 그 건네 지어났잖아요, 지어났는데 인제 이 왕이, 운곡 할아버지가 글루 지나가면서 “여기 인제 누가 조사를 나오고 잡을리는 사람이 있을 테 니까는 오겨들랑 봤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는 횡지암으로 가면서 변암으로 갔다고 이렇게 시키고 갔대. 그렇게 인제 시키고 가서, 내중에 참 오드래요. 오는데 이 할머이가 그렇게 얘길 했지,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노인네가 그 거짓말 한 고 길루다가 빠져 죽었잖아. 태종대 그 물에 빠져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네 그렇게 해놔잖아 비를. (그러니까 운곡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셨구만?) 그럼. 날 잡으러 올테니까는 오면은 횡지암으로 가면서 변암으로 갔다 그러라고 인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바위 밑에 갓바위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랬대. 거기 뭐 표주박도 있고, 술갈도 있고 뭐 다 있었대요. 그런데 그나쁜 놈들이 가져가고 그렇지. 그래 공부터라는 거요, 거가. 근데 난 가보지를 못해가지고.(김복연)

#### ▷ 옹기장수가 옹기 깬 사연

옛날에 신랑을 어린 사람을 장가를 보냈잖아? 옛날에?(꼬마신랑?) 어 그러니까 신랑이 뭔지 각시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인제 색시가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신랑을 시킨 거야. 뭐 어찌구 저찌구. 그래서 뭐 재미난 일을 하는데 옹기장수가 가니까, 바깥에서 가니까 그 말이 들리드래. 뭐 들이시우 내시우, 들이시우 내시우. 옹기장수가 그 말을 듣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참을 그러니까 이 옹기장수가 왔다가, 옹기장수가 그러다 그만 옹기를 깨먹었대잖아. 그러니까 우스운 얘가지 그제.

#### ▷ 꼬마신랑

그러니까 색시가 나이를 먹어서, 댁에서 저녁을 하는데 신랑이 자꾸 와서 말을 일으키니까, ‘뭐 이런 게 있어! 하며 지붕에 콧 치 던졌대요, 신랑을. 그러니까 시어머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더니, 신부가 미안하니까, 신랑이 그때는 피가 나서 뭐 ‘큰 거 딸까, 작은 거 딸까? 호박을. 그래 ‘큰

거를 따 갈까, 작은 걸 따 갈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아주 철이 없는 게 아니래요. 아 치 올라갔는데 엄마가 오니까, 마누라가 민망할까봐 호박을 ‘작은 거 따가나, 작은 걸 따가니? 했 대요.(차정옥)

#### ▷방귀쟁이 며느리

며느리가 노랑병이 들어서, 시아버지가 ‘아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깐 ‘아유 아버님 저는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뭐냐? 그러니까, 방구를 못 껴서 노랑병이 든다고.’ ‘그럼 한 번 해봐 라.’ 그러니까 왜, 뭐 ‘아버님은 솔뚜껑 붙들라, 신랑은 뭐 붙들라, 시아즈버니는 기둥을 붙들고! 하고는. 그런데 방귀를 끼는데 뭐 다 날아가. 다 날아가지고 그 뭐 그래 방아공이가 시곶하다 하 대.(차정옥)

#### ▷쇠뜨기 이야기1

옛날에 그 쇠뜨기라는 풀이 하얀 머리가 뽑나, 검은 머리가 뽑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얀 머리가 뽑으며는 꼬랑지까지 손을 넣어서 뽑기 땀에 안 올라오는데, 검은 머리가 뽑는 거는 이 주둥이



쇠뜨기

만 뜯으니까 또 나온다 이거여.(그럼 검은 머리는 젊은 놈인가?) 그럼!(하얀 머리는 어른들이고?) 예. 하얀 머리는, 노인네는 손가락을 넣어서 휘저어 뽑는 거야. 그래서 하얀 머리가 뽑나, 검은 머리가 뽑나 그 쇠뜨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말을 했다. 쇠뜨기는 손가락을 넣어 그 뿌리까지 뽑아야지 그냥 뜯으며는 그 이튿날 아침이면 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얀 머리가 뽑나, 검은 머리가 뽑나 그런대.(그런데 어른신들은 깊이 파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금방 나오는 줄 모르니까 잡아 뽑는다 이거야. 꼭대기만 뜯으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늙은이는 경험이 있으니까 깊이 뜯지. 그래서 그 쇠뜨기 말이, 그 전설이 그렇게 나왔대요.(지금너)

### ▷쇠뜨기 이야기2

소뜨기 풀은 금방금방 올라와요.(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인제 올라와야 되겠는데, 수건 쓴 이가 있어 못 올라온다 이거여. 농사짓는 놈이 있어 못 올라온다 이거여, 올라와야 되겠는데. 그래 그 소뜨기가 말하길 ‘거 수건 쓴 놈 갔나봐라, 빨리 올라오게! (그 쇠뜨기 풀뿌리가 길다면서요?)’ 아 그건 한이 없어요. 그건 뭐여 매면 금방 또 올라와요, 뿌리가 깊이 들어앉아가지고.(그런데 제가 인제에서 만난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매면 살짝살짝 매고, 나이 드신 분들은 깊이 맨대요. 그래서 소뜨기 풀이 그렇게 말한대요. 어제는 젊은 놈이 왔다갔는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영감님이 왔다갔는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런대요. 쇠뜨기풀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뜨기라는 풀이, ‘거 수건 쓴 놈 갔나봐라! 올라 올라니까 그놈이 자꾸 매니까 뭐 올라올 수가 있나? ‘수건 쓴 놈 갔나봐라, 빨리 올라가게.’ 그래 그 말이에요. 속뜨기는 그저 금방 올라와요. 뜯으면 올라오고 뜯으면 올라오고.(참 표현이 지역마다 다르네요.) 그 속뜨기 풀 얘기가, ‘거 수건 쓴 놈 갔나봐라! 올라 올라니까 수건 쓴 놈이 자꾸 뜯는단 말이에요.(그 수건 쓴 거보니까 여자들이 했나보다. 남자들은 수건 안 쓰잖아요?) 왜 남자들 방맹이수건이라고 쓰고 설라므네.(방맹이수건이요?) 왜 옛날에 머리에 묶는 거. 그걸 방맹이수건이라고 해요.(그거는 주로 어떤 천으로 만드나요?)’ 그거야 그냥 수건이지 뭐. 아니 그 속뜨기 풀이 올라갈라니, 방맹이 쓴 놈이 자꾸 쥐뜯으니까는, 거 수건 쓴 놈 갔나봐라, 빨리 올라가게.(김인환)

### ▷나그네가 들은 귀신들의 대화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길이 어두워지자 두 묘가 있는 사이에서 잠을 잤다. 꿈속에서

묘 주인인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남편이 손님이 와서 바쁜 관계로 제사에 할멈만 다녀왔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어땠냐고 묻자, 밥에는 덤바위(돌멩이)를 넣고 국에는 구렁이(머리카락) 넣어서 손주를 화로에다 넣고 왔다고 했다. 이에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손자에게 그러면 되겠냐고 하면서, 치료 방법을 알려 주었냐고 물었다. 이에 치료법을 몰라 그냥 왔다고 하자, '화상에는 물청태가 좋은데' 라고 했다. 그렇게 꿈을 꾸다 잠이 깬 나그네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날이 밝아지자 마을로 갔다. 그리고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갔다. 아이가 화상을 입어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 나그네는 혹시 어제 제사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집주인이 그렇다고 하니, 집주인의 부모님 산소 위치를 얘기하자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나그네는 묘에서 자며 들었던 얘기를 해주었다. 집주인은 제사음식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물청태를 뜯어다가 화상 입은 아이를 치료하고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재산 반을 나눠줬다.(김인환, 지금너)

## 제2절 민요

논을 매면서 <단허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다들 후렴만 받고 선소리 경험이 없어서인지 사설 구성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는 한때 겨리로 밭을 갈기도 했으나, 대부분 호리소로 논밭을 간 까닭에 밭가는소리 또한 사설이 풍부하지 않다.

### ▷잠자리잡는소리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앉을자리 앉아라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앉을자리 좋다(차정옥)

## ▷개미부리는소리

왕개미를 잡아서 초롱꽃에 넣고,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를 외다보면 초롱꽃이 빨강게 되었다.

## ▷풀부리문지르는소리

우리는, 서울에서 쇠비름을 가지고, 쇠비름은 뿌리가 길어요. 그러면 그 뿌리를 훑으면서

신랑방에 불켜라

색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색시방에 불켜라(송금순)

를 하면 그 뿌리가 빨강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놀았다. 그런데 여기는 그거를 소비름이라 하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그 풀을 신랑방이라 했다. 그래 그거를 가지고 “신랑방에 불켜라/ 색시방에 불켜라” 그러면 봉숭아 물들이는 거 같이 빨강게 된다.

## ▷메뚜기부리는소리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뒷다리를 잡아서,

아침방아 찻라

저녁방아 저라(차정옥)

그렇게 해요.

방아깨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침방아 찻라  
저녁방아 찻라(송금순)

하면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고.

▷ 빠친아이놀리는소리

일러라 찢러라  
네할아버지 제사때  
고기한점 먹고서(송금순)

일러라 찢러라  
너할애비 콧구녕  
콕콕 찢러라(김복연)

▷ 아라리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우리 삼동서 보나물 가자

비가올라나 눈이올라나 역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구름이 막모여 든다

당신두남이구 나두남이구 남남으로 만나서  
그렇게 원수같이 앙양대지말고 잘살어갑시다  
올라오셨오 내려오셨오 인사를 내가 못해서  
행주초마를 입에 물고서 입만 뺨긋(김복연)

▷ 별헤는소리

여름철 밤에 친구와 함께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숨을 안 쉬고 누가 많이 헤아리나 내기를

하면서 했는데,

별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

이런 식으로 했어.

#### ▷파리쫓는소리

워 워이  
건너가기 힘들니까 박 서방네 집으로 가라  
워 워이  
물 건너가기 싫으니까 김 서방네로 가라

#### ▷감기쫓는소리

저 부잣집으로 가라  
저기 한중이네 집으로 가라

안흥 빵집에서 감기가 오면 그렇게 했다. 한중이네는 강릉 사람이다.

서상국이네 집으로 가라

그러드라고. 아마 옛날에는 서상국이 부자였나 봐. 재채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

## 제3절 생애사

### 곧은치 토박이 김상태 어른 생애담

구술자 : 김상태(남, 81세, 부곡2리 곧은치 거주)

면담장소 : 구술자 김상태 댁

면담일시 : 2014년 6월 ~ 2015년 10월



### 1.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다.

솔거리에서 태어났는데 건너 왔다가 세 번째 이사를 했지. 할아버지도 고향이 여기고, 할아버지도 여기 태어났으니 아주 선대조가 여기 우리가 살던 데야. 배관 부곡리, 무례강림이 거든. 무례가 먼저 생기고 강림을 낸중 났다는 거야. 그래서 무례강림이라고.

형제는 누나들이 둘이 있고, 우리 형제가 오형제인데, 오형제가 삼형제는 육이오 동란 나고 다 죽어 버렸어. 동생들인데 내가 맏이고 누나들이 둘 있었고. 그전에 육이오 나고서는 염병이 돌았거든. 그게 들고 홍역이랑 겹쳐가지고 동생들이 아버지랑 네 식구가 한 두 달 기간에 다 죽어 버렸어. 동생이랑 아버지랑.

학교는 못 다녔지. 그 바람에. 부모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왜정 시대는 저기 그 일본 시대니까 팔일오 해방되기 전이니까 그때 맹졌었지. 공회당 학교라고 솔거리에 있었지. 옛날에. 그저 뭐 일본말 배우고 뭐 일본 국어. [선생님의 마을 분이야. 저 대치 살던 그때 사학년 졸업하면 국민학교 육학년을 나오면 국민학교 선생이 됐었어. 왜정 시대는.

국어하고 뭐 산수, 사회 뭐 그런 거. 일본말로. 그때가 열한 살이었는데. 여기 삼학년 밖에 없었어. 그전에. 강림 내려가서 졸업을 했어. 삼학년 된 사람들이 그때 해방이 됐어. 그땐 나이가 많았었지. 그전에는 나이가 열댓 살 넘어도 맹기고 그랬었지. 난 이학년 올라가다가 해방이 됐거든. 사년 만에 육이오가 났어. 이 해방 되고서는.

### 2. 일제강점기 - 공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벼는 싹 갖다가 공출 했지. 그래, 쌀밥은 못 먹는 거야. 그걸 쌀을 땅속에 파묻고 쇠꼬챙이

를 갖고 땀기며 쪼려. 그러니까 먼 데나 파묻고는 거름을 갖다가 덮어 놓고 그랬지. 벼 하면 짝 뒤져. 집을. 그런 짓을 했지. 만약 벼가 열 가마가 나면 열한 가마나 열두 가마 매상을 앞으로 하라고 하는 거야. 공출을.

옥수수, 잡곡 이런 것만 먹지. 그러니까 그땐 곤란했지, 살기가. 공출하고 그러니 뭐 비료가 있나 뭐 있어. 그전에 왜정 초에는 비료가 없었어. 중년에 비료가 나왔지. 조금씩 줬지. 뒷박으로 이렇게. 그렇게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안 됐지.

누나들은 왜정 시대 때 시집을 갔어요. 그 여자 공출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큰 누이가 열세 살에 가고 작은 누이가 열네 살에 시집을 갔어. 그랬지. 그 일본놈들이 여자들 공출을 받아다 위안부 시킨 거야. 갖다. 시방 위안부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누나들 둘을 하나는 저기 신탄으로 큰 누이가 시집을 가고 작은 누이는 이 동네로 가고 그랬지. 한 해, 한 해 이 태만에 계속 했지. 안 하면 붙들어 가거든. 시집 안 간 건. 숫처녀만 데리고 간 거야. 그래 숫처녀만 공출하지 시집가면 공출 안 받았다고. [징용인 우리 육촌도 갔었는데. 보국대. 여기 군인을 간 게 일본 군인으로 간 사람이 이경환이라고 왜정 시대에 군인을 가서 우리가 환영식을 강림까지 가서 했어.

해방 됐다고 개울 건너 운동장이 큰 게 있었어. 그전에. 왜정 시대에 훈련 가르치느라고. 일본놈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 훈련을 가르쳤거든. 거기서. 근데 해방 됐다고 여기 소를 종우 소를 두 마리 잡고 전수 동네사람들이. 그땐 인구가 많았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 이틀 만 세 부르고 그랬어.

주천 가서 그러니까 팔일오 해방 되고는 주천 가서 쌀 배급을 타왔지. 수주면은 머니까. 팔일오 해방되고서는 쌀 배급을 줬거든.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배급을 줬어. 쌀 타고 땀기어. 식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돈은 안 냈지. 알랑미쌀. 뭐 설탕도 주고 그전에 그랬어. 많이.

### 3. 한국전쟁- 아버지와 동생들을 잃고 집안의 가장이 되다.

피란 못 갔지. 나는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 형제가 오형제 그러니까 일곱식구가 살잖우, 일곱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일곱식구가 사니까 쫄망쫄망 하니까 업고 땀길 애가 있으니까 업고 갈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피란을 못 갔지.

여기 마을에 산에 가서 숨어 있고 그랬었어. 인민군이 오나마나 인민군이 엄청 많았어. 오대산 일로 해서 전수 일로 들어갔지. 홍성(횡성)을 막아 놓으니까 원주서 홍성(횡성)을 딱 막으니까 일로 퍼졌지. 그래서 오대산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몇 군단이 넘어갔으니까. 원주서 포 쏘가지고 무지하게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아휴~ 한 겨울게 세 시, 네 시 되면 포가 넘어오는 거야. 팡 팡 넘어와서 그냥 이런 개울에 다 떨어지고. 많이 죽었어. 전투를 세 번을 했는데. 여기.

동란 난리가 났어. 그 동란 난리 때 인민군이 정월달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아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육이오가 나고 그 이듬해 겨울동란이 났거든. 길 알려 달라네. 강림 밖에 모르는 걸 길을 알려 달라니, 오대산 들어가는 길을 알려 달라니 그놈의 실탄 통 요만한 거를 지고서는 가자는 거야. 따라갔지. 여기서 저녁 때 세시 경이 됐던 모양이야. 눈이 이런데. 저 둔내로 가는 거야. 선발대가 인민군이 계속 가지. 원주서 넘어와서 여기로 나가는데. 넘어가는데 둔내 그 새목재인가. 그 밑에 시방 생각하니 그 밑이야. 그땐 땀겨 보지 않았으니 어디가 어딘지 알아? 갔는데 한 놈의 집이 그 길옆에서 조금 올라가더니 산비탈을 올라갔는데 노인네가 둘이 살더라고. 애들은 조그맣고. 그래 거기서 밥을 해먹고 간다는 거야. 밥을 하는 거야. 가마솥에를. 가마솥에 밥을 하고 눈은 있는데 보초도 안 서고 있어. 화장실이 옛날에 멀었거든.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해.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뒤에 비탈 밑인데 강낭이 더미를 이렇게 해놨거든. 소 먹일라고. 근데 캄캄하지. 눈이 와서 허영지. 허연데 사람이 오니까 시커멓게 보이잖아. 불을 나무를 갖다가 마당에다 불을 해놓고 켜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간더미(옥수수단)를 재치니까 속이 비었더라고. 그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었지. 그놈의 짚신이 저 뼈사리(비사리)로 삼은 신을 새 거를 신고 갔어. 우리 아버지가 삼아 놓은 걸. 그걸 신고서 양말 한 켤레 신었으니 얼마나 발이 시려워.

그 속에 틀 가서 있다가 뻐끔히 내가 보니까 이놈들이 밥을 다 해먹고 가더라고. 가는데도 뒤에 계속 올라오는 거야. 새카맣게 올라오지 뭐. 아주. 몇 줄을 이어가지고. 날이 썰 때 바라니 발은 시려워 죽겠어. 이걸 오던 길로 오면 또 인민군한테 붙들리겠고. 강림을 갈라면 그쪽으로 해서 영랑리 쪽인가 모양이야. 그쪽으로 아침에 빼줌하더라고. 저녁도 못 먹었지. 집에 올 생각인데. 글로 건너서 산으로 돌았지. 산이 이런 놈을. 아~ 산을 돌아서 안흥을 왔던 모양이야. 안흥 저 단지골. 갈골 뒤에 저쪽 밑으로 돌았으니까. 거기 오니까 이거만 넘어가

면 부곡이라는 거야. 이걸 치악산이라고 생각했어. 사뭇 길을 보고 산을 넘은 거야. 새신을 신고 갔는데 눈에 오니까 삐소리신도 금방 다 떨어지더라고. 맨발로 걸었지. 오는데 그냥 바지, 저고리입고 하얀 저고리에다 꺼먼 조끼를 입었으니 꺼렇게 보여. 그래도 할 수 없지. 추우니까 입고선 바지, 저고리를 입고선 사뭇 걸어서 안흥 단지골서 넘어오니까 시방 송실 막바지야. 강림 송실 막바지를 왔어. 거기 오니까 강림이라는 걸 알겠어.

집에 오니까 신이 앞에만 조금 있지 다 까져서 맨발로 오다시피 했어. 집에 오니까 부모네가 놀라더라고. 갔으면 죽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마흔 다섯이니까 젊지. 그러니까 무릎에 뜬을 떴어, 양쪽을. 쪽으로 붙을 해서, 뜬을 뜨고는 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고 그러고선 있었지. 그렇게 있으니까 인민군들이 보니까 헐었거든. 뜬을 뜨고 그러니까 다리가 부어. 가만히 댕기지 않으니까. 다리를 못 쓴다고 말짱 그랬지. 그러니까 모면 했지. 모면 하고서는 휴전이 될라고 그러는 해지. 그 이월 달에 그만 염병이 도니까. 나도 걸렸는데 열여섯 살인데 홍역을 안 해서 열여섯 살에 홍역에 염병이 걸리니까 그냥 죽겠어. 우리 두 형제는 살고 셋은 한 달에 다 죽어 버렸지. 그러니까 셋째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 이튿날 죽더라고. 나도 홍역이 낫지 않았는데 그놈을 지게에다 져다 어머니가 파라고 그래서 이월 달인데 땅이 좀 얼었더라고. 가차운 산에 갖다가서는 개울가에 살았거든. 갖다 파묻었지. 어느 사람 지니까 엄청 무겁더라고.

#### 4. 군 제대 후 대구로 가려다 늦깎이 신랑이 되다.

나도 군대에서 있을 때 휴전 되자마자 갔으니까, 군대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송호석이라고 대구 방직회사 있었거든. 광목 짜는 공장. 송호석이 큰성(큰형)이 사장이야. 근데 송호석이 칠형제인데 셋째거든. 근데 군대에 같이 있었어. 그러니 내가 거기 있으니까 산골에 산다니니까야, 대구로 와라. 제대하면 대구로 와라. 내가 우리 회사에 넣어주면 장가가기도 쉽고 처녀가 몇 백 명, 한 오백 명 된다고 그래. 휴가를 간다고 해서 같이 가자는 거야. 수색중대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자기집에 같이 가자고 그래. “아니, 집엘 가야지. 같이 가자면 어떡해.” “아이, 참 좋아.” 그래서 따라갔지. 휴가를. 이십일 휴가인데 휴가 첫 번에 오는데 갔어. 가는 두 번째 휴가고 나는 첫 번이고. 따라갔더니 어머니가 살고 아버지는 없더라고.

큰형이 거기 사장이고 동생도 둘째 동생이 있고 같이 일을 하더라고. 근데 참 어마어마해. 짜는 처녀들이 있고 일곱, 여덟씩 한 칸에 누이씩 짜더라고. 칸을 막았어. 넷씩. 그거 무명을 짜는데 기계로. 거기 감시가 남자들이여. 남자들이 기계 망가진 거 배워가지고 고쳐주고 그런 게 열 대 정도를 고쳐. 근데 그걸 와서 시켜줄 테니까 그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더라고. 간다고 그랬지. 갈라 그랬었지.

그런데 집에 와 있다가 안 갔어. 편지만 자꾸 했어. 서로. 편지 연락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팔월 달에 제대해 왔는데 음력 팔월에 왔는데 그 이듬 해 정월 달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지. 대구를 갈라고 그랬지. 대구로 갈라고 홍성(횡성) 우리 고모가 있었고 아저씨들이 있고 그랬었어. 고모네 집에 동생을 갖다 두고 땅을 남을 주고 이럴라고 홍성(횡성) 고모네 집에 가서 얘기를 했지. 나는 대구로 갈 테니까 동생 좀 봐달라고. 좀 있다가 데리고 간다고. 대구로 갈라고 집에 정리만 하면 갈라고 동생 보내고 갈라고 그런 참인데 저기 있는 라 선생님이라고 있었어. 라군식 씨라고 그이가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야. 우리 아버지도 학자고 그이도 학자고. 오셨더라고. 막 갈라고 그러는데 동네사람들이 알지. 간다는 걸 알지. 근데 이이가 왔어. 와서 얘기하는 게 ‘야, 상태. 가지 말아라. 내가 중신을 해줄 테니까 장가를 보내줄 테니까 가지 말라는 거라. 자꾸 가지 말라’ 는 거라. 그이 때문에 못 간 거여.

그래 가지 말라고. 아니, 뭐 살림을 할 수가 있어? 밥을 해먹을 사람이 있어야 살림을 하지. 그래 꼭 갈라고 했었는데 갈 날짜를 받아 왔어. 일주일 내. 갈라고 했는데 그이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못 가게 붙드네. 그래 있었지 뭐. 있다가는 강림 라 선생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중신을 넣었었어. 근데 나도 많이 돌아 다녔었어. 선보러. 원주도 쫓아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음력 정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꾸 중신이 와서 이제 사방 땡겼었는데 가보니 마땅하고, 마땅하고 그래. 그래서 강림에 중신을 했는데 세상에 말이 없어. 쫓아갔지. 뭐. 강림의 중신자한테. 이이가 소개했는데 중신자 조카딸을 중신을 한다고 하더라고. 쫓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 할머이가 있는데 할머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쫓아갔지. 뭐. 쫓아가서 주인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날 받고 구일 만에 잔치를 했네.

우리 안들은 열여덟 살에 시집을 왔어. 난 스물여섯이고. 그러니 팔년 차 아니야. [흔레 때

닌 가마타고 갔지. [친구들이] 장난 엄청 쳤지. 가마 저 우리 친구들인데 다 친구 성인데 다 죽어 버렸어.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날 초례 끝나고 바로 오신 거죠?) 상 받고 그냥 오는 거지. 우리 오촌 댁들 둘이 있었거든. 눈물 나더라고. 부모가 없는데 오촌댁이 와서 절을 먼저 할라니 저녁에 상을 차려야 하잖아. 상 차려 놓고서 부모한테 절하고 그러는데 오촌댁부터 절을 하니 서운하더라고. 눈물이 막 쏟아져서. 부모 생각이 나서. 그래서 동상은 결혼할 적에 오촌 댁이 다 살아 있어도 내 그랬지. 결혼 하고서 온 거를 저녁에 상을 차릴 적에 형부터 먼저 절해. 나보고 절하라고 그랬지. 서운해서. 그 다음에 오촌 댁 하라고 그랬지.

### 5. 강냉이 농사를 짓다.

남의 농토까지 꽤 많이 했었지. 한 오천 평 했었나? 밭이랑 논이랑. 논하고 옥수수 심었어. 옥수수 매상하고. 논이 없었거든. 논이 좀 적었거든. 그러니까 논은 조금 되고 순 밭이니까 옥수수 매상 많이 했지. 한 삼십 가마, 사십 가마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마니에 넣어서 여기서 매상을 받았어. 이 아래서 저기 창고에다 노적까지 쌓아놔서. 그때는 메옥수수지. 노란 거, 하얀 거.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구십 키로인가? 한 백 키로 했던 모양이야. 시방 사십오 키로 씩 두 개 했지. 첫 번째는 한 백 키로 됐을 거야. 가마니에다 첫 번째 했어. (그거는 누가 매상 해요?) 조합에서.

봄에 심지. 그때 음력 삼월 달에. 수확은 가을 9월에 하지. 음력 팔월 말일 쯤. 옥수수를 비지. 벼서 더미로 해놓은 거야. 미처 딸 새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타작이 다 끝나고 마랭이가 끝나면. 거기다. 타작 후에. 그래 까서 그놈을 이 강냉이 우리를 지었거든. 그전에. 이렇게 강냉이 우리를. 나무로 이렇게 강냉이가 안 튀어나가게 작대기를 세우고 해놓고서 놔두면 마르잖아. 가을게. 바람이 들어가게 마른 다음에 따서 매상을 하는 거지. [양력] 십일월 한 중순에 하지. [옥수수를 딸 때는] 일손이 부족하지. 그래서 밤낮 따는 거야. 품앗이는 안 했어. 제가끔 따야지.

옥수수가 팔기 쉬우니까. 돈도 들 들고. 메밀은 조금 심었지. 그전엔. [옥수수는] 사료로 나갔겠지.

여기 농지정리 되고부터는 쌀을 먹으니까 강냉이를 누가 먹어! 그전엔 참 곤란하니까 강냉이쌀을 먹었지. 그걸 그냥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이 방앗간이 생기고 그럴 적에는 능귀가

지고 갈아 먹으면 좀 부드럽고. 매상하고 팔고 나머지는 식량 해야지. 밥이나 해먹지. 쌀하고 섞어서 밥 해먹지. 첫 번째는 뭐 옥수수밥만 해먹었지. 감자 넣고 팔도 넣고 이래서.

[여기는] 겨리 아니야. 호리지. 여기 겨리는 없었어. 다 혼자 하는 거야. 하루 밭을 갈면 생카리(생갈이)는 한 천 한 칠백 평 밖에 못 갈아요. 로타리 친 거는 많이 갈지. 옥수수 심었던 데를 가니까 딱딱하니까 소가 잘 못 가니까 천 한 칠백 평, 천팔백 평 하루에도.

고랑이 딱 됐으면 팽이로 강냉이를 후드려 파거든. 한 사람이 파면 거기다 재를 넣지. 거름을 놓으면 강냉이 씨 놓는 사람이 씨앗을 놓는다고. 그래 놓으면은 뒤에 묻는 사람이 강냉이를 묻어. 한 사람은 소하고 밭을 갈고 또 팽이로 판다고. 강냉이 구덩이를 맞춰가지고. 파고 거름을 또 놓는다고. 거름을 놓으면 그때는 강냉이 씨 놓지. 강냉이 씨를 아주먼네들이 강냉이 씨를 놓고 남자들이 팽이로 묻지. [하루에] 천오백 평 내지 그거 밖에 못하는 거지. 천 한 칠백 평, 천오백 평 그저.

## 6. 다랑구지 논을 일구다-선군을 하다.

[저수지가 없을 때는 몇 백 마지기 안 되지 뭐. 다랑논이지. 두 마지기 짜리도 드물었지. (어르신은 씨레질을 많이 하셨다면데요. 그걸 선군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선군이 지. 뭐 하는 사람 더러 있지. 씨레질도 호리야.

겨리는 이렇게 된 걸 기다란 작대기를 이렇게 둘 한 거를 해가지고서 쪽 나가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 소 멩에를 기다란 거를 멩에를 구부리지도 않고 쪽 빠른 거를 이렇게 해서 구녕만 뚫어서 해놔어. 양쪽에 소를 매면 그냥 가는 거지. (호리는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어서 쪽 가지만 겨리는 나무를 한번 끼어서 모았다가?) 그렇지. 씨레 나무채를 한군데 와서 동겨 매가지고 여기다 소멩에를 달았어. 그러니까 양쪽에 소가 들어가지. 여기 아주 옛날에는 겨리 했었어. 소가 두 바리가 같면 겨리로 하면 더 많이 가는데 한 바리로 같게 되겠으니까 한 바리로 가는 거지.

논 많이 삶았어. 모는 안 심었는데 뭐. 품값은 한 가지인데 제누리를 술을 계속 갖다 주고 술을. [하루에] 닷 마지기, 엿 마지기 그렇게 해. 한 칠백오십 평 내지 그거. 모내기에는 한 마지기 당 사람 하나씩 넣고. 이 한 삼십 마지기씩 넘는 사람은 닷 마지기씩 소를 하나 넣으니까 소를 다섯 바리, 여섯 바리 막 넣지. 그전에 논배미가 큰 게 어디 있어. 다섯 바리씩 한 곳에 들어가

삶지. 그러니까 논배미가 일락 일락 해. 소가 다섯 바리가 쪼끄만 논에. 그래 서툰 사람은 만날 물벼락만 맞고.

갈지 자로 삶으니까. 논이 이렇게 됐으면 갈지 자로 가거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삶다가 이 기래기로 오면 또 이렇게 삶는다고.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삶아서 이 귀태이가 다 나가면 여기 돌려서 이렇게 들어와. 자꾸 이렇게 삶아. 여섯 번까지 삶아. 그리고 번지 치면 그만이라고.

선군할 때는 모심을 때는 솔거리, 곧은치. 곧은치면 곧은치만 따로 했거든. 솔거리는 따로 하고. 선군은 솔거리, 곧은치 합하고. 선군은. 선군이 모자르니까 이쪽에다 하고 저쪽에다 가서 하고 그러지. [선군은 여럿이지. 너이. 더러 처음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 너이니까 양개 부락을 땡기며 하는 거지. 한 이십 년 했어. 나 제대하고부터는 계속 했어. 군에 가기 전에도 했었거든. 선군을. 스무 살 적에 선군을 하다가 군에 갔었거든. 군에 갔다 와서 계속 했지. 트랙터 나오고부터는 안 한 거야. ... 저수지가 생기고도 선군 했어. 그리고 이제 경운기가 나오니까 경운기로 로터리를 쳤지. 농지정리가 되니까.

[망띠기를 할 때니 이게 모를 녀 줄을 이제 심을 거 복판에 녀 줄을 내놓고 복판에 심게 이렇게 됐는데 녀 줄을 심어 나가면 녀 줄이 되거든.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논땡기 기다란 데다가 이 줄을 착 띠고서는 한줄 먼저 심는다고. 두 사람이. 한 줄을 심고 이걸 망띠기를 한다고. 한 줄을 심고 또 네 줄을 심을 걸 놔둔단 말이야. 낸중에 심는 사람이 심지. 앞에 심어 나간 사람은 망띠기만 해놓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한 줄을 모를 심고 여기는 안 심은 데 아니야. 그럼 또 여기다 줄을 쳐 놓으면 요 안에는 녀 줄밖에 안 심는 거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녀 줄을 심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요기 계속 한 칸씩 해나가는 거지. 혼자서 한 칸을 다 심고 또 여기는 다른 사람이 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심는 거지. 녀 줄만 심어 나가니까. 여긴 논 기다라니까 여기도 한 줄 심었지, 여기도 한 줄 심었으니까 복판이 공간 아니야. 거기 사람이 들어서서 네 폭만 심어 놓는 거야. 네 폭만 심고 나가니까 빠르지. 그 줄모랑 똑같지. 줄 치는 사람이 망띠기 하는 사람이 줄 치고 심는 사람이 망띠기거든. 두 사람이 하지. 한 망이 여섯 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조식이라는 거야. 손모 심을 때 그렇게 심었지. 다 줄모식이야. 아무데서 다 하지. 쪼끄만 거는 산식으로 심기도 하고. 그 전에는 쪼끄만 다랭이도 있었지. 아무 논이고 다 했어. 그전에 많이 했어. 근데 망띠기 하면

좋은 게 있어. 찌부리고 안 심는 놈이 있거든.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 심어나가고서 딴 사람은 같이 심어나가는데 농땡이 부리면 남은 한 망을 다 심었는데 못 심잖아. 못 다 심으면 먼저 심은 사람이 이 망에 와서 또 심고. 근데 먼저 심어나간 사람이 빨리 심어나가면 그 놈한테 줄에 모가 남으면 전수 거기다 집어 넣고 가거든. 장난질 할라고. 그런 짓을 했지.

이양기는 농지정리 되고 바로 샀어. 농지정리 되니 그걸 모심는 거를 사야 되지. 그놈의 것도 이양기도 사서 몇 년 심으니까 망가지대. 내버려 뒀어. 안 샀어. 이양기는 그때 사십칠 만원이야. 아따 그랬을 거야. 사십칠 만원이면 그때 많은 거야.

그전에는 모 심으면 모가 끝나면 천렵도 하고 그랬어. 동네에서. 고기 사다 먹을 데가 없으니까 개울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고기가 많았었거든. 저 밑에. 큰 솔을 해서 걸어 놓고 몇 사람이 고기를 잡으니까 한 솔을 잡지. 그걸 잡아서 끓여서 먹고 술도 먹고. 끝은치 따로 하고 술거리 따로 하고. 동네가 따로 잤아. 그때가 좋은 때지. 그때는 호수도 많고 인구가 많았거든.

## 7. 화전정리 사업으로 복적대던 마을이 조용해지다.

그전엔 사람이 여기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십 년이 넘었지 뭐. 여기 피란민 안 나가고 그랬을 텐데. 화전민이 안 나가고 그럴 텐데.

저수지 생기기 전에는 [부곡리가] 삼백육십팔호. 이 학교 학생이 우리 큰애 땡길 적에 제일 많았었는데 삼백칠십 명인가 됐었어. 근 사백 명 됐었어.

여기 7개 반이 있었어. 그전에. 1반은 저 대치가 이장이 있었으니까 1반이 됐었고 2반은 여기 2반. 3반은 술거리, 4반은 무례, 5반은 그때 월통이 5반이었었는데. 6반은... 그래서 하여튼 7개 반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동이 2개 반이 됐었는지 그리고 산성골이 1개 반이 되고 그랬어. 부석골, 산성골 거기가 1개 반이야.

화전 해먹고 개인 땅 있는 사람들도 땅이 좋아서 그 안에 개인 땅이 있었거든. 화전을 못 해 먹게 하니 개인땅이 조금 되니까 전수 내려와서 그러니까 화전민이 정리가 돼버렸지. 산골에 못 갈게 하니까. 그때 사십 만원을 화전민을 줬으니까 원주로도 가고 제천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헤어져 버렸지. 우리 처삼촌이 여기 와서 사는데 정선서 와서. 둘째 양반이 강림서 남의 집을 얻고 살다가 곤란했거든. 그래서 내가 처삼촌을 불러 올렸지. 여기 논을 남을 준대.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그걸 부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와서 부치니까 그땐 반 돈

이거든. 도지의 반을 갈라야 되는 거야. 벼 열 가마 나면 다섯 가마 갖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와서 농사짓고 그러니까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화전 농사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영세민이 안 되니까 사십 만원을 안 줄라고 그래요. 화전 농사해도 많이 하는 사람도 사십 만원을 줬단 말이야. 그때 내가 반장을 봤었는데 면에 가서 화전민을 보내야 되겠으니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하니 안 된다고 하더니 잡고 얘기를 했지. 산업계장 보고. 그랬더니 해주더라고. 보냈더니 체천 가서 고명리로 이사를 갔었는데 가서 누가 판다고 해서 집을 사러 갔었거든. 사십 만원을 가지고. 가서 산 게 밭이 칠백 평하고 집하고 그게 삼십육 만원인가 밖에 안 가. 그때 돈으로. 엄청 싸더라고. 그래서 샀지. 샀더니 아휴, 그놈의 땅값이 아주 올랐어. 시가 돼버렸으니까. 그 집 부자 됐어.

#### 8. 마을에 저수지가 생기고 경지정리가 되다.

[논 한 마지기기] 그전에는 백삼십 평을 했는데 지금은 백오십 평이 됐거든. 그전에는 논 전수해서 백오십 마지기 한 이백 마지기 정도 했는데 물이 없어서 만날 말랐었어. [그래서] 제 골짜구니에 보를 막잖아. 물싸움도 하고 그랬었지.

저수지가 매번 하고서는 이태만에 저수지가 농지정리가 됐지. 아휴, 이 년 했는데. 농촌지방 공사에서 와서 했거든. 장비가 와서 하는데 이 년 간 했지. 농지정리 되는 바람에 절대(농지) 됐지. 그 농지정리 안 됐으면 밭이 돼서 엄청나게 소득이 많지. 싹 밭이었지. 논이 한 전체가 부곡리가 한 이백 오십 마지기 그 정도가 됐었지. [지금인 삼천팔백 마지기. 차이가 엄청 나지. 근데 여기는 수세도 안 내거든. 그땐 논이 귀하니까 적당한 곳이 됐지. 그러니까 했지. 그러니까 홍성군(홍성군)에서 농지정리를 한다고 많이 했거든. 농지정리 하는 바람에 여기 온 거지. 저수지부터 막은 거지. 농지정리는 얘기도 안 하고. 저수지 지방 공원있는 골짜구니에 다 막을라고 했는데 거기다 막으면 너무 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무례에다 막았지.

[경지정리는] 정부에서 그냥 해준 거지. 이태로 했는데 이쪽이 먼저 되고 대치라는 데가 그 이듬해에 됐지.

저수지물이니까 아주 뜨듯한데 물이 교환을 할 적에 사단까지 있는데 일단 댔다가 일단이 다 나가면 이단을 대면 밑에서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래, 며칠 되면 또 뜨신물이 돼요.

쌀은 좋은 거야. 아휴~ 그럼. 그전에 저수지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저수지 해고서는 쌀이 강

림쌀보다 더 좋다는 거야. 저수지 물이 뜨시거든. 개울물이 보물 대는 건 밤이면 차갑고 낮이면 뜨시잖아. 좀. 근데 저수지물은 밤낮이 없이 온도가 만날 뜨듯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저수지물 대니까 쌀이 강림쌀 보다 좋지.

그런데 시방 전수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우스 많이 짓거든. 논에다. 시방 물이 좀 들 대는 편이야.

저수지 엄청 깊어. 이 그 밑에 신작로 들어가는 게 갯바닥이요. 저수지가 그렇게 높은데 그렇게 깊어. 그 사람 하나 빠져 죽었어. 잠수가 하나 죽었잖아. 고기 잡으러 들어갔다. 그것도 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수중 밧데리 있잖아. 그게 감전이 됐다는 거야. 가다 죽었으니까. 그게 수중 밧데리가 감전이 온다고. 고기를 베틀 자루 큰 거 있잖아. 그걸로 몇 자루씩 잡아 갔는데. 이 놈이. 그거 해가지고 장사할라고 이 놈이. 장사할라고 준비를 싹 해놨지. 거기 잉어가 얼마나 크고 붕어가 얼마나 큰 게 있다고. 그 놈이 저수지 안에 고기 싹 잡을 뻔 했어. 아주.

#### 9. '보강구' - 저수지 관리원을 맡아서 하게 되다.

추천은 마을에서. 그런데 보강구 편해요. 나도 해봤는데 편해요. 가물면 편하고 장마 지면 좀 비 온다고 하면 올라가 물을 떠야 되고. 밤에도.

근데 관리원을 처음에 보강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관리원이라고 했어. 이제. 사월 십일서부터 구월 십일이면 끝나는 거야. 그전엔 백오십 만원을 받았는데 내가 한 이년을 이백 만원씩 타먹다가 몸이 아프니까 내놨거든. 그래서 이십 오년 만에 내놨거든. 여기 저수지가 수로가 망가지면 망가졌다고 지방공사에 보수 해달라고 그러고 저수지물을 내리는 거지. 내려서 보땅으로 물을 다 대주고. 그러니까 저수지 물만 대면 물 대는 건 개인이 대는 거니까. 그만둔 지가 사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십육 년 했어. 이십육 년. 많이 했어. 가들은 일 년씩 했어. 주윤철이라는 사람이 한 일 년 하고 원일규가 한 이 년 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하니까 비 온다고 하면 물을 가 떼버리니.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지만 물이 가물어서 저수지 물이 없는데 너무 뻘다는 거야. 물이 없어. 제대로 못하는 거지. 어제 논이 말랐다고 물을 콧 대니까 콧 대면 지 맘대로 대니까 물 대는 사람은 편한

데 저수지가 마르면 논이 더 마르거든. 물이 퇴수로로 다 나가거든. 그러니까 정도를 맞춰야지. 보강구가 멩기며 관리원이 그걸 보고선 이걸 조종을 해야지. 근데 조종을 안 한다고 내가 그랬어. 그래도 물을 하구 가서 물 흐르는 걸 보고 물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저수지에 물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 10. 5남매를 기르다.

강림 중학교 우리 애(큰아들)가 거기 2회생이거든. 1회생인데 한 해 육학년 때 묵었던 말이야. 묵어가지고 그래서 묵었더니 2회 졸업생이 됐지. 그전에 원주 중학교를 전수 갔었지. 강림 사람들도 원주 고등학교를 멩기고 그랬어. 자취했지. [큰아들인] 그때 돈이 곤란해서 못 보냈지.

큰아들은 원주서 고속버스, 인천 공항만 멩겨. 하루 두 번 갔다 오면 그만이니까.

우리 저기 동서가 서울에 살거든. 서울에 사는데 가가 그전에 시내버스를 했어. 우리 집을 자주 왔어. 휴가라서 오고 가을게 와서 개구리도 잡아먹고. 이놈들 또 한 여덟인가 데리고 왔어, 운전수들을. 그런데 버스 소장이라는 놈이 왔어.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개구리 잡아먹고 갔단 말이야. 가는 걸 온 걸 그랬지. 그때 우리 큰애가 흥성(형성) 일성당 그 노인이 있을 적에, 그 노인을 잘 알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하니 오라고 그래서 거기가 있었어. 일 년을 있으면서 운전을 배웠거든. 그러니 차를 끌고 멩기니까 면허를 금방 땀잖아. 거기 일성당집에 있었는데 동서랑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는 걸 얘기를 했지. 우리 큰애가 있는데 버스를 취직을 시켜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러더라고. 열 여덟 살이니까 나이가 어리지. 면허를 낸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이태 됐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대번 올라가서 버스를 한 거야. ... 그래 하다가 시내버스 하니까 차비 받고 곤란하더라. 그래서 고속버스를 하겠다고 서울서 고속버스를 했지. 시내버스 하다가 고속버스를 하니까 버스 경험이 있으니까 금방 땀지. 그래 해서 있다가 원주로 내려와야 되겠으니까 내려와서 고속버스를 했지. 그리고 또 원주 와서 시내버스를 했어. 하다가 관광버스를 하면 돈을 벌 거 같다고 그걸 또 내놓고 관광버스를 한 몇 달 했어. 그 몇 달 하니까 귀찮기만 하대. 돈을 그것들이 촛에 놔들은 팁을 많이 줬는데 시내 사람들은 팁을 많이 안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버스 하는 것만큼 못 하더라. 그래서 고속버스 도로 했지.

둘째 아들은 안흥 고등학교 나오고, 가들이 아마 1회인가 그럴 거야. 야가 나이가 먹었는데 출가를 안 해요. 장가를 안 가. 안 했어. 오십 한 살이야. 둘째. 돈 털어먹고 이놈이 집에 와서 데려다 왔더니 안 하고 왔네. 삼성전자 경리 과장을 했어요. 그런 놈이 돈을 사기를 당해서 일억 팔천을 털어 먹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집안 돈도 갖다가 털어 먹고. 죽을라고 그런 놈을 살려놨더니 장가도 안 가고 그래. 그때 섹시 줄줄 따랐었어. 팔 개월 만에 일억 팔천 오백을 털어 먹고 눈깔이 높아가지고 장가를 안 가고. 에휴~

큰딸은 [강림] 중학교까지 밖에 안 나왔어.

둘째딸은 원주 상지여고. 가는 대학을 간다는 걸 오빠를 대학을 못 보냈는데 보낼 수가 있어? 머리는 좋았어. 상지여고서 1등 아니면 2등. 그래서 상지여고 졸업하고 시험을 치겠다고 그러더라고. 원주 시청에 시험을 친다고 해서 치고. 또 원주 법원에도 시험을 친다고 그러대. 두 군데다 치더라고. 그러더니 합격이 됐어. 원주 법원도 되고 시청에도 되고. 두 군데. 그래서 와서 물어. 시청으로 가는 게 좋으냐 법원으로 가는 게 좋으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법원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래 법원에 갔어. 법원에 가 몇 년을 했나. 하여튼 계장까지 했으니. 계장까지 하다가 사표를 냈으니까. 아들을 늦게 낳았지. 결혼도 늦게 하고.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시방. 아들 늦게 낳았는데. 가 마흔 여섯 살인데. 늦게 했어. 법원에 맹길 적에 법원에 계장을 하면서 맹기면서 애를 봐달라는 거야. 엄마보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따로 사니까 안 봐준다는 거야. 손주를. 그 형제가 칠형제를 키웠어. 그러니까 애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한 모양이야. 손자 안 봐준다고. 금방 낳은 놈을 어디 가서 맡길 데가 있어야지. 엄마 보고 봐달라니까 봐줄 듯 하는 걸 아이, 난 싫다고. 손주 둘을 키웠거든. 큰 아들 손주 키웠지 또 막내 손주 키웠지. 그거 둘을 키웠으니 금방 낳은 걸 둘을 키웠으니. 싫다고 난 싫다고 그랬더니 그만 사표를 냈지. 가는 머리가 좋아. 시방 여직 나와서 놀더니 작년부터 어디 맹긴다고 그러더라고.

막내아들은 안흥고등학교 나오고. 가는 대학을 보낼라고 그랬었지. 막내니까 대학을 꼭 보낼라고 그랬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탈출을 했어. 학교를 가서. 도망을 가버렸어. 집에 애기도 안 하고. 가출을 했어. 어디로 갔는지 세상에 안 와서 학교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야. 동창들 보고 가들 보고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야. 세상에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뭇 점도 해보고. 일 년을 아주 그러니까 봄에 탈출을 했거든. 이학년 때. 고등학교 이학년

때. 봄에 개학을 대번 하고서는 탈출을 해버렸어. 가을계 추석이 되니까는 추석이 사나흘 앞두고 서울서 전화가 온 거야. 집으로다가. 서울에 있다고. 서울 어디냐고 물으니까 어디라고 그래.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우리 큰애가 서울에 가서 버스를 했거든. 할 게 없으니까. 가가 열여덟서부터 시내버스를 했어. 시내버스를 했는데 애기가 운전수라고 하더라. 애기가 운전을 한다고. 키가 쪼그마한 게 뚱뚱하고 그래. 그랬는데 가가 금방 동생한테 갔지. 그때 돈을 만 오천 원을 가지고 서울을 가서 취직도 못하고 일주일을 있었다. 많이 굶었다고 그래. 올라니 돈도 없지. 어디 가서 뭐 줌 거들어 주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 식당에 가서 거들어 주고. 가죽 잠바 만드는 공장을 보니까 모집한다고 그래. 거기 들어가서 가죽 잠바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있었어, 일 년을. 그러다가 즈 성이 찾아가서 데리고 와버렸지.

그리고 나와서 또 서울 잤었어. 도로 와서 추석을 쇠고 갔다 온다고 하더니 여자를 만났지. 그런데 이놈이 색시들이 엄청 따라서 집을 쫓아오고 그랬어. 여자들이. 잘 생겼어. 튼튼하고. 키가 큰 게. … 그러더니 여자를 데리고 왔어. 우리 막내며느리가 키가 쪼그만 해. 자네만 해. 그런 게 학교가 대학교 1학년이라고 그래. 속초 대학을 댕기는데 서울 갔다 어떻게 만났대. 만나가지고 댕기다 오고 그래. 가끔 오고. 어린 애를 가졌지. 부모네도 몰랐다는 거야. 친정 어머니도 몰랐다는 거야. 음력 시월 달이야. 가끔 오는데 가을계 시월 달인데 전화가 왔어. 애기를 낳았다고. 애기를 낳았다고 하니 즈 어머니가 쫓아가지. 스무 살인가 스물한 살인가 됐었어. 동갑이야 둘이. … 삼일 만에 가서 데리고 왔지. 즈 어머니가 데리고 왔더라고. 즈 어머니는 장사를 하니까 못 키우니까 일로 왔지.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와서 방학이니까 한 달간 있었지. 있다가서 그런 걸 갖다가 모유를 먹이다가 우유 먹이고 키웠지. 일곱 살까지. (며느님은 애기 낳고 학교 가셨어요?) 연애 하느라고 학교를 못 댕기다가 드문드문 다니다가 한 해를 묵었지. 묵었다가 재차 댕겼지. 가는 치과 대학을 나왔거든. 간호사야. [결혼식인 야가 아들이 손주가 국민 학교 1학년 때 했어. 미리 하자니까 자꾸 미루더라고. 어서 할래냐고 하니 원주 시내 가서 할래냐니까 돈이 든다는 거지. 강림 농협에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강림 복지회관에.

[지금은 서울서 버스 해. 원주서 했는데 동부고속을 하는데 서울서. 동부고속은 학자금을 백프로 대줘. 근데 원주 고속들은 애들 학비를 안 대주잖아. 서울 동부고속만 대줘.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학자금을 백프로 대줘. 그러니까 야가 트레일러 강릉 가서 있으면서 그걸 했

다고. 그걸 했었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버스를 하라고 원주 와서 고속버스를 시켰지. 즈 성이 시키니까 원주서 하다가 이태 했어. 이태하다가 서울 동부고속은 애들 학비를 준다니까 거기 들어 갈라고 무척 힘을 썼는데도 들어갈 틈이 없었어. 아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서 들어 갔어. 들어간 지 삼년 짜인가? 사년 짜로군.

### 11. 끝은치에서 오늘도 살아가다.

농사를 많이 지을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배운 게 없으니까 학교를 많이 댕겼어야 했는데 학교를 안 댕겨서. 남의 것까지 많이 지었지. 한 사천 평 지었어. 논이랑 밭이랑. [지금은] 논 열두 마지기. 밭은 한 천이백 평.

[집 지은 지는] 올해 십삼 년이예요. 시방 내 있는 집 빈집이 내가 살다가 저 건너에 살다가 또 글로 와서 애들이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지은 거지. 이 뒤에가 길이었어요. 바로 집이 세칸 집이 있었는데 집이 옛날집이 다 무너져서 내가 삼십육 년 됐네. 이걸 손수 지었지요. 지어가지고선 있다. 나무집으로. 그리고 소도 먹이고. 소도 우사가 이만침 왔었는데 야가 집을 짓겠다고는 거야. 지어라 그럼. 소다 팔아먹고선 야가 집을 지은 거지.

그전에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 동갑계 하다가 이젠 다 죽고 안흥 애들이랑 다 모았는데 들어온다는 사람 스물여섯이 모았는데 이제 삼 년짜인가? 뭐 자꾸 죽으니까 그래도 많이 안 죽었어. 하여튼 몇 살이나 마나 한 사십 년 간 했어. 그날 기는 날 그냥 먹는 거 [돈을 모았어]. 그리고 그래서 모은 돈도 외국도 많이 갔어. 태국도 가고 관광을 중국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갔었고 많이 댕겼어요. 아, 중국을 삼십년 거진 됐네. 초창기에 갔지. 아주. 모아가지고. 그때 중국 갈 적에 개인적으로 일주일 가는데 사십오 만원씩 물었어. 그 만리장성 구경하고 저 중국 본토 관광을 댕기고 많이 댕겼어.

다친 거는 나이가 먹어서 생각을 하니까 군대서 빠따 한 대 맞은 게 시방 나이가 먹어서 생긴 모양이야. 아~ 군대 가서 삼일 만에 그 M1총을 탔는데 여기서도 총을 많이 쏘고 그랬거든. 그 저기 간첩단 잡으러 댕기느라고. M1총을 탔는데 타는 날 보니까 조다가 없는 거야. 탄알 미는 조다라고 있다고. 조다가 없어. 조다가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조다가 없다고 하니까 괜찮아. 이놈이 그런단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총이라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훈련 받을 때만 쓰면 돼. 이놈의 새끼가 그래. 그래서 삼일 만에 병기 검사를 해. 탄놈이

와서 병기 검사를 해. 검사를 하는데 조다가 없다고 선임하사들한테 신청을 했거든. 신청을 했는데 이놈이 빼 팔아 먹었다는 거야. 빼 팔아 먹었다고 그러면서 업드려 이래. 한 대 딱 때리는데 대번 정신이 깜빡 하면서 엉덩이 옆드리라고 하고 때리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오줌이 삭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일어나질 못하겠어. 그래도 뭐 일어나라고 지랄하니 일어나서 절름절름 하면서 땡졌어.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서 다리가 저리거든.

나을 때는 괜찮아. 주사 맞으면. 주사 안 맞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데 엉덩이에다. 다리가 저려. 저러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땡기고 그래. 여기가 아프니까 엉덩이만 거기. 아주 곤란해.

[부인의 원주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 땡기니까 거기 산악회 땡겨. 아주 안 땡기는 데가 없어.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지. 산에 걸어가야 되는데.

## 곧은치 토박이 차인표 어른 생애담

구술자: 차인표(남, 78세, 부곡2리 곧은치 거주)

면담장소: 구술자 차인표 댁

면담일시: 2014년 6월 ~ 2015년 10월



### 1. 증조부께서 곧은치에 정착하다

(이곳에 정착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곳에는 증조부 때 오셨다. 아버님도 평안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니 3대가 이곳으로 함께 이주하신 것이다. 오시게 된 계기가 정감록에 의한 것으로 '무례, 강림, 배향산' 등이 정감록에 피난처라고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에 온 분들이 많다. 특히나 이곳에 평안도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다. (라군식 선생님도 평안도인가요?) 그 분은 아닐 거예요.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우객이라 그러대. 그래 혼인을 해도 평안도 출신들끼리만 하고, 호형호제 하고, 아저씨 조카 하고 그렇게 지냈다. 우리 대에 와서는 그게 희석이 되었는데, 아버님 대까지도 그렇게 동향인 분들이 절친하게 지냈다.

### 2. 서당과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서당에 다니시다가 학교에 가셨나요?) 해방되기 전에 서당을 좀 다녔다. 그러다가 일제가 서당에 다니지 못하게 했다.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와서 위협을 하는 까닭에 서당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러니 서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학교가 생겼는데, 현재 라승휘 댁이 있는 자리 한 쪽에 건물을 짓고 '강림국민학교 무례분교장'을 개장을 하였다. 그때 1회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서당을 다닌 까닭은, 당시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되었지만 근처에 강림이 유일한 학교인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다. 당시 서당 학채는 옥수

수 2가마인 걸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훈장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학동 집에서 모시고 배웠는데, 보통은 훈장 선생님 댁에 가서 공부를 하였다.

(그때도 일요일에는 쉬었나요?) 당시에는 일요일 자체를 몰랐고, 삭망인 음력 초하루와 보름 전날에 쉬었다. 초하루와 보름 전 날에 강(講)을 하는데, 선생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배운 걸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다. 그리고 강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인 초하루와 보름날은 쉬었다. 잘못하면 물푸레 회초리로 좋아리도 맞고 그랬다.

초기 무례분교장에는 정교사가 한 분, 교사를 보조해주는 강사가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 3. 한국전쟁 - 충주까지 피난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

그러다가 5학년 때에 6.25가 났다. 학교는 문을 닫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었으며, 그 해 여름은 피난을 가지 않고 부곡에서 지냈다. 그 바람에 인민군들이 오고감을 다 겪었다. 그러다가 겨울에는 동난(冬亂)이라고 하는 1.4후퇴 때는 가족들 모두 충주까지 피난을 갔다. 피난 갈 때 벼가 몇 가마 있던 걸 마구간 안을 파고 짚으로 바닥과 둘레에 두른 다음 벼를 넣었다. 그리고는 위에는 짚을 덮은 후 흙을 깔고 '마구짓'이라고 해서 덩불을 깔았다.

당시 집은 현재와 다르다. 그때는 삼 칸 집이었는데, 부엌을 파고 그 안에 족보를 숨겼다. 당시 외로운 남자 노인네가 한 분 계셨다. 그분은 피난 갈 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집에 와계시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렇게 하고 피난을 충주까지 갔다가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이곳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어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에서 인민군들에게 붙잡혔다. 피난 갈 때도 이웃이 함께 갔지만, 돌아올 때도 몇 집이 함께 왔다. 신림까지는 어스름하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어두움이라 왔지만, 성남에 이르러서는 너무 어두워 모두들 어느 빈 집에 묵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인민들에게 붙잡혔다. 원래 성남재가 큰 길인데, 옆에 부곡 가마골로 넘어가는 전불재가 있다. 그래 인민군들에게 끌려 전불재를 넘어 가마골에 이르니 날아 났었다. 거기서 인민군들은 보따리 검사를 했다. 그런데 보따리에서 5학년 지도책이 나왔다. 그러더니 인민군이 그 책을 가져가면서 인민군들이 발행한 돈을 주었다. 특별한 것이 없자 인민군들이 보내줘서 갈골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집에는 인민군 대장이 묵고 있는 바람에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박재신 댁 현 집에서 머물다 인민군들이 떠

난 후에 집에 들어왔다. 박재신 닥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인민군 여군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김일성 노래를 가르치고 그랬다. 지금도 그 때 들은 노래를 기억하는데, 노래를 한 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다.

집에 돌아오기 전인데, 설 대목 때 국군 선발대가 부곡에 들어와서 빈 집을 모두 불 질러 태웠다. 그래도 우리는 집을 봐주시던 노인은 계셨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대 돌아와 마구간에 묻었던 벼를 파보니 상하지 않았다. 죽보는 누가 파서 들쳐봤다. 그 노인의 말을 빌면 인민군 중에 차씨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런지 죽보는 상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복학을 하셨나요?) 그러는 바람에 1년을 쉬었다. 빈집을 불지를 때 학교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다가 갈골에 보통 집보다 큰 귀틀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다.

(당시 졸업생들이 많았습니까?) 입학은 같이 했지만 유급하지 않은 분들은 3명이 2회로 졸업을 했고, 13명이 3회로 졸업을 했다. 6.25가 끝나고 재입학 때는 강림국민학교 부곡분교가 아니고 부곡국민학교로 승격했었다.

(입학할 때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입학할 때는 더 많았다. 그때는 대여섯 살 위인 학생들도 있었다. 제보자가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는 여학생이 없었다. 그 다음 회부터 여학생이 있었다.

#### 4. 초등학교 졸업 후 다시 서당에 다니다 군 입대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시 우리 집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옥수수밥을 주로 먹던 시절이라. 그때는 국민학교를 마치면 안흥이나 황성을 나가기보다 원주로 나갔다. 그때는 강림에 중학교가 없었다. 그대 원주로 나가게 되면 서너 명이 어울려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대 다시 서당에 2년 정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다. 마을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몇 명이 어울려 자취하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나가서 밥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끼리 자취를 하거나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경우에도 토요일이면 곧은치를 넘어와 집에 있다가 일요일 오후면 부식을 가지고 다시 곧은치를 넘어서 원주로 갔다.

형제는 1남 1녀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셨다. 누님은 10살 위로 일제 때 처녀 공출한다고

해서 영월 두산리로 시집을 일찍 갔다. 군대는 1959년 10월 7일에 갔다.

그러니까 내가 1938년생이니가 22살 때인가? 논산훈련소 29연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부곡리가 당시에는 영월군에 속했던 까닭에 신체검사도 영월에 가서 받았지만, 원주역에서 집결하여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갔다. 훈련을 마친 후에 의정부 보충대로 갔다. 병과는 공병으로 1105야전공병단에 배속되었는데, 과주 적성에 있는 자대에 가서는 서당을 다녀 한문을 잘 알고 필적이 좋다고 행정병으로 배치되었다. 당시 훈련소에는 고등공민학교가 있어서 무학자는 따로 뽑아서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쳐주었다. 그곳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을에 홍○식이라고 강원농대에 다녔는데, 그 분은 부곡에서 1호 대학생이다. 그 분도 군에 가서는 무학이라고, 그때는 기록카드가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던 시절이므로, 무학이라고 해서 고등공민학교를 군에서 다녔다.

자대에 가서 얼마 있자니 양력설이 되었다. 그때는 카투사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제대 3개월을 남겨놓고는 모두 한국군대로 이전한다. 그래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이 시계를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래 눈이 쌓인 설날 아침 연병장에 속옷차림으로 모여 단체기합과 더불어 매를 맞았다. 그런데 결국 찾지를 못 했다. 군대 생활을 31개월 20일 하고 1962년 6월 20일에 전역을 하였다. 전역을 하고나서는 바로 농삿일을 했다. 물론 군에 가기 전에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

## 5. 이른 나이에 결혼하다

결혼은 군에 가기 전에 했다. 결혼을 일찍 한 것은 부모님들의 뜻으로 인한 것인데,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고 외아들이다 보니 손을 빨리 보시고자 하시느, 손주를 일찍 얻고자 그러하신 것이다. 색시는 월현에 살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다. 두 부모님도 모르셨는데, 처남의 장인 되시는 분이 6.25 때 부곡에 피난을 왔다가 아버님과 서로 알게 되어 중매를 섰다. 그래 결혼 할 때는 가마를 타고 신부 집까지 갔다. 물론 가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탄 건 아니고, 마을을 벗어나서는 걸어가다가 신부 집 가까이에 가서 다시 가마를 탔다. 혼례가 끝나고 당일엔 신부와 돌아오는데, 신랑이 타고 갔던 가마는 신부가 타고 신랑은 걸어왔다. 신부가 타고 올 때는 가마에 요강이 실려 있는데, 요강에는 쌀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한다.

군에 있을 때 휴가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부인은 남편이 없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매끼 밥을 준비하고, 소꼴 베고, 밭을 매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는 등 힘든 생활을 했다. 자식은 만이가 딸이고, 밑으로 아들 넷을 두었다. (딸이 좋으세요, 아들이 좋으세요?) 그 당시에는 젊었고, 부모님 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식들이 그렇게 귀엽다는 것을 모르고 키웠다.

군에서 제대할 무렵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제대 후에는 바로 집에 와서 아버님을 도와 농사를 했다. 특별히 농사법을 바꿔서 한다는 그런 것 없이 부모님이 하시던 농법을 그대로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물론 그 동안에 제초제나 비료 등이 나오고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바람에 편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농사라는 것이 예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부곡리는 주작물이 강냉이다. 강냉이는 메강냉이를 주로 심었는데, 이유는 수확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찰강냉이는 수확도 적게 나지만, 당시에는 식구들이 맛으로 먹기 위해 찰강냉이를 조금 심고 대부분은 메강냉이를 심었다.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니까,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는 양식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감자가 날 때쯤에는 감자를 캐먹고, 옥수수가 날 때면 따다 삶아먹거나 올챙이국수도 만들어 먹는다. 그러다가 가을이면 수수깡을 몇 발되게 길게 엮어 울을 만들어 수확한 옥수수를 넣어 보관했다가 장사꾼에게 팔고 식구들이 양식으로 먹기도 했다. 옥수수는 원주에 있는 한일곡산에서 많이 사갔다. 그 많은 옥수수를 왜 사갔는지 모르지만 수집상들이 부곡리에서 옥수수를 차떼기로 구입해 한일곡산에 넘겼다. 당시 옥수수는 사료보다 곡식으로 사 갔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라 옥수수로 사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대할 당시 집에 산이 12정 7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국유림이라도 가을에 나무를 베었다가 봄에 불을 질러 화전을 해먹던 시절이다. 그래 웬만한 경사라면 화전을 해서 메밀을 많이 심어 먹었다. 그때 땅이 3,000평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5,000평 된다. 아버님 대에 일궈놓으신 3천 평의 땅을 자식인 본인 대에 와서 5천 평으로 늘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지,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봄이면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 팔거나, 암송아지를 구입해 키워 새끼를 낳으면 팔았고, 부인은 베를 짜서 파는 등 농사일 외에 여러 일을 해서 하나 둘 돈을 모아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곳은 삼농사가 잘 되지 않아 아버님이 대화 안미에 가서 저름(겨름)을 벗긴 삼 줄기를 한 짐

씩 구입해 겨우내 삼아서 베를 짜서 팔았다. 삼을 적서서, 쪼개서, 이어서 삼을 삼는 것인데, 이을 때 무릎에 놓고 비비는 까닭에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기도 한다. 결혼은 17살에 하여 큰 딸은 18살에 낳았다.

## 6. 누구나 힘든 농사, 고추, 토마토 하우스 재배

농사일은 다 힘들었다. 그때는 모두 인력으로 하다 보니 몸이 힘들었다. 농사일은 물론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부엌 아궁이가 두 곳 있었는데, 한 겨울을 내려면 보통 100짐이 필요했다. 나무는 돌아가면서 했는데, 멀리 있는 거는 낮에 중간에 갖다놓는데, 이걸 하산한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력을 부친다고 해서 하산한 나무를 다시 지어오곤 했다. 그래 울력도 엄밀하게 말하면 품앗이다. 울력을 청할 때 안 해주면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상대방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벼농사가 힘들었습니까, 밭농사가 힘들었습니까?) 지금이야 저수지가 있어서 물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전에는 물 때문에 벼농사가 힘들었다. 예전에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였다. 보를 길게 잇지를 못하고 짧게 곳곳에 만들어 물을 끌어다 댔는데, 가물면 계곡물이 완전히 마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끈은치 심보는 골짜기 맨 위에 있는데, 그 보에 물이 마르면, 그것도 근래에 와서인데 비닐을 도랑으로 길게 깔은 다음, 인제 팻물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치대는데, 그러면 패쟁이라고 한 사람에게 물을 보라하고는 보작인들 모두가 올라가서 개울을 판다. 그러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비닐 위로 흐르게 했다.

(올해 무척이나 가문데,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죠?) 그럼요. 그때 하지, 소서 때까지도 모를 심었는데 뭐. (그 벼가 자라나요?) 안 되지, 안 돼. 그렇게 마르니까, 논을 매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밭로 밟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왜 밟아요?) 그 덩어리를 부셔야 되니까.

(그러면 순탄하게 살아오셨나요?) 뭐 별 고난 같은 거를 겪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살아오시면서 이루신 일 중에 뿌듯하게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애들 5남매 낳아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 다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게 보람이죠 뭐. (자제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있을 조건이 못 되잖아.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도 외지로 나가고 싶으셨죠?)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시대에 부모님을 두고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 농사는 누구보다도 잘 짓는다고 자부하시나요?) 자신 없어요. 나는 농사는 자신이 없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마을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하신 농사는 없는가요? 작물은 어떤 걸 먼저 심고.) 그런 건 안 해봤어요. (토마토 농사짓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텐데?)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보조사업 하우스 등이 들어오니까, 그 보조 좋아하다가 하우스농사를 지은 것이지. (본인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빚이죠.

(토마토 농사지은 지 얼마나 되셨죠?) 하우스농사를 시작한 것은 20년 전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다가 다시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그때 처음으로 하우스를 짓고, 부곡리에 보조사업 하우스가 들어와 당시에는 몇 집이서 시범적으로 했다. 그해 첫 해에는 고추를 심었다. 그해 수확을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고생을 했다. 그 때 마을에 지옥녀 씨 남편 박중국 씨가 더블캡이 있었다. 그해 하우스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 팔아보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서울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박중국 씨가 서울 지리를 잘 몰랐다. 그때 강림4리에 사는 분이 고추를 따서 영등포 시장에 정기적으로 갖다 주었다. 그해 그 분과 함께 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나질 못했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이 안 되고, 생물인 고추를 실었으니 하루 묵힐 수도 없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가기로 했다. 그해 서울에 도착하니 밤이 되었다. 하지만 가락동시장을 찾아가려니 쉽지 않았다. 여러 번 묻고 물어 가락동시장 서울청과에 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역하고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이후 그것이 인연이 되어 한동안 서울상회와 거래를 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없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농사가 잘 된 상품은 수입이 괜찮았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아마 199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를 심자 그래서 몇 농가가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그러자니 서울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전국의 토마토 물량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그랬더니 가격이 폭락했다고 돈을 주지 않았다. 그해 횡성군청에서 관공서, 학교 등에 할당을 주어 팔아주고 그랬다.

(그렇게 오랫동안 토마토농사를 하셨으면 토마토농사는 선수 아니신가요?) 토마토농사가 잘 안 돼요. 하우스를 짓고 생땅에다 심으면 대충 관리해도 잘 되는데, 하우스가 오래되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 (지력이 약해져서 그러나요?) 그렇지. 토양이 망가지는 거지. 그 저 겨울이면 하우스를 벗겨서 눈비를 맞혀야 하는데,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개폐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개폐식은 안 돼요, 바람 때문에. (아, 눈비가 쌓여서.) 그렇지. 그게 와서 거름에 있던 염류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하우스안에 그대로 모여 있으니 장애가 되는 거지.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객토를 해줘야 하나요?) 뭐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한 5~6년 되면 그게 죽기 시작해요. 다 커서 시드름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럼 4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겠군요? 그런데 올해 토마토를 또 심으셨잖아요?) 이거는 오래지 않아요. 저 위에다가 했던 것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짝어냈잖아. (그래도 토마토가 다른 작물에 비해 자신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하우스에다 다른 거를 재배해서 토마토만큼 나올 작물이 없어요. (아 수익성으로 볼 때?) 어 수익성이. (아까 어느 분이 소양강 찰토마토라고 하면서 팔러 다니던데 심으신 건 찰토마토인가요?) 찰토마토라고 하죠. 다른 토마토보다 저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종이라고 하는 거는 빨갱지 않고 누런빛이 나는데, 시중에 장사꾼들이 가져다니는 것을 보니까 유럽종이더라고. 그건 맛이 없어요. 그건 가공용으로 쓰는 거지 맛이 없어. 이건 일본계, 동양계. (토마토를 얼마나 심으셨어요?) 3백 평 심었어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수입은 들쭉날쭉해요. 한 칠팔백 정도. (남는 것도 없으시겠네요?) 그럼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재작년에는 한 2천백을 했어. (똑같은 평수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저 위에 3백 평에서 했는데, 그때는 시세가 좋아서 한 2천백을 했는데, 다 지하고도 천 6백이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평당 7만 원 정도로 수익을 올렸지. 그렇지 않은 해는 보통 천만 원, 칠팔백을 하나마나 그래요. (다 지하면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은 벼농사가 쉽죠?) 쉽죠. 쉬운데 그건 돈이 안 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세로 가면 가을에 쌀값이 더 떨어질 거 같은데 뭐.

(예전 아버님이 계실 때 새로운 작물을 심기도 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심는 작물은 고정되어 있었어요. 옥수수, 콩, 팥 그 정도. 작물을 바꿔봐야 할 게 없는데 뭐. (농촌지도소에서 와 새로운 작물을 알려줘도 보조가 없으면 어렵죠?) 그렇지.

## 7. 예전에는 대부분 그렇듯이 고향에서 농사만 지었다

(예전에 강냉이밥도 먹고, 잡곡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떤 밥이 좋으세요?)

쌀밥이 좋죠. 옛날 옥수수밥은 지금 못 먹어요. 옛날의 메옥수수는 멧돌에 갈아 체에 쳐서 해놓으면 식은 밥은 입을 막 찌를 정도야. 그러니 지금 못 먹어요. (멧돌에 갈아도 그래요?) 억세다는 얘기지. (불려서 해도 안 되나요?) 아니 불려서 하긴 하지. 강냉이밥 사절치기 뭐. 그 최불암이 나오는 프로 '한국인의 밥상'에 보니까,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해서 옥수수를 갈아서 칩잎에 얹어 찌던 '칩반대기'가 나오더라, 여기도 그렇게 해먹었어요.

(칩잎에 하면 향이 좋은가요?) 괜찮았던 거 같아요. 거기다 밤콩알을 넣고 찌서 먹고. 그리고 그 도토리도 해 먹는 거 나오더라. 지금은 도토리묵만 해먹는데, 예전에는 도토리를 주워서 삶아가지고 말려서 저장했는데, 그 삶으면서 우려내는 것인데, 그걸 '용수', 도토리용수라 그랬어요. 도토리 삶는 가마 속에다가 종다래끼 만드는 첿가지를 가지고 둥그렇게 그걸 걸어요. 거기다 놓고는 자꾸 물을 퍼내면서 우려내는 거지. 그렇게 우려내서는 해먹고 그랬지.

(여행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요?) 여행 뭐 많이 다니지 않았죠. 뭐 제주도애 가보고. (외국은 안 가보셨어요?) 우리 안식구는 외국에 못 갔지. 나는 중국 백두산까지 가봤고. 그전에 농협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수당을 안 가져가기로 하고 그것을 모아 백두산 관광을 한 거야. (피난하고 군대생활 아니면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네요?) 군대생활 아니면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정태완 피디라고 SBS에서 한 번 와가지고 뭐 방송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내 그런 얘기를 했지. "나는 고향 그리운 거에 대해 모른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옛 글 명심보감에 '불관고애(不觀高崖)면 하이지전추지환(何以知顛墜之患)' 뭐 그런 말이 있어. 벼랑에 올라서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야 이거 떨어져 죽겠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바깥세상이 보고 싶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저 생활하는데, 힘들게 생활하다보니까 그런 여유를 못 가졌죠 뭐. (오늘은 한가하세요?) 뭐 할 일이 없어요. 토마토나 관리하고. 논 3천 평은 인삼밭 하는 사람에게 도지를 주었기 때문에. 논 두 다량이 조그마한 거 모를 심어놨으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3천 평은 힘드셔서?) 네. (그래도 인삼은 괜찮은가 봐요?) 그 사람들 인삼조합을 끼고서 하는 게, 돈도 거기서 다 대준다는데 뭐. (그래도 그게 돈이 많은데?) 그래도 수익이 그만큼 남기에 그러지. 6년을 임대해야 되거든. 한 해는 저렇게 묵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남길래 하겠지 안 남으면 하겠어요. 자금 다 대주고, 캐가지고 남으면 수익으로 하고.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야.

**곶은치 토박이 박선옥 어른 생애담**

구술자 : 박선옥(여, 84세, 부곡2리 곶은치 거주)

면담장소 : 구술자 박선옥 댁

면담일시 : 2014년 9월 ~ 10월

**1. 4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다**

저 건너에 박재신 거기가 우리 친정이야. 우리 큰오라버니 아들이야. 저 건너에. 저기 보이는 집. 저기 사남매 됐는데. 제가 막내래요. 오빠들만 세 분. 다 여기 계시다 여기서 돌아가셨지. 본토박이지. 아주.

아버님도 뭐 우리 알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사셨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그전에 이 앞에 논이 됐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래. 아버지가 술값 하나도 안 내고 막걸리만 잡셨는데 삼년을 잡셨는데 잡숫고 나니까 논 열 마지가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래도 그 빛은 가리고 병자년 가락에 논이 떠나갔다잖아. 벼가 누렇게 됐는데. 술값에 그 논이 넘어가고 빛은 가렸지. 받은 사람만 허탕이지.

귀하게도 못 자랐어요. 그전엔 뭐 새끼 귀한 줄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열다섯 살까지 난 애기만 보고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 큰형님 애기. 근데 그 이제 둘째 올게도 한 동갑, 막내 올게도 한 동갑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놀았잖아. 제누리 먹던 것도 못 먹고. 똑같이 한 동갑이니까 내가 제누리 혼자 먹을 수 없잖아. 또 놀지도 못하잖아. 밥을 같이 해 먹어야 되잖아.

**2. 어린 신랑에게 시집을 가다**

내가 더 먹었지. 세 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췌어요. 내가 열일곱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아버님은 그전에 참 없이 살고 늙도록 장가를 못 가셨대요. 근데 대치 누구라고 항상 그러시지만 그 집에 모를 심으러 갔는데 아버지 친구 분이 '암컷이는 애만 맨들 줄 알지, 어

른을 만들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주 나는 자식 낳으면 일찍 장가를 들이기로 아주 맹세를 일찍 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친구 분이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 그래서 난 자식 낳으면 일찍 장가들이기로 했다고.

중매는 저 건너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라승휘 씨 아버지. 라 선생님 그이가 중신을 했잖아. 우리 아버지는 어린 사람은 안 크냐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술 잡숫고 혼자 주셨지. 집안 의논도 안 하고 준 거야. 그이가 중신을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 끝이 안 들었지. 며칠 있다가 사주가 온다고 그래. 저고리 한감 넣고 사주 써서 중매쟁이 해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야. 며칠 있다가 사주가 온다고 그래. 그때 정말 쫓는가보다 했지.

그전에 예단이 어땀어! 누에 쳐서 명주를 해서 그 빨건 물들이고 노랑 물들이고 명주 저고리에다 비단 형겔 세 동가리 있어서 달았어. 한복 깃 있잖아. 시댁에서 해가지고 잔칫날 보내는 거야. 그거 입고 오라고. 그리고 오리 한 마리. (그거를 친정어머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앞에다 확 던져 주지. 자손 많이 번성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때는 뭐 구식으로 했잖아. 닭도 잡아 놓고 그리고 대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상에 꽂았어요. 옛날에. 대가 그전엔 대나무가 없어서 시누대. 그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지. 시누대가 만날 파령잖아. 밤, 대추 놓고. (그때도 쌀막걸리인가요?) 그땐 쌀막걸리가 어디 있어요. 옥수수지.

[시집을 때] 왜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마를 남이 들면 놀란다고 우리 오빠들이 등강에 까지 떠다 났어요. 가마떨미 난다고. 그 다음에 남이 미고 오지. 마당에서 등강까지 내다났지.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식구 많으라고 바가지에 국수를 담아서 젓갈이고 순갈이고 많이 해서 그전에 부뚜막이잖아. 다리를 하나 걸쳐 놓고 먹는다고 즈 집에 와서. 잔칫날 신랑만.

우리 올게들은 못 받았어도 나는 큰상 받았어요. 시댁에서 받고, 남자들은 처갓집에서 받는 거지. 처갓집에서 차린 상은 일로 오고 이제 시댁에서 차린 상은 친정으로 가는 거지. 바퀴 먹는 거야. 하나도 손 안대고 저 집으로 가는 거지. 신부는 그냥 보기만 하지 뭘 먹긴 뭘 먹어. 딱 앉아서 보고 잘 차리는 사람은 인접이라고 그랬어. 색시 곁에 앉아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 잘 차리는 사람은 인접상도 차리죠.

삼일 만에 친정을 가는 거지. 삼일도배기. 뭐 떡 해가지고 가죠. 그전에는 쌀 절편하고 좁쌀 인절미. 그걸 또 해서 다 요만큼씩 세 개씩 해서 또 마실에 돌리잖아. 같은 마을이래도 그걸 돌렸어요. 떡을 여느 아저씨가 해 지고. 갈 때 시아버님도 따라가시잖아. 시아버님은 바로 오시고.

삼일 만에 가서 그날 저녁에 신랑 달아먹는다고 동네 사람이 싹 모여요. 그래서 옛날에 참밭목을 해서 밧줄을 매서 친구들이 저거 했지. 남자들 친구들이. 친구나 마나 젊은 사람은 다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저 양반이 나이 어려서 달아 먹을 수 없어서 처남들이 혼났지. 매제를 못 달고 처남들을 달아 먹었지.

우리 시어머니는 서른여섯에 내가 시집을 왔어.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동서지간이냐고 물어 봤어요. 시아버님은 우리 어머님보다 구년 더 잡셨어요. 우리 큰오라버니가 시어머니보다 한 살 더 잡셨지. 그래도 저 시어른이라고 우리 오라버니가 설이면 항상 세배를 왔어요. 두루마기 입고 와서 절 하셨어. 한 살 아래인데도.

### 3. 대식구의 맘머느리로 살아가다

아휴~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시집을 왔나. 그래가지고 저 건너(솔거리)에 있었어. 시방 다 없어졌으니까 저기 있었어. 갈골도 있었지만 그전에 우리 아저씨 맹길 때는 저 건너에 학교래요. 여기 있다가 갈골로 갔지. 그리고 졸업은 강림에 가서 하셨어요. 육학년 졸업을. 집에서 밥 먹고 다녔지요. 그래서 뭐 있어? 보리쌀 삶아가지고 아침에 차가 있어? 걸어가야 되잖아. 그전에 차가 없어. 그 밥 해주느라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는 그거 한 번 안 해주시대. 아휴~ 열일곱 살이면 지금 애기지. 잘 하긴 뭐. 그땐 식구나 작아? 그거 밥을 시방은 많이 해도 괜찮지. 잠곡밥을 여럿이 먹을 걸 다 해야 되잖아.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그 이듬 해 [막내 시누이를] 낳으셨지. 아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애기 낳아서는 쌀도 없고 그래서 뒷집에 가서 밤에 아버님이 한 되 꿰 왔어. 가게 가더니 미역을 한우리 사고 그 삼일까지 딱 잡숫고 우리하고 잡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으셨어. 그래도 우리 어머님 오래 살으셨어.

[시택의 아들 삼형제에 딸이 둘이 됐지. 아~ 처음엔 우린 다 오라버이도 크고 난 막내인데 처음엔 요만 요만하니까 정신이 없더라니. 들뛰고 그래서. 신랑이 열네 살이니 그 밑으로 열마나. 우리 막내 시동생은 아주머이 소리를 못 해 할머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니까. 쪼끄매서. 쪼끄마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할머이라고. 누가 빨건 저고리 입고 가는 거 보면 우리 할머이 같다 그랬지. ... 그래서 참 돌아가셨지만 나를 엄마보다 더 좋다고 맹기시고 그랬어요. 저 닭 키워서 닭을 잡아서 거기다 삼 넣고 밤, 대추 넣고 그걸 날 와 해주고 어느 자식

인들 그러겠어요. 우리 막내 시동생 그렇게 잘 했어요.

사촌 시동생도 큰아버지, 큰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집 와서 커서. 그래가지고 오학년 때 와가지고 우리집에서 육학년 졸업하고 장가도 들어서 다 살림 내놨잖아. 그전엔 바보라서 그런지 밋지도 않고 한식구면 다 좋은 거야. 시방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촌 시동생도 밋지 않고 그렇게 좋아. 그전에 이제 부업에다 찬장을 들었어. 이렇게. “밥이 없나?” 이러며 열고 찾아 먹고. 시동생도 착했어.

[큰시동생은 혼인을 열여섯 살에 했어요.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장가 들인다고 해서 “아휴, 아버님 뭐하러 그리 일찍 들이세요. 늦게 들이지.” 그랬더니 나가서 그러더라잖아. “우리 며느리는 동서 보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잖아. 막내는 또 열아홉에 갔지요. (아랫동서들도 다 연상이예요?) 네. 모르지 뭐. 똑같은 거 들이면 싸움이나 하지. 뭐 일하겠어. 내 생각은 일 하라고 그런 거 같아. 아, 그리고 그것도 있대. 우리 아버님이 늦게 장가 가셨대잖아. 어려워서.

열네 식구까지 살았어요. 사촌 시동생까지 있을 때.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저 좋지. 우리 구년 만에 큰 동서 나가는데 아주 눈물이 나서 서로 울고 나갔어. 저 옷방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서 못 베기겠더라고. 하도 정이 들고 살아서. 구년을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방방이 꼭 찻지. 방이 네 칸인가. 그리고 애들은 한 군데서. 한 부부가 방 한 칸에 애들하고. 저쪽으로 사랑방이라고 있었어. 거기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계시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 한글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야학 가르쳤잖아요. 그때 배웠지. 그때 뭐 그것만 배워? 애 키워야지, 삼 삼아야지, 방아 찧어 먹어야지. [시집오기 전까지는 몰랐지. 아주 글을 가리켜 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가지고 짬만 나면 그거 보고 가가거겨 그거 배워가지고 변소간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그걸 외우고 있는게. 아휴~ 그렇게 좋대요. 그 대통령님 바람에 어디 가는 차를 알고 전화할 줄 알고 그래요. 밤에 배웠지요. 밤에 밥 다 해먹고. 마실에서 가르쳤었지. 처음에 배울 때는 우리집 아저씨한테 배웠지. 그래 저녁에 거기 가서 가리키다가 그 다음에 배울 새도 없고 가르쳐 줄 새도 없고. 이제 여럿이 가서 이제. 마실에 가리키는 집이 하나 있어. 정해놓고. 한 해 겨울을 배운 게 뭐. 우리 큰동서는 강림 갈 골 자리때기 깔고 학교를 땡길 때 거기 가서 한낮에 땡졌어요. 오후에. 난 그것도 해독했다고 못 했지. 그 사람은 그래도 오후에 땡기면서 배웠어. 옛날 산 거 말도 못하지 뭐.

옛날엔 그렇거니 하고 살아야지. 잘못하다 쫓겨갈까봐 겁을 내고 사는 거지. 저기 아휴~ 머리 잘랐다고 너의 집에 가서 머리 길러서 오라고 뭐 그전에 뭐이 옷이나 있어? 치마 적삼인지 뭐인지. 명에다가 명주를 이렇게 하면 아롱지가 돼. 물을 들이면 이제 명주는 잘 들고 누에고치로 친 거 그거야. 목화솜으로 한 거는 잘 안 들잖아, 거기다 이불 보따리 싸서 머리 길러서 오라고 막 떠미는 거야. 머리 잘랐다고. 아~ 머리 잘 제에 불편해. 못 베기겠어. 아휴~ [시어머니한테] 물어본 다음에 잘랐는데도 그러더라니.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다가 어머니님이 장에 갔다 오셨어. ‘어머님, 저지레를 했어요.’ 이랬더니 ‘뭘 저지레를 했어? 그래. ‘나 머리 잘랐어요.’ 아~ 그 다음에 승질이 나서 우리 큰시동생이 ‘그거 좀 자르면 어때요?’ 이랬더니 가새가 글로 날라 가는 거야. 느 여편네 마주 잘라주라고. 그 다음에 큰동서는 살림나서 머리를 했어. 지졌지. 난 잘라서 이렇게 꼭 갈라서 요렇게 해서 감이라고 그러잖아. 뽕뽕 말아서. 그리고는 우리 아버님이 ‘아이구~ 작은 사람도 지졌던데 너도 지져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또 지졌지. 그거는. 여기 지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는 우리 외숙모가 잘라주고 혼났지. 아이고~ 남 머리 자르고 다닌 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아휴~ 세상에. 그래 내가 데리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걸 왜 왔다. 저 건너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더 혼날까봐 솔거리 우리 들째 오라버니네 가 있었지. 글썄 우리 아버님만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거든. 우리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러지. 아휴~

그전엔 뭘 내 맘대로 뭘 해요. 하나도 못했지. 우리 어머님이 더덕 팔러 가서도 다 사오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내딸은 좀 좋은 거 해오고 손녀딸은 좀 낮은 걸 해오대요. 아~ 보면 알잖아. 아무리 바보래도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 그저 내 속으로 안 좋다 하지.

속상한 거는 이거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막내딸하고 우리 큰딸하고 한 살 차이잖아. 막내 시누이가 한 살 더 위고. 아이~ 그게 내 그래서 어려서 싸우는데 세상에 어디 여기 말리다가, 아휴~ 내가 시어머이 얘기 낳는 데는 말려야 된다고 그랬어. 그 속상 하더라고. 내 새끼 똑같으면 다 같이 욕을 하지만.

[남편이 어려서 철 없으니까 시집살이도 곤잘 시키더라고. 하하하. 아이고~ 저기 그전에 구덩이 파고 삼굿한 거. 친구하고 장난하느라고 더운데 술 사오라고 장난하고 그랬더니 그걸 다 갖다 일렸어. 그걸 저거 혼내키는 양반이 더 저거 하지. 우리 시어머니 뭐라고 얘기하

시냐면 그전엔 무명, 삼베 하잖아. ‘그거 언제 한대디? 그래서 ‘모르지요. 뭐.’ 그랬더니 ‘살림하는 여편네가 그걸 모르고 술 사다 먹는 건 알아! 이러며 혼내키더라고. 우린 농담 하느라고 한 건데. 삼 벗기며 물 떠오라는 걸 농담으로 샘물 떠오라는 걸 술 사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진짜로 들었는지 그랬어. 아~ 시집살이도 곤잘 시켜.

#### 4. 한국전쟁을 겪다

결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육이오 사변 났지. 피난은 저 어른들이 저 산골에다 이렇게 골 해 놓고 불 때게 해놓고 거기 가서 우리 시동생하고 우리집 아저씨하고 뒤에 막내 올케하고 너 이가 가 있었지. 저 산골에. 작은 무례골 막바지. 젊은 사람이라고 피란시키느라고. 그 지당에서 그 골짜기에서 썩 올라가서 있거든. 지당 있는 데래요. 꽤 오래 있었어요. 도랑 조금 나는 데에 쌀을 씨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밥이. (몇 달 계셨어요?) 그럼요. 그래도 불도 때고 그랬는데. 물이 귀하면 손을 눈으로 씻고 산에서. (다른 시동생들은?) 막내 시동생은 애기니까 어리잖아.

그래서 거기 몇 달 있다가 집에 와서 나중에 저 거세골이라고. 거기 또 쪼끄만 집이 있었어. 거기 가서 우리 시어머님은 집에서 이제 빨래 해보내면 거기서 꼬매 입고 우리 아버님하고 다 거기 갔었지. (시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집 지키지 않으면 아군들이 불 썩잖아요. 인민군들이 저쪽 방에 있으면 이쪽 구석에 가 있고 이쪽 방에 있으면 저쪽 구석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집을 살렸는데. 그 난리에도 우리는 삼베 있잖아. 삼베. 그걸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 다 했죠. 저 건너 저기가 산골짜기야. 그걸 해서 장작을 불을 때서 그쪽에다 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김에. 그래 그것도 난리에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삼 삼으라고 해서 막내 시동생을 업고 그거 삼뭉탱이를 이만한 거를 들고 아이, 그렇게 가느라고 아주 혼났네. 저 꼭대기 올라가느라고. 처음에 이제 나오기 전에 피란 가느라고 갔지. 그 사람들 나오기 전에. 시방 생각하면 외딴 데가 있으면 더 위험한 걸 가 있었지. 안 간 사람도 꽤 많지. 간 사람은 다 갔지. 피란, 친정 식구도 안 가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소를 큰 암소를 먹였는데 인민군을 태워가지고 저기가정 그냥 소만 빌려 달라는 거 따라가셨대. 소 데리고 올라고. 우리 시어머니도 대단해요. 따라갔는데 이 놈의 소가 건너 뛰다가 그 사람이 땅에 떨어졌대. 그래 거기서 가라고 하잖아. 그랬더라잖

아. 그래서 도로 돌아오셨더라잖아. 그래 소를 살렸잖아요. 아휴~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 5. 살림을 꾸려나가다

[옥수수 농사를] 참 많이 했는데. 많이 했지요. 그땐 시동생들도 다 같이 하고 그랬죠. 식구가 열네 식구까지 살았는데. 다 옥시기 밭이었는데. 그거 밖에 할 줄 몰랐잖아.

메강냉이를 심어야지. 찰강냉이는 안 되고. 찰강냉이는 중년에 찰강냉이 했지. 그리고 황옥이라고 노란 거. 백옥이 메강냉이지. 황옥 저기 소출 많이 난다고 나중에 했지. 그전엔 메강냉이 하얀 거 그걸 했지.

짚으로 짠 그 가마니 있잖아. 열 말씩 넣어서. 그래서 새끼로 가마에 딱딱 묶어서 원주로 [모곡장사들이] 실어가지. 그때 뭐 천일상회라나. 글로 가져간다고.

[모곡장사를] 그전에 저기 복자 아버지 그이하고 우리 큰오라버니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전에 개울이 신작로 됐잖아. 화물차가 절로 다녔지요. 개울로. 그래도 화물차 그전에 거기로 다녔어요. 거기서 싣고 또 갈골 가서 싣고 그래 다녔지요.

그땐 뭐 옥수수 밖에 심을 줄 몰랐잖아. 옥수수 삶아 먹고 그거 또 칼로 빼겨가지고 맷돌에 다 갈아가지고 감자 넣고 그걸 ‘폴대죽’ 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올챙이묵도 해먹고. 그것도 헤프잖아. 그걸 되게 갈아가지고 그걸 주걱에다 놓고 요렇게 요렇게 뜯어내면 수제비국처럼 되거든. 그걸 옥시기 수제국이라고 그래. 그게 달콤한 게 맛있어요. 그전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풋강냉이 갈아가지고. 그전에 풋강냉이 갈아가지고 참 달콤한 게 맛있어. 거기에 열무김치나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그거 진짜 맛있어.

숯꺼피 쳐가지고 그거 다 저기 쳐다 숯 굽는데 쳐다 팔고. 여기 그전에 저 가마골하고 여기 하고. 그건 숯구덩이까지 지고 가야돼. 숯꺼피라고 있어. 자리 틀어다 해서 새 벼다가. 역새 벼다가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서하고 나는 저녁에는 새끼 꼬고 낮에는 숯꺼피 치고 자리 틀고 이만하게 해놓고 새끼 파서 거기다 감아가지고 자리 매는 것 마냥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파요. 우리는 싸우는 것도 몰랐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전에 우리 국수도 늘러 팔았어. 국수 기계 사놓고. 밀가루 사다가 국수 기계로 빼서 말려가지고 팔았죠. 별 거 다 해봤지. 젊었을 때. 반죽도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국수 저저 하

면 다 되면 걸어서 말려서 잘라가지고 저울에 딱딱 달아가지고 한관씩. 먹는 사람도 사다 먹고 그랬어요.

민박은 하면 된다고 해서 좀 했어요. 처음에 집 짓고선 안 하다가. 계속 했으면 돈 좀 버는 건데. 집 진 지도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에 지었는데. 집 짓고도 몇 해 안 했어. (새농어촌건설운동 때 그때 조금 하셨구나.) 네. [손님이] 많지도 않더라고. 집 짓고 안 할 때는 밤에도 와 찾고 그랬는데 안 하다가 아주 안 했지. 그리고 젊은네가 이런 데 와요? 좋은 데 가지. 그땐 하루 저녁에 오만 원 받았지. 삼만 원 준다고 하면 삼만 원도 받고.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

## 7. 6남매를 낳고 기르다.

첫째가 딸, 둘째도 딸, 그 다음에 아들, 아들 둘 낳고 또 딸, 그 다음에 또 딸. 그렇게 사녀 이 남이지. 큰딸이 작년에 환갑 지나갔어요. 내가 스물둘에 낳았는데 뭐. 둘째딸은 시방 오십은 넘었고. 아마 오십 대여섯 됐을 걸. 개띠. 큰딸은 뱀띠, 큰아들은 쥐띠, 작은아들은 호랑이띠, 막내딸은 잔나비띠일 거야. 이제 내가 낳은 새끼 나이도 잘 몰라.

그게(달거리) 있다가 없으니까 가진 거지. 입덧은 많이 안 했어.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먹으면 괜찮았어. 뭐 대단한 사람은 막 올라와서 밥도 못 먹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약간 밥맛이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서 그거 먹으면 밥 잘 먹었어요.

그전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없지. 하여튼 과일이든지 뭐 고기 같은 거 좀 자연스럽게 먹고 싶을 땐 생기대. 이상하더라고. 자연스럽게 생겨.

[애는] 혼자 낳지. 시어머이는 뭐 애기 낳아야 삼 가르고 그러지. 그전엔 아궁지에 태웠어. 태. 옛날에는 삼일까지 놔둔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이튿날에 태워. 옛날엔 삼일까지 놔뒀다 태웠는데.

다 집에서 낳았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 애기 낳느라고 애 쓰는 거 보니까 아휴~ 우리 시어머님이 얼마나 혼났을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조금 낳는데도 안타깝고 보기 힘든데 그 여섯이나 낳느라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몸조리는] 많아야 일주일이지. 그전에 친정에 가서 낳는 게 어디 있어. 시택에서 다 낳았지. 애기 낳고 삼일 만에 이제 삼신 한다고 미역국 끓이고 밥 해놓고서 시어머니가 절 하지.

그래서 애기 낳은 사람이 먹잖아. 삼신 할머니한테 미역국 떠놓는다고 그러지. 첫국밥은 애기 처음에 낳아서 먹는 게 첫 국밥이야.

미역국도 뭐 일주일 내내 못 먹었지. 미역도 참 귀해서 그렇게 못 먹었어. 미역국에 잡곡밥 마니까 더 못 먹겠대. 아주 깔깔해요. 그전에 그 다음에 잡곡밥 먹지. 한 사흘까지 쌀밥 먹고.

[백일을] 그전엔 그냥 지나가고 잘 하는 사람은 백설기 썰놓고 미역국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초대 했죠. 우리는 그런 것도 못했어. 그리고 백설기 썰서 삼신한테 바쳐야 백 살을 산다고 그래서 백설기를 해놓는대.

[첫돌에는] 그 왜 떡 해놓고 돌잡이가 뭐부터 집나 그거 보지. 떡하고 공책하고 돈하고 실하고 연필 놓으면 연필 쥐면 공부 잘 한다고. 그 첫돌까지는 차려놓고 절하죠. 삼신한테는 밥하고 미역국만 떠놓고. 수수팔떡은 그러니까 아들이 중하다고 우리 큰아들은 스무 살까지 해줬어. 그래서 저 곧은치재로 학교 다니니까 우리 시어머이가 거기서 밥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시어머이는 재 너머에서 마중으로 오고 나는 떡을 해서 갔단 말이야.

아~ 그전에 딸만 낳으니까 옷 잘 입는 것도 안 부럽고 남 아들 낳아서 업고 땡기는 그거 한 가지만 부러워. 그거 훔쳐 올 수 있으면 훔쳐오지. 아이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큰아들 낳으니까 우리 친정이 저 건너잖아. 거기 가셨더라. 아들 낳았다고. 우리 큰딸 이름이 금순인데 ‘금순 어미, 아들 낳았습니다!’ 가 그러시더라. 손주 둘 낳아서 할아버지가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이가 사우 보기도 부끄럽고. 사돈 보기도 부끄럽대잖아. 옛날이야 그래.

우리 아버님이 둘째 딸 낳아서 삼일 만에 들어오셔서 그러더라고. ‘아이, 그놈 얼굴은 잘 생겼지만 한 가지가 없다!’ 좀 서운하지. 눈물은 그렇게 안 나더라고. 딸은 사람 아니야?

시방 시집간 셋째 딸이구만. 아침에 배가 좀 아프더라고. 밭을 매러 갔는데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업고 가래. 아휴~ 참. 옛날엔 미련해. 아파서 배가 아파서 애기 낳을라고 오는데 업고 가래잖아. 업고 가라고 해서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집에 있다가 ‘왜 왔니? 그래. ‘배가 아파서 왔어요.’ 이랬더니 ‘아침 먹은 게 체했나. 뭐 약을 먹지.’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느려. 난 애기 낳을라고 아파죽겠는데. 그때 우리 막내 동서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애기 낳은 다음에 오셨더라고. 무조건 아들인가 하고 고추 찻느라고. 아들 둘 낳았으니까 또 아들 낳나 하고. 그래서 딸이라고 했더니 ‘그래? 또 아들인가 하고 어른들은 그러지.

[자녀들이 공부할 때] 저기 원주, 우리 어머님이 가 계셨잖아요. 집 하나 사놓고 어머님이 밥 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농사짓고 어머님이 애들 거둬서 혼나셨어. 할머니라면 아주 겁내고 저거 했잖아. 시방 사람들은 할머니가 꽤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아휴~ 할머니라면 꿈쩍도 못했죠. ... 큰딸은 거기 있으며 처음엔 할머니이 여기 농사 질 때 밥 해주고 있었지. 양장점에 댕기며 시집가는 바람에 할머니가 가서 해줬지.

큰아들이 강원대 나왔지. 작은 아들은 뭐 지가 실력이 없어서 이태 재수 시키다 못 해서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대성 고등학교.

큰딸은 못 가르쳤죠. 막내 시누도 못 가르쳤는데. 큰딸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다른 딸들]은 고등학교 다 나왔지. 저기 시방 나간 애가 간호대학 가서 저거 했지. 저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간호사를 포기하고 그냥 배우고 저거 해서 일 년 만에 또 마취사가 됐어. (딸들도 다 원주로 보내셨어요?) 여기 없으니까. 시방 여기 뭐 중학교가 있고 뭐이 있지. 그전에 뭐가 있어요. 원주 밖에 없잖아.

## 8. 삶을 돌아보며

난 그전에 태어나면 남자로 살고 싶어. 여자한테 좀 잘해주고. 아이~ 옛날엔 뭘 잘해요. 자기만 자기라고 그랬지. 내 그전에 싫은 소리를 할 적에 내가 남자로 태어난다면 금방이라도 죽겠다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아~ 그걸 죽어서 맘대로 하지 그래. 옛날엔 살기가 힘들게 살았어요.

그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글 배우는 거. 남 학교 댕기는 게 아주 부러워. 야학 가르킨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겠던데. 꼭 하고 싶은 게 그거 됐어. 학교 다니는 거. 아~ 학교 댕기는 게 제일 부러웠어. 책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켈 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학교 다닌 거.

셋째 딸이 그래 [시집을 안 가고 그러더니] 병원에 의사 만나서 갔어요. [나이가] 오십이지요. 그래서 저기 시월 십이월 날 잔치를 했어요. 서울. 그래서 내가 염색을 했잖아. 짐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거 같애. 항상 걱정 되잖아. 항상 걱정이지. 시집 안 가도 나한테 잘 했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래 안 가고 있다가 또 막상 간다니까 서운 한 거야. 좋으면서도 서운한 것도 있대요.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



# 10장 교육

제1절 서당

제2절 학교

## 제10장 교육

### 제1절 서당

무례마을과 대치마을에 서당이 있었다. 무례마을은 라승휘 씨 아버지인 라군식 어른이 훈장이었고, 대치마을은 김원옥 선생이 훈장이었다. 두 분 모두 타지에서 이주한 분들이다. 학채는 1년에 강냉이 한 가마에서 열 닷 말 정도이다.

차인표 씨는 아홉 살에 김원옥 훈장에게 글을 배우다가 일본 순사 때문에 그만 두었다. 당시 학채는 1집 당 1년에 옥수수 1가마를 냈다. 배움의 양에 상관없이 학채는 같았는데, 이때는 명심보감을 배웠다. 이후 초등학교를 마치고 라군식 선생 밑에서 한학을 다시 배웠는데, 마을에서 구장을 오래한 라군식 선생에게 1년에 옥수수 2말씩 모아주기로 하고 마을 훈장을 부탁했다. 차인표 씨는 그 밑에서 2년 동안 소학, 중용, 대학까지 배웠으나, 맹자는 군 입대 때문에 다 배우지 못했다. 소학은 매우 어려웠는데 갈골에서 온 분이 “소를 길들이는 게 3년인데,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소학을 가르친다!”고 할 정도였다.

서당은 현재 학교처럼 요일의 개념이 없었다. 음력 보름에 한 번씩 쉬었는데 열나흘에는 그동안 배운 것을 훈장 앞에서 다 외워야 했다. 잘못하면 물푸레 회초리로 종아리도 맞고 그랬다. 서당은 아침 먹고 가서 훈장에게 인사를 드린 후 어제 배운 것을 온 순서대로 외워야 통과를 했다. 그리고 갱지에 훈장이 써준 것을 공부했다. 점심은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온 다음에 오후 공부를 했다. 당시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먼 사람은 없었다. 5시쯤이면 수업이 끝났다.

라군식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구장, 해방 전후에 이장 일을 봤다. 훈장은 약 12년 정도 했다. 서당은 음력 삼월 초에 시작해서 음력 선달 스무날에 파장했다. 점심은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먹고 오고 추울 때는 국수 등을 해서 내어주었다. 서당에서 시작할 때 훈장에게 큰절을 하고 나갈 때도 큰절을 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소를 풀어 놓거나 제사 술을 훔쳐 먹는 등 장난을 많이 쳤다. 서당에는 10여 명이 다녔는데, 당시 학생들의 나이는 대부

분 15세 정도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서당에 다닌 경우가 많았다. 모두 남학생이었다. 훈장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천자문을 떼기까지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를 마치면 학생이 송편을 집에서 해왔다. 이것을 학생들이 나눠 먹었다. 마을의 차인표 씨, 박재신 씨, 선우영수 씨, 정원준 씨 등이 제자이다.

라군식 선생은 가족에게 무척 엄했고,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아 아들인 라승휘 씨가 살림을 돌보았다. 서당 방이 차가우면 라승휘 씨가 나무를 해다가 불을 땀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라승휘 씨는 한학을 배우지 못했다. 라군식 선생은 손주를 본 이듬해에 훈장을 그만두었는데, 당시 연세가 70세가 넘었다. 현재 집은 지은 지 3년이 되었고, 옛날 집터가 서당이였다.

라군식 선생 며느리인 최돈내 씨는 남편 라승휘 씨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딸 둘을 데리고 서당 뒷바라지, 농사, 집안일을 감당했는데, 모내기 때면 서당 학생들의 부모가 모내기를 해줬다.



예전 서당자리 (라승휘씨 옛집)

## 제2절 학교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은 1947년 3월 19일에 설립되고, 1952년 2월 9일 부곡초등학교 승격하였다. 그러다가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여 1989년 3월 1일 부곡분교장 격하하였고, 2011년 3월 1일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였다. 현재는 부곡리 마을회에서 주민소득증대시설인 농촌관광휴향단지로 활용 중이다.

부곡초등학교는 현재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다. 해방 후 현재 라승휘 댁이 있는 자리 한쪽에 건물을 짓고 '강림국민학교 무례분교장'을 개장했다. 이 학교는 전쟁 때 소실이 되고 부곡1리 갈골에 있는 인가(人家)를 학교로 했다. 초기 무례분교장에는 정교사가 한 분, 교사를 보조해주는 강사가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6.25전쟁이 나고, 학교는 잠시 문을 닫았다가 안정이 되면서 현재 학교자리에 건물을 짓고 부곡분교장으로 개장하여 학교로 승격했다. 그러다가 학생이 감소하여 다시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운영되다가 폐교가 되었



갈골에 있던 부곡초등학교 자리



수련원으로 활용되는 부곡초등학교

다. 오랫동안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부곡리 마을 구성원 대부분은 이 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서는 가재바우, 굴바우 등으로 소풍을 많이 갔다. 굴바우 앞에는 폭포수가 있어서 그곳으로도 갔는데, 그 앞에 너래방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곡1리에 있는 범남소로 갔는데, 그곳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래가 있어서 놀기 좋았다. 범남소는 예전에 물이 깊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달빛에 비쳐진 곳이라 해서 또는 큰 장마 때 그곳 물이 넘쳤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그래 부곡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소풍은 가재바우, 굴바우, 범남소 등 세 곳만 번갈아 다녔다. 소풍가서는 보물 찾기를 많이 했는데, 상품은 주로 공책이나 연필 등 학용품이었다. 그래도 소풍 때면 강림에 있는 장사꾼들이 여럿이 왔다. 파는 물건은 주로 장난감, 음료수, 빵 등인데, 소풍 때면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면 아이들은 무엇을 살까 갈등하기도 했다.

자녀들 졸업식은 가보지 않았으나 학교 운동회는 마을잔치이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학교 운동회는 마을의 큰 행사였다. 아이들은 바늘꿴기, 병냇기, 막 터트리기 등 여러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편을 갈라 축구 경기도 했다. 이날은 아이들도 집에서 밤, 고구마, 감자 부침개, 빵 등을 싸가지고 갔으나 난전 식당에서 사먹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학교 입구에서 돼지국밥, 보신탕 등을 팔았는데 한 그릇에 30원 했다. 당시에는 학생수가 300여 명이었다.

### 〈주요 제보자〉

권오걸 (남, 63세, 음성 태생으로 35년 전에 이주했다.)  
권인식 (남, 81세, 양평 태생으로 8세에 이주했다.)  
김길생 (남, 66세, 부곡리 토박이)  
김덕성 (여, 79세, 부곡리 토박이로 19세에 결혼했다.)  
김복연 (여, 75세, 원주 태생으로 17세에 결혼했다.)  
김상돈 (남, 54세, 부곡리 토박이)  
김상열 (남, 54세, 부곡리 토박이)  
김상태 (남, 81세, 부곡리 토박이)  
김석남 (여, 86세, 부곡리 토박이로 18세에 결혼했다.)  
김인환 (남, 84세, 부곡리 토박이)  
라승휘 (남, 80세, 부곡리 토박이)  
박만호 (남, 51세, 부곡리 토박이)  
박선옥 (여, 84세, 부곡리 토박이로 17세에 결혼했다.)  
박영자 (여, 78세, 강릉 태생으로 17세에 결혼했다.)  
박옥림 (여, 74세, 부곡리 토박이로 19세에 결혼했다.)  
박재신 (남, 69세, 부곡리 토박이)  
선우영수(남, 70세, 부곡리 토박이)  
송금순 (여, 72세, 서울 태생으로 16년 전에 이주했다.)  
이선옥 (여, 81세, 월현리 태생으로 17세에 결혼했다.)  
이숙자 (여, 61세, 마석 태생으로 27세에 결혼했다.)  
이정숙 (여, 71세, 원주 태생으로 25세에 결혼했다.)  
장정자 (여, 69세, 제천 태생으로 18세에 결혼했다.)  
지금녀 (여, 77세, 5세에 이주하여 18세에 결혼했다.)  
지길녀 (여, 72세, 부곡리 토박이)  
정연오 (남, 78세, 부곡리 토박이)  
주상돈 (남, 54세, 부곡리 토박이)  
주윤철 (남, 82세, 양평 태생으로 13세에 이주했다.)  
차인표 (남, 78세, 부곡리 토박이)  
차정옥 (여, 80세, 부곡리 토박이로 23세에 결혼했다.)  
최대옥 (남, 82세, 부곡리 토박이)  
최돈내 (여, 81세, 평창 태생으로 18세에 결혼했다.)  
\*나이는 2015년 기준임.



2015 향토문화 자료집 (통권 제28호)

곧은치 · 솔거리 사람들의

# 삶과 문화

- 황성군 강림면 부곡리 -

발행일 \_ 2015.12.30

발행처 \_ 황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편 저 \_ 이영식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비매품

※이 책은 황성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